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무의 법구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물결이여
가 보지 못할 땐 천만 가지 한이었네
하나 그곳에 가 보자 별다른 것은 없고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물결이었네
-소동파-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사찰불사의 모든 것
책임 상담해 드립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성풍대불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8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9월 6일 수요일(주간) 제285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불교를 배우기 위해 교양·불교대학의 문을 두드리기에 앞서, 가상공간을 클릭하는 '사이버 불교대학' 시대가 오고 있다. 교계 첫 인터넷 불교대학(buddhistweb.com)이 개설된 데 이어, 한국불교선학연구원·한국불교연구원·동산불교대학·삼보법회 등도 강의 콘텐츠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를 제작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사이버 불교대학 개설에 나서고 있다.

"사이버대학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으며, 1천만 명을 웃도는 네티즌이 있는 국내 역시 이 같은 추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견이 있는 만큼, 교계의 발빠른 대응은 그저 다행스러울 뿐이다.

이러한 안도감은 사이버 불교대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계기라는 데 있다. 현실공간이 갖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면서 불교를 배울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수천만 명의 네티즌에 대한 포교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네티즌 중에는 교계에서 '가장 관심을 쏟아야 할 포교 대상'이라는 청소년·고학력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적잖은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사이버 불교대학 잇단개설 '환영'

따라서 교계에서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사이버 불교대학'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가꾸는 또 다른 방편이며, 그래서 불자 즉 사이버 불교대학의 운영자와 이용자들이 이것을 양성하기 위해 각별한 애정을 쏟아야 한다.

우선 운영자는 교육 환경을 높이 데 주력해야 한다. 교계보다 먼저 사이버 대학을 개설한 일반 단체들은 '접속 자체가 힘들고 접속 후에도 한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이용자들의 '짜증'에 시달려야만 했기 때문이다. 또한 동영상과 시뮬레이션 등 첨단 매체의 장점을 극대화한 강의 콘텐츠 개발에도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수업에 빠지지 않고 과제물 꼬박꼬박 챙기는 이용자의 정성도 필요하다. '사이버 대학'은 기존 교양·불교대학의 과정을 원격강의 하는 것뿐이어서, 수업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은 똑같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마감한 연세대 사이버교육센터(yonsei.hanaro.com)의 '동양사상과 선' 강좌의 성공 사례는, 가상공간의 교육프로그램에서 운영자와 이용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비지정 문화재 보호 받는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도난·은닉 처벌 규정 등 강화

문화재 절도범들의 집중 표적이 됐던 비지정문화재도 앞으로는 지정문화재에 준하는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청장 서정배)은 비지정문화재 보호책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었던 비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또 은닉기간 동안은 공소시효를 중단시켜 은닉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공소시효를 연장시켰다. 아울러 도난문화재의 불법취득과 운반뿐 아니라 양도·보유 및 보관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재청은 또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가지정' 제도를 확대해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도 가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유문화재의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건물 등도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4월 비지정문화재보호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에서 요청한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비지정문화재 보호와 문화재 불법유통을 근절할 획기적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지 267호 1면 참조〉

조계종 총무원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이 비지정문화재 도난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예 없는 점,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공소시효가 짧아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지난 4월 국무총리실 문화관광부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요청했었다.

조계종 문화부 이상규 과장은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한데도 지정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치됐던 비지정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하고 "앞으로 각 사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성보문화재에 대해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등 종단차원의 보호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지난해 펴낸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 의하면 도난문화재의 94.8%가 비지정문화재이며, 지금까지 비지정문화재 도난사범은 일반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공소시효(5년)만 경과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가운데 '은닉기간 중 공소시효 중지' 조항은 법률적 논란이 예상된다. 형법상 공소시효는 범죄사실이 종료된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조항의 경우 '범죄사실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보는냐에 따라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9월 15일까지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8월30일 열린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창립식에서 참가자들이 '생명파괴, 민족파괴 지리산댐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 창립

190개 단체 동참… '100만명 서명' 전개

190개 종교·환경·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이 8월30일 한국일보 대강당에서 각 단체 회원과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개최했다. 불교계가 주도해 온 환경운동이 범국민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행동은 이날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등 종교계와 환경·시민단체, 문화·산악계, 지역 대표자 등으로 11명의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28개 단체를 중심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 범국민적인 지리산댐 백지화및 지리산 살리기, 낙동강유역권 댐건설 반대, 개발위주의 수자원정책 변화촉구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국민행동은 이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 지리산의 문화·생태·역사·생활에 대한 총체적 조사작업, 홈페이지 제작, 지리산 문화제(9~10월경), 종교지도자 '지속가능한 수자원정책' 촉구 공동기자회견(11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수자원정책' 범국민토론회(11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상임공동대표에 수경스님(지리산살리기댐백지화추진범불교연대 상임대표)과 김지하 시인, 이세중 환경연합 공동대표, 이종훈 경실련 공동대표, 집행위원장에 유재현 세민재단 이사장을 각각 선출했다.〈상임대표 인터뷰 3면〉

참석자들은 "수질관리와 수요관리를 중심에 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정책을 시급히 제시할 것" 등 6개항의 대정부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세계평화-인류복지 종교지도자 앞장선다"

UN 종교지도자 회의
내년 한국개최 가능성

1천여 명의 세계 각국 종교·영성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밀레니엄 종교·영성 세계평화회의'가 28일 개막,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를 위해 종교·영성지도자들이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세계평화선언에 서명하고 31일 폐막했다.

종교지도자들은 세계평화선언을 통해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폭력을 비관하며 △빈부격차 해소와 자연환경 보존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선언문 3면〉

세계평화회의는 모리스 스트롱 유엔평화대학총장을 의장으로 하는 44명의 국제자문위원회를 구성,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수시로 회의를 열어 유엔 사무총장에게 조언할 계획이다. 또 세계평화회의는 향후 10년간 각국의 분쟁지역에서 매년 평화 이벤트를 개최키로 하고, 내년 회의를 한국전쟁 51주년을 맞아 내년 6월 25일을 전후로 한반도에서 개최할 뜻을 비쳤다. 그러나 북한측의 수용 여부와 한국 내 종교·영성 단체간 합의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월주 前 조계종 총무원장, 강원용 크리스챤 아카데미 명예이사장, 고은 시인 등 16명이 참석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세계 종교계 교류 활발…
한국불교 무관심-무대응

종교간 대화와 협력으로 인간의 고통을 풀고자 하는 세계 종교계의 흐름에 한국불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밀레니엄 종교·영성지도자 세계평화회의'는 이러한 의문을 갖게 한다.

세계평화회의는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지만, 자구평의회(코스타리카), 세계종교연합(인도), 세계종교회의(영국), 국제초종교센터(영국), 세계종교평의회(미국) 등 국내 불교계에 생소한 11개 국제종교단체들이 이번 조직을 도맡았다.

국제적인 종교 모임을 상세히 소개한 〈세계종교공동체 사료집(A Source Book for Earth's Community of Religions)〉에 따르면, 세계종교지도자들은 이 단체들의 국제적인 조직망을 활동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중에서 국내 불교계에 잘 알려진 것은 고작 '세계종교평화회의(WCRP)' 국제종교자유연맹(IARF)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은 세계 종교계 속에서 한국불교계의 모습은 '우물 속의 개구리'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80년대 후반부터 한국 종교계의 국제교류 창구로 자리하고 있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교계는 국제적인 종교 모임에 매년 참석하고 있지만 '세계종교평화회의'와 아시아 지역의 종교 모임인 '아시아종교평화회의(ACRP)' 등에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두 개의 모임에 참석하는 인물들은 전문성조차 고려하지 않고 종단 대표자급으로만 일관돼, 모임을 통해 보고 듣는 세계 종교계의 포교 방법이나 사회 활동 등을 국내에 환원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몇몇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이

☞2면으로 계속

日刊 인터넷 현대불교
Buddhanews.com

나라가 어려울때(國難) 불교전통(佛敎傳統)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자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 2000년도

금강산 건봉사 가을 성지대회 공고



△등공탑=염불만일회에 동참하신 서른 한 분 스님의 육신 등공부도탑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2000년도 가을 아미타 염불성지대회를 우리나라 최북단 강원도 고성군 건봉사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전국에 계신 염불만일회 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2000년 10월 1일 ~ 2일 (1박 2일)
◇ 장 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 건봉사
◇ 내 용 : 염불정진 및 등공대 참배, 아미타 무용
◇ 신청대상 : 개인, 단체, 사찰, 가족단위
◇ 참 가 비 : 25,000원
◇ 신청방법 : 전화신청 후 은행계좌에 입금
◇ 교 통 편 : 개인별 건봉사 도착

서울·경기지역 출발 안내
○ 출발장소 : 서울 조계사 앞(안국동 로터리)
○ 출발시간 : 2000년 10월 1일 오전 6시
○ 교 통 편 : 관광버스(단, 동참자는 참가비·교통비 포함 50,000원을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염불만일회 회원 모집
▶ 회원자격 : 염불수행을 원하는 모든 분
▶ 회원대상 : 사찰, 단체, 개인별로 가입
▶ 회원회비 : 가입비 2만원(매년회비 1만원)
▶ 가입방법 : 전화 및 우편(사무국 : 02)732-1215~7)

회원이 되시면
▶ 아미타불의 수행방법을 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염불만일회 소식을 가정에서 통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염불일일기도 수첩 보내드림)
▶ 전국 대도시별로 회원 관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 평생동안 염불만일회 회원이 됩니다.
▶ 법보신문에 매주 고유번호와 성명이 게재됩니다.

회원가입 은행 입금계좌 (예금주 : 염불만일회)
국민은행:023-21-0667-309 조흥은행:390-04-249351
농 협:053-02-128104 우 체 국:010041-0384727
외 환:173-18-10454-9

全國念佛萬日會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02)732-1215~7 FAX (02)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불교여성개발원 10월 창립

교육위 · 가정위 등 6개 상임위 설치…23~24일 봉은사서 워크숍

불교신도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불자 교육 및 활동가를 양성할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이 10월 28일 오후 3시 조계사에서 창립된다. 이번 여성개발원의 창립은 21세기를 맞아 여성불자의 새로운 흐름을 여는 교류와 협력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교여성개발원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이인자, 경기대교수)는 8월 31일 회의를 갖고 9월 중순까지 이사, 감사, 고문, 자문위원, 상임위원을 인선한 뒤 9월말 창립이사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조직점검과 대중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불자여성워크숍을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간 서울 봉은사에서 열기로 했다. 1백명의 여성불자가 참여할 이번 워크숍에는 '의사소통훈련' '불교여성개발원의 활동과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참선, 법문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평등실현을 목적으로 창립되는 불교여성개발원은 창립과 함께 △불교여성학 연구 및 이론개발 △여성교육 및 활동가 양성 △타단체와 교류 협력 △건강가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여성 사회복지 향상사업 △생활문화운동 등의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연구 · 교육위, 가정위, 여성복지위, 대외협력위등 6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주영 간사는 "불교여성개발원은 부처님의 평등사상 관점에서 여성학 이론을 새롭게 개발하여 한국사회의 왜곡된 여성운동을 바로잡겠다"며 "여성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바탕하여 불교와 세계를 바라보고, 자비사상을 사회속에서 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연대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8월 18일부터 '여성의 지위와 역할향상'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여성리더십 기초교육에는 30여명의 교계 여성활동가들이 참여했다. 9월 열리는 기초교육은 8일 '원활한 의사소통(김남선, 참교육연구소 소장)', 15일 '능숙한 회의진행(송혁관, 휴먼넷트 소장)' 등의 강의가 조계사 불교대학 4층 소법당에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열린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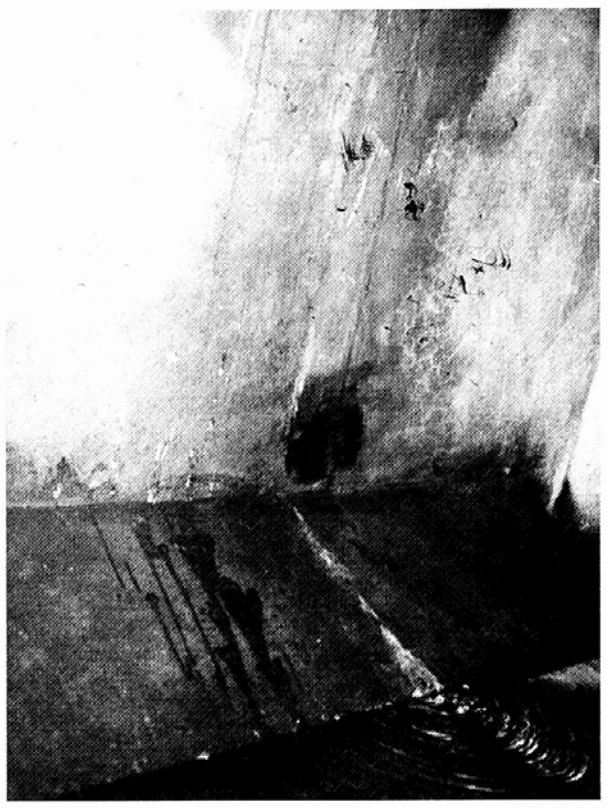
조계종 종회 18일 개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는 8월28일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147회 임시중앙종회를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장 법등스님과 부의장 청화, 명진스님, 총무분과위원장 영담스님, 교육분과위원장 지하스님, 포교분과위원장 지홍스님, 호법분과위원장 대원스님 등이 참석했으며, △중앙종무기관(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종무보고 △종정감사 특위 구성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지난 3월 총무원에서 제출한 사면 실시를 위한 종헌개정안은 종헌특위의 논의에 따라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대학본부와 1수행관(비구기숙사) 사이의 비상발전기실 내부 바닥에 물이 새 흥건하게 고여 있다. 지난 해 보수를 요청, 보수 공사를 했으나 여전히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

재가연대, 대학생설문

불교입문 언제? "대학 때" 70%

초 · 중 · 고 불교학생회 활동이 대학진학 이후까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포교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가 8월 3~6일 대불련 회원 302명(남자 138명, 여자 1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가불자 활동방향 정립을 위한 의견조사'에서 드러난 것.

이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불자의 신행경력은 응답자의 69.9%가 대학교 불교학생회부터 였으며, 고등학교불교학생회부터(14.2%), 어린이법회부터(11.1%) 등으로 나타나 대학진학 이후 불교에 입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 · 중 · 고등학교 불교활동이 대학진학 이후까지 연결되지 않고 있으며, 대학교 불교학생회 활동이 새로운 불자를 만들어 내는 포교 창구·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학생 불교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재정지원(46%)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다양한 신행프로그램 개발(18.3%), 교리교육 프로그램 개발(17.3%), 지도법사 및 지도교수 지원(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재경 기자

신도교육위 곧 발족

조계종포교원 하반기계획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8월 28일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달 내 신도교육위원회 발족 등 하반기 종무계획을 발표했다.

포교원은 내년부터 신도교육 전면실시를 위해 교육별 교육안, 교재, 교안등을 개발하는 것을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직장직능단체 연합대법회 개최 △군포교 제도개선 및 군불교위원회 구성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경승단 지원 및 활성화 △포교활동사례집 발간 △교법사 수련회 개최 △불교청소년지도자 간담회 △불교어린이교사대학 설립 등을 통해 불교포교 극대화에 나선다.

김원우 기자

벽 금가고 물새는 승가대 김포학사

조계종, 풍림건설에 재시공 요청

부실시공으로 재시공중인 중앙승가대 김포학사에 또다른 부실이 발견돼 다시 재시공 협의에 들어갔다.

중앙승가대 김포학사이전특위에 따르면, 8월 28~29일 현장 점검 결과 대학본부, 교수회관, 강의동, 수행관(기숙사) 등 모든 건물 지하층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는 등 부실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의동 건물 외벽에도 지은 지 1년만에 폭 4~5mm의 균열이 나타나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에 설치된 통신 · 고압선로 맨홀에도 물이 고여 치명적인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드러났다.

지하층 누수에 대해 시공사인 풍림건설은 입주해서 스님들이 생활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전특위는 "습기에 약해 지하층 시공 때는 쓰지 않는 기포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등 마감 및 방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추가 재시공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승가대 김포학사는 지난 해 6월 공사를 마쳤으나, 여러 곳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나 입주를 늦추고 있다.

정성운 기자

"종교와 권력 밀착 역기능 양산"

종교전문가들 '당대비평' 가을호에 비판

계간 〈당대비평〉이 최근 발행된 가을호에서 '권력으로서의 한국 종교'라는 기획으로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주요 종교의 역기능과 몰염치를 질타하고 나섰다.

'권력으로서의 한국 종교'라는 큰 제목 밑에 '한국 종교, 열광과 침묵 사이에서'(장석만 한국종교연구회 연구원) '불교계, 종단 권력의 정치학'(김종찬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개신교와 성장주의 이데올로기'(이진구 한국종교연구회 연구원) '한국 천주교회의 빛과 그림자'(조현범 한신대 강사) 등 네 편의 글을 실었다. 장석만씨는 "종교적인 삶은 제멋대로 세상 편히 살아가는 삶과는 매우 다름에도 자신의 안락함과 권세를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자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 "파국을 모면하려면 종교 문제를 책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을 지속적으로 열어놓는 일이다"는 언술이 이 기획이 전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기조 발제에 해당하는 '한국 종교, 열광과 침묵 사이에서'를 통해 장석만씨는 19세기 말부터 진행된 종교적 상황을 짚어보며 우리나라 종교 문제를 △종교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의 자의적 적용 △가부장적인 종교 폭력 △종교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 비판의 측면에서 해부하고 있다.

장씨는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는 대부분의 한국 종교가 지니는 부정적인 모습"이라며 신부-수녀, 목사-여신도, 비구-비구니 관계는 불평등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목사와 여신도를 어르신-하녀로 대비한 장씨는 불교계의 비구-비구니 관계에 대해서도 비판의 강도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한국의 비구승들은 살불살조(殺佛殺祖)의 선(禪) 전통을 이어받았네 하면서 남들에게는 모든 권위를 타파하고 도전하는 제스처를 보이지만, 자신들 사이에서는 지독한 위계질서와 골목대장식 편싸움에 파묻혀 지내고 있다."

한편 김종찬씨는 돈-문중-종권을 키워드로 조계종의 권력구조를 분석하고 "돈이 있어야 거대한 문중을 형성하여 후계자를 양성할 수 있고, 돈의 집적을 위해서는 거대사찰을 장악해야 하며, 거대사찰을 장기적으로 점유하기 위해 조계종단의 종권을 장악해야 하고, 종권 장악에는 정치권력과의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악의 순환 고리가 자리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1면 '종교교류'서 계속

들 모임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역시 교계의 자양분이 되질 못하고 있다. 국제적인 종교 모임에 참가하는 횟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성곤(전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박사는 "국제적인 흐름을 읽고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전담 부서'가 없어, 국제 종교 모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국제적인 종교단체 대부분은 중앙 조직보다는 지부 · 지역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지부 · 지역 조직과의 맞닿는 창구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서는 국제 종교 모임의 현장에 들어서지 못한다. 조계종과 진각종의 경우 올해 초 총무원과 통리원 산하 해외교류 전담 기구를 신설했지만, 아직까지 종단 차원의 해외교류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젊고 유능한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국제적인 종교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종단 차원의 지원이 있고, 세계 종교 모임에 대한 정보를 적극 수집해 한국불교와의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계평화회의에서 1천여 명의 세계 종교지도자들은 자주 만나 종교 · 민족간 분규를 막자는 데 의견을 모아, 향후 국제 종교 모임은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오증욱 기자

현 대 만 평 박구원



적극적으로 나서자!

봉은사 '아셈NGO 포럼' 열기로

최근 종무회의서 결정

'아셈 NGO 포럼'이 봉은사에서 열리게 됐다.

봉은사(주지 원혜)는 최근 종무회의를 열고 10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열리는 '아셈 2000 민간단체 포럼'을 봉은사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아셈 NGO 포럼 사무국으로부터 봉은사를 개최지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개최가 어렵다는 의사를 7월말경 밝힌 이후, 개최지 제공이 불교계를 위해 도움이 된다는 판단아래 다시 입장을 최종 정리한 것이다.

봉은사가 민간단체 포럼 개최 장소로 최종 결정되고, 아셈회의를 전후해 봉은사 전역에 '10만등 밝히기'가 계획돼 있어 봉은사는 물론 한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사찰문화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셈 민간단체 포럼에는 종교 · 인권 · 평화 · 환경 · 여성 · 빈곤과 개발 등 12개 분과로 나뉘어 50개 주제의 포럼과 다양한 문화행사로 진행되며, 우리나라의 50여 단체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30여개국의 120개 민간단체 대표 500여명이 참가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갈월사 영탑(靈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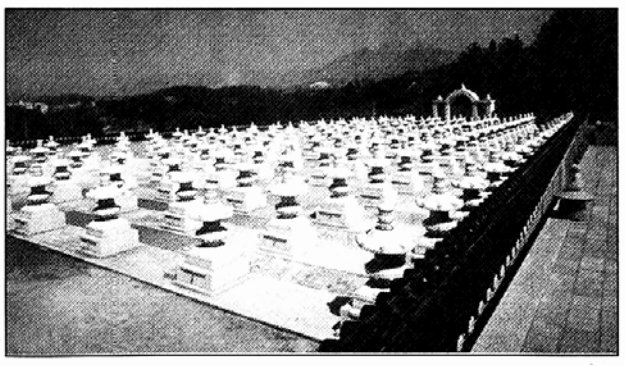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 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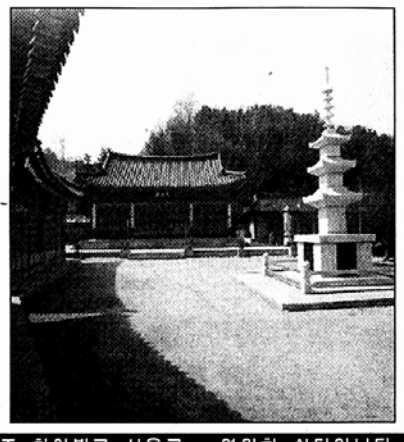
조성된 영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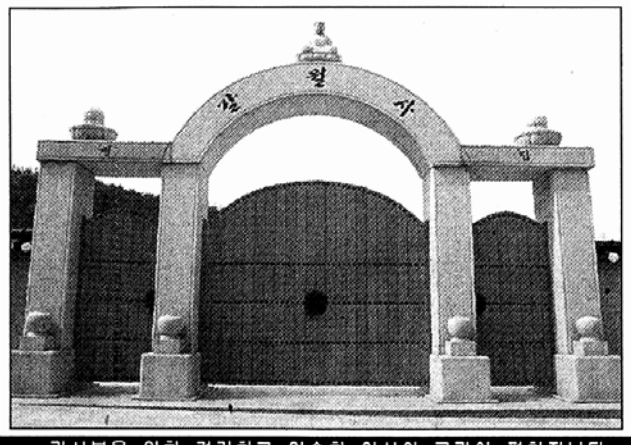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정문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분 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 월 사**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목어

너그럽게 살 수 없을까

신문의 사회면을 보면 '분노'라는 단어가 많이 눈에 뜨인다. 수돗물이 안나왔다고 분노했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도 실려 있다. 비행기가 늦게 도착했다고 분노했다는 이야기도 실려 있다. 이유도 없이 분노한 시민이 누구를 해롭게 했다는 이야기도 실려 있다. 분노한 야당의원들이 거리를 쏘다니면서 어쨌다는 이야기도 실려 있다. 끔찍하게는, 부모가 자신을 홀대했다고 분노해서 토막살인했다는 이야기도 실려 있다.

도무지 분노의 근원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우리들을 끔찍하게 만드는 것일까. 하루도 성한 날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욕구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방해를 받으면 갈등을 갖는다. 이런 갈등의 표출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려 분노를 나타내기도 한다.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 역동적인 원인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모순되게도 사람들은 무한한 욕구의 충족과 더불어 아주 담담한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무한정한 욕구의 충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충족에 이르기까지 제동이 걸리는 것이 많다. 불가능한 것을 충족하기를 원하거나 제동이 걸린 욕구는 한결같이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면서도 모순되게 담담함을 기원한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욕구는 결코 한마음 속에 공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경쟁을 통해 끝없는 욕구 충족을 원하거나 아니면 담담한 마음 갖기를 원하거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선택이 아닐지라도 자아의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평온해진다. 마음을 비우라고 한 진정한 뜻도 그런 모순을 읽으라는 뜻일 것이다.

분노가 많다는 것은 개인의 욕구와도 관계가 있지만 사회적인 병리현상과도 연관성이 있다. 이 떨 수 없는 고리는 개인의 분노를 정당화 하거나 촉구시키는 촉매가 되기도 한다.

욕구들을 무한정 갖고서는 느긋해지기는 어렵다. 담담해지는 과정은 어렵다. 그러나 담담한 경지에 이르면 분노로 얼룩진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있을 것이다. 훌훌 떨쳐버리고 좀 느긋하게 살 수는 없을까. 마음을 비우라는 말씀의 바른 뜻을 바로 새겨 스스로를 실천시키는 용기를 가져보자.

이근후(이화의대 교수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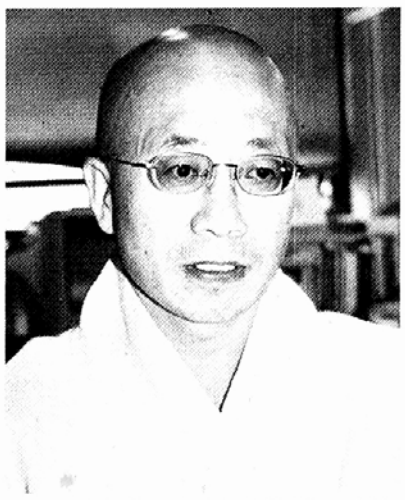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수경스님

"청정국토-무소유 실천 불교 환경운동의 길"



◇수경스님은 30여년 제방선원에서 수행에 전념해온 수좌답게 자기를 맑히기 위한 수행을 거듭 당부했다.

8월 30일 한국일보 대강당에서 189개 종교 · 환경 ·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창립식을 가진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은 우리나라 환경운동에서는 드물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계가 적극 참여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특히 창립 과정에서부터 불교환경단체인 지리산살리기 · 댐백지화추진 범불교연대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연대활동을 주도해 불교환경운동 활성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 8월 31일 지리산살리기 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수경스님을 만나 '국민행동'의 창립 의의, 이후 활동 계획 등을 들었다.

— '국민행동' 창립의 불교적 의의는 무엇일까요.

▲지리산댐 건설 문제는 단순한 지역환경문제를 떠나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한 몸'이라는 불교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경치 좋은 곳에 사는 스님들이 환경문제를 인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사(山寺)도 이젠 환경훼손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환경단체가 갖가지 사안으로 지친 상황에서 불교계가 나선 것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범종단적 차원에서 사회적인 문제에 동참한 것도 의의가 큽니다. 이번 활동이 스님과 불자들의 환경 의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스님께서는 수덕사 응담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을 은사로 출가하신 후 30여년간 일관되게 제방 선원에서 정진해 온 수좌로서 스님들의 신망이 두터운데요. 환경운동을 하게 된 계기와 활동 소감이 있다면.

▲산수(山水) 좋은 선방에만 있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일도 모르고 환경문제가 심각한 줄도 몰랐어요. 그러던 중 지리산 실상사 바로 옆에 댐이 생긴다고 해서 진주환경연합 사무실에 들렀는데,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리산을 지키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정성을 다하는 열정을 보고 중생의 고통을 함께 해야 할 입장에서 부끄러웠습니다. 몇 달간 환경운동을 하면서 시민단체 종사자들이 사심없이 세상을 맑게 하는 일에 종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일을 사실은 종단이 나서서 해야 하는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종단의 소극적인 지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국민행동'에서 불교계는 주로 어떤 일을 맡게 됩니까.

▲지리산이 자연환경은 물론 민족사적으로나 문화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댐건설, 위락시설 조성 등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리산댐 건설 백지화 운동 차원을 넘어 지리산과 낙동강을 함께 살리기 위한 운동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100만인 서명운동과 환경교육 실시 등 불자들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조계종 환경위원회 등과 힘을 합쳐 환경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80여 개 사찰의 환경보존 노력에도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지리산 문화제와 종교지도자 '지속가능한 수자원정책' 촉구 기자회견,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수자원정책' 범국민토론회 등 불교계의 환경사상과 힘이 필요한 부분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불자 및 시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마음이 맑아야 국토가 깨끗해진다'(心淸淨 國土淸淨)는 가르침처럼 불자들이 먼저 마음 맑히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수행에 매진할 때 환경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지리산 살리기 운동을 계기로 스님들의 수행가풍이 되살아났으면 합니다. 불교인답게 청정 · 무소유 정신으로 자연을 아끼고, 시민들도 한 방울의 물도 아끼는 생활환경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UN 밀레니엄 종교지도자 평화선언

우리는 인류 사회가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조력할 강력한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지도력을 요구하는 인류사의 중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종교 및 영성지도자로서, 우리는 지구 위의 평화와 인류공동체의 복지를 위한 우리의 특별한 사명을 자각합니다. 위의 관점에서, 우리는 사명을 자각하고 결의합니다.

1. 모든 차원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세계적으로,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유엔과 협조하고 파트너가 될 것을 결의합니다.
2. 모든 생명체와 개인의 천부적 존엄성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존엄한 권리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포함하는 영적인 가치에 대한 사명의 부활을 요청할 것을 결의합니다.
3. 종교적 차이와 민족적 차이로 인한 분규를 비폭력적으로 해결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폭력을 비판할 것을 결의합니다.
4. 모든 종교 전통과 모든 민족과 국가의 성원들에게 상호 용서와 화해에 참여하고, 우리 공동체의 치유를 촉진하도록 호소할 것을 결의합니다.
5. 모든 개인과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인류의 복지에 대한 공동 책임감을 깨닫고, 종교와 인종과 성과 민족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는 교육권과 의료권, 그리고 안전하고 지속적인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자각하도록 할 것을 결의합니다.
6. 빈부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역전시켜서 국가 내에 그리고 국가 간에 부의 보다 동등한 분배를 촉진시킬 것을 결의합니다.
7. 우리 공동체에 자연환경과 모든 생명을 보살피고, 환경보존과 복원이 모든 개발 계획과 활동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긴급한 요구라는 것을 교육할 것을 결의합니다.
8. 인간 사회에 다양한 종교와 민족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존경과 관용 그리고 이해라는 도덕적 원칙을 실천하도록 우리의 신앙공동체에 호소할 것을 결의합니다.
9. 모든 국가들이 유엔에 협력하여 지구 생명체의 안전과 안정을 위하여 모든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도록 요청할 것을 결의합니다.
10. 평화로운 사회의 토대인 내면적 평화의 가치를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 공유하고 실천할 것을 결의합니다.

종교 및 영성지도자로서 우리는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맹세합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에게 차이가 있는 곳에는 대화에 동참하고, 폭력을 삼가고, 동정심과 존경을 실천하고,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지지하도록 호소하는 바입니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문자배척 풍토가 선시연구 가로막아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㉕선시 읽기(4)



김형중
명성여고 교법사
문학박사

명시를 살펴보면 유명한 고찰이나 고요한 산사를 소재로 하여 읊은 시이거나 깊은 사유를 통한 자신의 깨달음의 경계를 읊은 철리시(哲理詩)가 많다.

왕유(王維)의 대표적인 시로 인구에 회자하는 '과향적사(過香積寺)', 〈망천집(輞川集)〉에 나타난 20수의 시가 시선일여의 세계를 읊은 그림같은 선시이고, 소동파가 여산(廬山) 동림사(東林寺)의 상총조각(常總 照覺)선사(1025-1091)에게 준 '증동림총장로(贈東林總長老)', '제서림벽(題西林壁)', '여산연우(廬山烟雨)' 등이 그렇다. 신라 말기, 고려시대의 한시문학을 대표하는 문창후, 최치원, 이규보 또한 그렇다.

조선시대 숭유억불의 국시(國是)에서도 시단을 이끌었던 문형(文衡)인 다제학을 지낸 대가들도 선학에 조예가 깊었고, 고승과 교류가 잦았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불교를 금기시하면서도 선사들의 시문집에 서문을 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그곳에 자신들의 문학론과 선시론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발간 후 2세기 이상 조선 한시 학습의 교과서 격할을 한 〈소화시평(小華詩評)〉에 수록된 478수 가운데 산사와 스님을 소재로 한 시가 무려 83수나 되고 시승(詩僧)의 시가 8수[시평보유(詩評補遺)에도 5수를 수록], 사대부가 스님에게 준 시가 4수가 소개되고 있다. ㅇ 책에서 홍만종은 명시의 선택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시는 뜻이 말 밖[言外]에 있고, 함축미를 풍부하게 가진 것을 아름답게 여긴다. 만약 시어의 의미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대로 말하여 숨긴 것이 없다면 아무리 사조(詞藻)가 굉장하고 아름다우며, 화려하다고 하여도 시를 아는 자라면 좋다고 하지 않는다." 선학에 조예가 깊었던 홍만종의 이러한 시론은 선시론과 일치하고 있다.

현재 한국 한시문학계에서 신라나 고려, 조선 시대의 사대부 시인의 한시 작품을 연구하는 논문 가운데 작품론이나 작가론에서 불교(선)적 측면에서 고찰한 경우는 거의 없다. 선가문학이 우리 문학사의 주류는 아니지만 국문학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선시문학에 대한 이해는 불가피한 요소이다.

선시문학에 대한 소외현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것은 선시가 대중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밝히는 일은 우리가 선시를 어떻게 읽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선시의 난해성이다. 선시를 학습하고 이해하려면 한시와 선에 대한 상식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선지(禪旨)가 있으면 한학(한시) 실력이 부족하고, 한시에 능하면 선에 대한 이해가 없어 선시에 대한 공부를 업두 내지 못한다. 설령 선지와 한시 능력을 겸비했다 하더라도 현대적 언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면 이 또한 불가한 것이다.

둘째, 선시에 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못했다. 선시 읽기에 기초가 되는 정선된 선시집과 해설서나 선시이론을 정리한 선시문학 개론서가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한글세대에서 선시를 연구하려는 학자도 적고, 연구서도 미미한 실정이므로 일반 대중이 선시를 읽고 싶어도 눈 뜬 장님이 되고 만다.

셋째, 선시를 읽기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문제점이 선시의 언어가 일상의 논리적인 시어와 구별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시에 나타난 선시어를 종합, 분석하여 선시어가 상징하고 의미하는 뜻을 밝혀주어야 한다.

끝으로 선시는 선의 깊은 체험과 사유를 나타내고, 선종의 전용적인 화두(話頭 · 公案)와 고사(故事)를 용사(用事)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가 대단히 난해하고, 깊은 철리가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선사상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1700공안(公案), 즉 화두에 대하여 학습이 이루어져야 화두시(話頭詩-頌古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선가의 병폐 중의 하나가 선가의 종지가 불립문자 교외별전을 표방한다는 이유로 막연히 선의 언어나 화두에 대한 설명을 논리적으로 이해, 해설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다. 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면 늘 선적 수행과 체험도 없는 자의 지껄임으로 격하하기 때문에 선시나 선이론에 대한 이론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혜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733-3900 6263-3900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hyecho@hyecho.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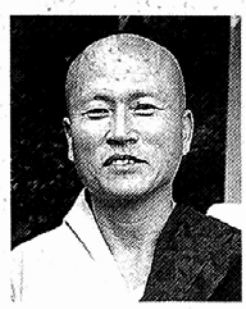
동남아 불교예술의 보고를 찾아 떠나는
미얀마 성지순례 7일 ₩1,550,000
· 일 정 : 서울-방콕-양곤-파간-만달레이-민군-혜호-양곤-방콕-서울
· 출 발 일 : 9/20 일
■ 미얀마 천년 고도인 파간 : 쉐지곤파고다, 아난다사원, 마누하사원 부파야파고다, 남파야, 쉐산도등
■ 공파웅 왕조의 역사 유적지 : 730개의 석장경이 모셔진 쿠도도파고다 차욱퉛지파고다, 만달레이힐파고다
■ 민군 종, 민군 대탑
■ 소수민족의 풍속 여행지 혜호 : 형태와 모양이 다른 수천 불상을 모신 펀다야 동굴사원, 인레호수
■ 미얀마의 수도 양곤 : 와불이 모셔진 차욱탓지파고다, 보타타웅파고다, 까바에파고다(진신사리친견대법회) 미얀마의 상징 쉐다곤파고다, 위빠사나 명상센타 마하시 수도원, 아웅산묘지등.

佛子世界
걸망메고 대륙의 중앙으로....
古都의 땅을 찾아...
日本 佛敎 文化探訪 5일 ₩1,050,000
· 일 정 : 서울 - 오사카 - 고야 - 나라 - 교토 - 사가 - 오사카 - 서울
· 포함사항 : 국제선 항공료, 비자 비용, 공항세, 보험, 호텔 안내원, 전용차량, 전일정 식사
· 출 발 일 : 9/1, 13, 22
우리의 멋스러움이 녹아 스며있는 일본 불교문화
그 곳을 찾아 떠나는 일본 성지 순례...
■ 오사카 : 일본 제2의 도시, 한국인의 恨이 서린 땅
■ 교 토 : 일본 문화의 보고로 지금까지도 남아 숨쉬는 옛 古都의 자태
■ 나 라 : 백제의 불교가 전파된 고대문화의 중심지

Tibet 인기
금단의 大地 티벳 걸망여행 ₩990,000
평균고도 4,000를 넘나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벳고원...
스스로 불교 땅임을 자처하는 티벳인들의 삶..... 그리고 히말리야!
時호을 넘나드는 티벳으로의 순례를 시작 하십시오.
· 일 정 : 서울 - 네팔,카트만두 - 히말라야를 넘어 티벳 평원으로 (자유일정)...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중국 및 티벳여행허가서,카트만두 1박
· 출 발 일 : 매주 화,목,토 개별출발
전통의 성지순례전문 혜초에서 선보이는
인도 · 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탄생지, 성도지, 초전법륜지, 열반지 순례및 8대성지 순례.
※ 순례후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 일 정 : 델리-바라나시(녹야원)-부다가야(성도지)-나란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왕사성,죽림정사)-파트나-바이살리(대림정사,아쇼카석주)-쿠시나가르(열반사,다비터)-사헷트 마헷트(사윗성, 기원정사)-룸비니-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 포함사항 : 1년 항공권,숙소(조식포함),한국안내원,전용차량
· 출 발 일 : 15명이상 수시 출발
불교 최대의 석굴 "막고굴" 탐방 4박 5일 ₩1,090,000
'진' 시황제의 병마총...비림,대안탑 등 탐방
· 일 정 : 서울-서안-돈황-양관-서안-서울
· 포함사항 : 항공료, 숙식, 중국비자, 입장료, 전용차량
· 출 발 일 : 9/18, 9/25, 10/2, 10/9
※ 10년 전통의 혜초 여행사는 불자와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여행사입니다. 후원 : 현대불교신문, 스포츠조선

"한국인 불심 담은 절 2005년 완공"

6년만에 귀국 룸비니 대성석가사 법신 스님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룸비니 성지에 '국민 모두의 가람'을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웅전의 골조공사가 65%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오는 2005년에는 완공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부처님탄생성지 네팔 룸비니원 국제사원 구역내에 한국 사찰 대성석가사를 짓고 있는 주지 각현 법신 스님이 6년여만에 일시 귀국했다. 스님은 이번 귀국길에 대성석가사 건축을 맡고 있는 엔지니어 사다난단, 현지 목수 치트라다랄·그우리 조다리, 사무장 순달하말 등과 동행했다. 이들은 지난 20여일 동안 서울 대각사, 부산 범어사, 양산 통도사 등 한국의 고건축을 견학하고 고건축자에게 건축기술도 배우고 있다.

대성석가사는 제1요사 3층이 이미 완성돼 사용중이고 제2요사를 올해 기공할 예정이다.

유서깊은 성지 룸비니에 중국 일본은 물론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등 불교가 융성한 나라의 사찰은 이미 지어져 국위를 선양하고 참배객을 받고 있지만 1600년 불교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 절만이 없어 뜻있는 불자들의 아쉬움을 사왔다. 룸비니에 한국 절을 세우겠다는 도문스님(죽림정사 조실)의 간절한 원력을 이어받은 법신스님이 룸비니에 간 것이 지난 94년. 결핵과 문둥병 환자가 반이 넘는 열악하고 가난한 환경에 있는 현지인들을 불사에 고용, 6년여동안 지역민들에게 생활근거도 마련해 주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초파일 한국의 불자들과 일반인들의 동참으로 1만 연등을 달아 대성석가사를 아름답게 수놓았을 뿐 아니라 불사에도 큰 힘이 되었다고 전한 법신스님은 "여러 스님들과 신도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고 계시지만 연등달기와 같은 국민적 동참이야말로 많은 격려가 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법신스님은 이달말까지 용성스님 생가복원불사 낙성법회 등 여러행사에 참석하고 10월 2일 다시 룸비니로 출국한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세계수준 시민운동 배워 오겠다"

불교계 첫 유엔 NGO 연수 류인화 씨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각국의 NGO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유엔(미국 뉴욕)에 2년간 국제활동을 배우러 떠나는 류인화(27)씨. 96년 대불련 대경지부 지부장을 역임하고 3년간 대경지부 간사로 일한 류씨는 30일 출국에 앞서 "유엔에 NGO로 가입한 미주 현대불교가 NGO 국제활동 수련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교계언론을 통해 접하고 결심하게 됐다"며 "세계적인 NGO들의 활동을 체험하고 배워 한국불교의 NGO 활동가로 뜻을 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류씨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환경. 계명대에서 '국내 지역통화운동의 실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을 써 석사학위를 받은 류씨는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지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통화운동(돈 없이도 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다자간 품앗이) 방법을 체계화하는데 가능한 많은 경험을 쌓아 올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귀국해서도 지방의 NGO에서 활동하면서 불교계와 국제 NGO 및 국내 NGO기구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일주문

수재민돕기 500만원 기탁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은 1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수재민돕기를 성금 500만원을 한국방송공사에 기탁했다.

금오문도회 운영위원장에



이두 청주 관음사 주지는 8월 21일 법주사 궁현당에서 열린 금오문도회 운영위원회에서 탄성스님 입적으로 공석이던 금오문도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되었다.

달리이 방한준비위 사무실 개소



법장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 상임대표(수덕사 주지)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동일빌딩 6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9월 6일 오후5시에 개소식을 갖는다. (02)730-8586

삼화사 사천왕문 개축상량



원행 동해 삼화사 주지는 8월 29일 사천왕문 개축 상량법회를 봉행했다. 17평 규모의 사천왕문은 오는 11월말 준공 예정이다.

진주 MBC라디오 환경강연

김재일 두레생태기행 대표는 지리산 댐과 관련 진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2월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40~55분 '환경과 생태'를 주제로 강연한다.



포교사 과정 하계수련회

이하우 부산불교교육대학장은 8월 26~27일 표충사 설법전에서 10기 포교사과정 하계수련회를 실시했다.

고희 기념문집 발간식



채낙현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장은 8월 30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고희기념문집 발간식을 가졌다.

동국대 사회체육학 겸임교수



야구해설가 허일성 씨는 2학기부터 동국대 경주캠퍼스 사회체육학과 겸임교수로 초빙돼,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평생 체육'을 주제로 강의한다.

천태종 교원불자련 새 회장에



윤수현 창원대 교수(언어학)는 최근 서울 관문사 대웅전에서 취임식을 갖고 천태종 전국교원불자연합회 제3대 회장에 취임했다. 윤 교수는 전국교원불자연합회 결성에 산파역을 했고, 그동안 고문으로 활동해 왔다.



◇전재성씨



◇노경식씨



◇김태곤씨



◇김병조씨

제9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발표

특별상 고려대장경硏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이 주최하는 제9회 행원문화상 역경상에 전재성씨(한국 빨리 성전협회 회장), 문학상에 노경식(극작가) 씨, 예술상에 김태곤(가수) 씨, 대중예술상에 김병조(방송인) 씨가 각각 선정됐다. 또 특별상은 고려대장경연구소가 받게 됐다.

전재성 씨는 〈빨리어 사전〉과 〈범어문법학〉 등을 번역 저술하며 역경과 교학 발전에 힘써왔으며, 노경식 씨는 〈천년의 바람〉 〈사명대사〉 〈무학대사〉 등 고승을 소재로 한 소설을 집필해 불교문학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에도 후보에 올랐던 김태곤 씨는 '송학사' '나무석가모니불' 등 다수의 찬불대중가요를 작곡해 법음홍포에 큰 공을 세웠으며, 김병조 씨는 개국 초부터 현재까지 10여 년에 걸쳐 불교방송에서 '옛가락 우리노래' '다시듣고 싶은 노래' 등을 진행하며 전파 포교에 앞장서 왔다.

팔만대장경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고려대장경연구소도 팔만대장경의 우수성을 대중화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29일 오후 2시 중앙승가대 정진관에서 열린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무진장·지광 스님 동국대 겸임교수에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일선 사찰 주지 스님이 사상 처음으로 동국대 불교대학원 강단에서 정식 교과목을 강의한다. 무진장(조계사·사진 왼쪽) 스님과 지광(능인선원 원장) 스님은 8월 31일 동국대로부터 겸임교수 위촉장을 받고, 9월 4일부터 12월 중순까지 '매체 포교론'과 '불교학 특강'을 강의한다. 일선 사찰 주지 스님이 대학원 강단에 서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포교현장의 경험을 대학 강단에 접목시킨다는 점에서 불교학의 산학협동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 재무부장 성월 스님

사서차장 경우 기획국장 만초



총무원 재무부장에 성월스님〈사진〉, 사서차장에 경우스님, 기획국장에 만초스님이 임명됐다.

재무부장 성월 스님은 정대스님을 은사로 용주사에서 출가, 77년 사미계, 79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95년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수료했으며, 98년부터 삼막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사서차장 경우스님은 태허스님을 은사로 선운사에서 출가, 85년 사미계, 95년 비구계를 수지하고 선운사 재무국장,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을 역임했다. 기획국장 만초스님은 태봉스님을 은사로 출가, 84년 사미계, 89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92년 중앙승가대 졸업 이후 통도사 재무과장과 내원암 주지를 역임했다.



반야심경 강좌 회향

목멱산선우회(회장 김용정)는 8월 26일 목멱산 충정사에서 제1회 반야심경 강좌 회향 및 수료식을 성대하게 봉행했다. 총 43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이날 법요식에서 목멱산선우회 회장 겸 〈반야심경〉을 강의한 김용정 박사는 "반야심경의 공사상과 중도사상 이야말로 이 난관을 극복하고 가치관을 재정립할 수 있는 부처님 법의 진수"라며 수료생 모두 함께 정진하여 혼탁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고 역설했다.

이귀인 명예기자

우면산 대성사 대웅보전 및 요사 상량식 법회봉행



우면산 대성사 대웅전 상량식

서울 우면산 대성사는 8월 31일 새로 건축하는 대웅전의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대성사 조실 도문 스님과 주지 환희 스님, 유종혁 신도회장, 유흥수 광복회 고문, 김상두 전북 장수군수, 한수승행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장과 대성사 신도 등 5백여명이 동참했다. 대웅전(33평)과 요사채(49평)는 내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불전국역硏 빨리어대장경 번역소 현판

중앙승가대 부설 불전국역연구원(원장 혜남)은 8월 28일 개운사 법당에서 빨리어 대장경 번역사무소 현판식과 제4회 연구과정 및 제6회 연수과정 졸업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일면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대행 정인 스님 등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현판식에서 혜남 스님은 "우리말 경전은 불교 대중화의 선두 기수"라며 역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1사단 군법당 호국관음사 낙성

육군 제31보병사단 군법당 낙성식이 8월 30일 최인수 사단장을 비롯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천운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 스님, 백양사 주지 다정 스님, 고재유 광주시장, 오주 시의회 의장 등 각계 인사와 신도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31사단 군법당 호국관음사는 법당 80평, 요사채 40평 등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통일기원 광주 종교인 합창제

남북평화통일기원 제1회 광주종교인합창제가 8월25일 남도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광주 종교인평화회의가 주최한 이날 합창제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광주지역 6개 종교 합창단이 출연해 종교인 상호간의 교류와 평화통일, 인권신장을 기원했다. 교계에서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합창단, 한마음선원 혼성·어린이 합창단이 참여했다.

지리산 청학동 대나무 숯으로 만든
차량용 공기정화 탈취제 대숲 쿠션



■ 대숲 대나무숯의 효과

지리산 대숲 대나무숯의 우수한 공기정화 작용과 음이온 및 원적외선 효과가 운전수의 심신을 안정시키면서 몸을 편안하게 하고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대나무숯이 내뿜는 알파(a)파가 운전자의 각종 스트레스를 말끔히 해소 합니다.

지리산 대숲 대나무숯의 탁월한 흡착작용이 차(車)안의 각종 냄새를 말끔히 제거하며 살균력을 지닌 죽초액을 첨가하므로 세균번식을 억제하는 향균력이 매우 우수하고 습도조절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방지하며 유해 전자파의 공해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합니다.

구 분	사 양	가 격
차량용 (공기정화탈취제)	쿠션형태	27,000
실내용 (공기정화탈취제)	피라밋형태	35,000
신발 (냄새제거제)		2,000

■ 대숲 쿠션의 특징및 용도

· 100% 국산 대나무숯 사용 탁월한 효과, 효능 체험
· 자연 염색천을 사용
· 건강과 안전, 그리고 기(에너지)관련 부적 및 문양을 채택하여 사용자의 소망을 실현시키는 신비함
· 대숲 쿠션은 실내 공기정화용 및 탈취용 제품으로써 일반 쿠션용도와는 다르게 비비거나 몸을 기대지 마세요.
· 실내용, 차량용, 신생아용, 멍상용
· 자매품 : 대나무 숯 다수
자연염색 의류(100% 대나무 숯, 황토염색)

▶ 사찰 행사용 등으로 다량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현재 불교방송에 협찬 광고 중입니다.
▶ 소중한 분들께 드리는 추석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000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출품 ※
(행사기간 9월 1일 ~ 11월 10일)
※ 2000무안 연꽃 축제 출품 ※
(행사기간 9월 1일 ~ 9월 4일)

대 숲
■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1056
■ TEL : 055)883-4380 FAX : 055)883-4380 H·P : 017)242-6976
■ Website:http://www.daesup.com E-mail : daesup2000@hanmir.com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목욕 재개향
· 관불의식, 관욕에 사용
· 어떠한 의식 전후에 목욕함
· 상가집, 영안실 왕래후에 목욕하면 상문살이 침범하지 않는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 02)3446-8148, 3446-5889 공급자: 석씨향방

대전 정부청사 불자회 추진



◇8월30일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문화재청 · 통계청 공무원불자들이 오는 11월 대전정부청사 연합불자회 창립을 결의하고 세부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통계청 등 이달 준비모임 11월 발족
중앙부처 · 지자체 10월연합 성지순례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전소, 관세청 등 11개 정부기관이 모여있는 대전정부청사에 연합불자회가 결성될 것으로 보여 공무원들의 신행활동에 커다란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문화재청, 통계청 공무원 불자 20여명은 8월 30일 대전 둔산동 한 음식점에 모여 오는 11월 대전정부청사 연합불자회를 창립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참석자들은 각 부처별로 창립준비위원을 선정, 불자파악에 나서는 한편 이달말 연합불자회 창립준비모임을 갖기로 했다. 또한 10월에 있을 공무원불자 합동성지순례와 전국직장직능연합대법회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대전정부청사 연합불자회 창립은 대전지역 지자체 및 일반기업 불자회의 창립 및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화재청 불자회는 문화재청이 그 어느 부처보다 불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만큼 개인 신행활동과 더불어 불교문화재의 관리 · 보호 등의 성보지킴이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모임을 주도한 홍연권(34 · 통계청 산업동향과)씨는 "인근 지역사찰과 연계, 법사 섭외와 법회장소문제를 해결해 불자회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라며 "연합불자회 창립이 대전정부청사 불자들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정보교류를 확대해 아직 불자회가 없는 대전시청 등 지자체 불자회 창립에 자극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전정부청사 내 문화재청과 통계청이 지난해 불자회 창립을 준비했으나 법회장소와 법사섭외가 어려워 아직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현재 관세청 불자회만이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 은평구청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불자회 임원들은 10월 7~8일 강원도 월정사에서 전국 공무원불자 합동 성지순례를 갖기로 했다. 합동 성지순례를 통해 공무원불자연합회 결성을 구체화할 방침으로 공무원불자 상호간에 정보공유와 인적교류를 가속화시켜 나간다.

대전=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광불회 청광스님 초청법회

대한광업진흥공사 광불회(회장 김석규)는 8월29일 원응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15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원응사 주지 청광스님은 안연에 대해 설법했다.

은평구청 불심회 사찰순례

은평구청 불심회(회장 이길영)는 8월30일 관내 미륵암으로 사찰순례법회를 다녀왔다. 삼천사 주지 성운스님이 〈금강경〉을 설법한 이날 법회에는 이배영 구청장을 비롯해 불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성북승무소 칠장사 참배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박병호)는 6일 안성 칠장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이번 성지순례는 법우회원 및 가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6일 오전 10시 성북역 전통차사무소 운동장에서 출발한다. 011-9776-0541 박병호

석불문화硏 사랑방모임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는 6일 삼청동 가족아카데미아에서 사랑방 모임을 가진다. 이번 모임은 8월27일 다녀온 경북 칠곡 노석동 마애불상군 답사에 대한 평가와 서현씨의 '강원도지역 문화재 및 석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02)760-5738 고재두

연등회 3인 최고위원 선출

민주당 연등회 고문 권노갑, 한화갑위원과 부회장 김근태의원이 8월30일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이들 최고위원들은 "그동안 불교계에서 보여준 관심과 애정에 감사하며 국정과 의정활동에 노력하는 연등회 회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불교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클릭! 새 홈페이지

■대각사(http://cafe.daum.net/daekak)-8월 31일 개설. 종로 대각사 모임.

■경불대의 인연(http://cafe.daum.net/kbd)-8월 30일 개설. 경북불교대학 7기 법우들의 인연만들기.

■황불회(http://cafe.daum.net/schcircle)-8월 30일 개설. 자비 실천모임 황불회의 사이버 둥지.

■청년 2000(http://cafe.daum.net/youngpower2000)-8월 29일 개설. 대불련 서울지부 문화부 모임.

■구룡사 어린이회 동문 모여라!(http://cafe.daum.net/gcbs)-8월 21일 개설. 구룡사 어린이회 동문 모임방.

■한국천은미륵불원의 즐은 친구들(http://cafe.daum.net/ilovebuldang)-8월 21일 개설. 한국천은미륵불원 청소년반을 위한 장소.

■바람이 머무는 곳…(http://cafe.daum.net/qorfusdka)-8월 25일 개설. 해인사 백련암 수련회 모임.

■대한불교천태종 이천장화사(http://www.freechal.com/goComm.asp?url=bulgyo)-8월 20일 개설. 장화사 어린이회, 학생회 회원과 선생님의 만남의 장.

■익산관음사룸비니불교학생회(http://www.freechal.com/goComm.asp?url=wise2210)-8월 28일 개설. 룸비니 불교학생회 회원 및 동문 친목모임.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이 재 상
〈한빛은행 외환업무팀 계장〉

"지금 있는 그대로를 보라"

IMF 전후로 많은 동료들이 직장을 떠났고, 주위의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괴로워했다. 지금은 많은 시간이 흘러 그들과 함께 했던 고운 시간들을 간직하려 해도 손가락사이로 빠져나가 버린다.

부처님께서는 늘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하셨다. 사성제는 늘 있는 그대로의 한 예이다.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고 답을 얻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공식에서 보면 모든 것은 진지한 삶의 점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늘 같은 생각, 같은 느낌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늘 있는 그대로를 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늘 있는 그대로를 쉽게 볼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라는 아상을 버리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바르게 사는 법은 바른 소견, 바르게 생각함, 바르게 말함, 바르게 행동함, 바르게 생활함, 바르게 닦음, 바른 뜻을 둠, 바른 선정을 지니며 사는 것이다.



바르게 사는 법(팔정도)이 여덟 가지지만 꽤나 많아 보인다. 우직한 이가 아니면 감히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다시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요점은 불법을 배워 알았으면 그대로 생활하면 된다는 것이다.

나는 직장생활 도중 틈틈이 경전을 읽는다. 처음에는 한자도 많고 생소한 내용들이라 읽을 엄두를 내지도 못했지만 한권 한권 읽어 나가다 보니 그 오밀조밀한 맛에 환희심이 일어났다.

기성복은 어떤 것이든 조금은 몸에 맞지 않는 곳이 있기 마련인데, 불경은 읽어서 익혀 생활에 적용해 보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내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맞춤인지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늘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하신다. 불경을 읽다보면 우리가 이미 법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법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생활하는 것은 어떠한 곳에서도 자신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그저 어두운 길을 걸어가듯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을 항시 안고 살기 마련이다. 어떤 무엇도 명확한 것이 없으며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자신이 없고 따라서 당당한 주관이 없게 된다. 내 일이 아니며 내 직장이 아니며,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법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생활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그대로 생활한다는 것이며, 모든 삶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그 자체를 진정으로 귀히 여김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늘 불경을 읽지만 말고 그대로 생활에 녹여 보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은 불법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들 중에는 억겁의 전생부터 불법을 배워 그대로 생활하여 깨달음을 펴신 부처님과 불법을 모르는 이에게 불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부처님이 되기를 거부한 보살들이 무수히 많이 현존하여 있다. 또한 만겁의 수행을 하여온 수행자와 이제 불법의 맛을 보기 시작한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 중에는 언제나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수행자가 더 많다. 많은 이들이 조금만 더 정진하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무섭게 정진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난 무량세에 정진한 것에 비하면 이생에서의 정진은 가벼우리라. 나처럼 이제 불법의 맛을 보기 시작한 이도 그 환희심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랑을 해대는데 무량세에 불법의 맛을 음미해온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내가 배우고 익히고 생활한 것이 이대로이며, 앞으로도 내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도록 정진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도 부처님 전에 기도드린다.

탐방 보건복지부 불교신행회

자비사상 실천하는 참일꾼



◇보건복지부 불교신행회 회원들은 지난 6월5~6일 감사원 불자회와 함께 금산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창립 1돌 맞아 법회
사내게시판 통해 신심키워

보건복지부 불교신행회(회장 이영휘)가 첫 돌을 맞아 1일 보광사에서 지관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을 비롯 80여명의 불자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돌법회를 봉행했다.

보건복지부 불교신행회는 이영휘씨와 강인준씨가 감사원불자회 성지순례에 동참한 것이 인연이 돼 지난해 8월 7명을 발기인으로 창립됐다. 복지부 신행회는 창립 이후 가정법회, 성지순례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 지금은 40명에 이르는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 신행회의 운영방식은 득특하다. 정기법회 대신 사내통신망에 게시판을 개설,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신심을 키우고 있다.

신행회 게시판에는 법회나 기타 행사를 알리는 공지사항은 물론 기도 · 수행 방법, 신행체험담, 짧지만 일상을 되돌아보는 법구 등이 올려진다. 신행회에는 참석하고 있지 않지만 게시판을 통해 자신이 불자임을 밝히는 사람이 생겨날만큼 온라인상의 활동이 450명에 이르는 복지부 공무원들과 신행회 회원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가정법회 역시 다른 직장불자회에선 보기 힘든 불교신행회만의 자랑이다. 가까운 회원들 가족들이 소규모로 모여 봉행하는 가정법회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부담없는 모임으로 신행이나 불교공부에 대해 서로 도움을 주고 법담도 나눈다.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 두터워 진다는 것.

신행회 강인준 총무는"신행회 활동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참공무원이 되는데 길잡이가 되고 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 복지현장의 어려움을 파악, 최선의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불교사회복지 발전에도 기여하는 신행회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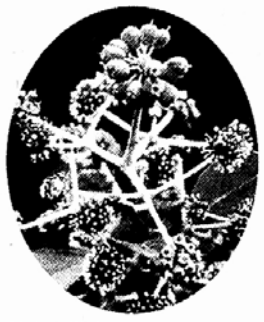
김두식 기자

天物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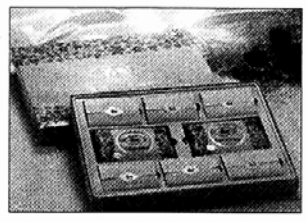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고려물산 ·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사 설

세계평화선언과 불교

모든 사람들, 나아가 모든 생명들이 복되고 평화롭게 사는 세계를 이루는데 모든 종교인들이 앞장서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원 종교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종교적 갈등까지 배제하여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다면, 종교들의 화합된 힘은 단번에 인류를 보다 높은 행복과 평화의 낙원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소박하고 거친 생각이지만, 8월29일 세계의 종교지도자 1천여명이 유엔에 모여 채택한 '세계평화선언'은 결국 이러한 소박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에 제일 앞장서서 손잡고 나가야 할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세계 종교에 대한 반성이요, 근본적인 반성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을 일으켜 나가려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세계 종교인들의 큰 지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그러한 흐름에 불교는 어디에 서 있으며, 또 한국불교의 위치는 어디인가를 묻게 된다. 이념적으로 말하자면 불교는 당연히 이러한 움직임의 지도적 위치에 서야 마땅하다. 제시된 열 개의 이념 전체를 지지하는데 가장 적합한 교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에 대한 현실적인 기여를 말한다면 불교는 선두 그룹에 서 있다고 말하기 힘들 것이다. 아직도 서양문명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의 정세 때문인 점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교계의 자각과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완전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한 번 더 돌이켜 한국불교의 역할과 위치를 생각하면 이러한 반성과 자각은 더더욱 절실하고도 뼈아픈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번에 채택된 열 가지의 결의를 보면 전혀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그동안 우리 불교계에서도 늘 강조되어 오던 것들이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이념의 실현을 통해 평화로운 인류 공동체의 구현에 앞장서는 불교로 체질 개선을 이루지 못하였던 우리 불교계의 안타까운 현실이 여전히 우리 눈 앞에 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불교계의 내부적 갈등으로 변명을 삼아서는 안된다. 아니 오히려 불교계가 내부적 문제에 발목을 잡혀 있는 것은 이러한 불교의 큰 사명에 대한 자각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때이다.

인류의 삶, 인류의 공동체에 기여하는 불교로 거듭나려는 큰 자각에서 한국불교 중흥의 계기를 찾아야 한다. 내년 회의를 한반도에서 열 예정이라는 소식을 우리 불교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채찍질로 삼아 한국불교의 큰 변신을 이룩하도록 하자.

승가고시 성과 얻으려면…

조계종에서는 지난 7월 '승가고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승가고시법을 시행·공포하였다. 승려의 질적 향상과 법계에 의한 위계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승가고시제도는 고려시대에도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도 잠깐 시행되어 서산, 사명과 같은 대 선지식을 배출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조계종에서의 승가고시제도 실시는 많은 불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기대와 호응을 갖게 하여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성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승가고시에 의해서 결정되는 법계는 5급(사미·사미니), 4급(비구·비구니), 3급(중덕 법계)에 해당되는 과정으로 5급은 행자에서 사미·사미니의 계를 받을 자격을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교육원 수학과정을 검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다. 4급은 버구·비구니 계를 받을 자격기준을 검정하는 것으로 기본교육 과정에 강원(지방 승가대학), 기초선원, 동국대, 승가대 등의 교육과정이나 수행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비구·비구니의 수계 요건이며, 승려로서의 자격이 비로소 인정된다는 점에서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다만, 3급 고시가 비구·비구니 구족계 품수 후 10년 이상의 수행을 거친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첫 시행에 있어서 스님들의 동참 의식이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교과목이 지정되어 일정한 수준을 요하는 기준이 문제가 되겠지만, 수행에 따른 조행 점수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행이란 수행에 대한 지계와 소임 수행에 있어서의 성과 내지 대중생활에서의 화합성 등 올바른 승가상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조계종은 그 동안 신도와 국민들에게 비춰진 불미스러운 모습들을 일신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 종단에서도 승가고시의 원만한 실시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종단에서 모처럼 이렇게 엄격한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는데 대한 불자들의 기대는 대단히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 큰 용단에 합장·찬탄 드리면서 이를 계기로 승단의 청정가풍 회복과 수행풍토 조성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기원한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법률' 입법예고…불교방송 수입감소 불보듯

"세금감면 등 종교방송 보호책 필요"

포교프로 강화 청취율 높여야
"광고유치-후원금 확보가 최선"

자율 경쟁체제를 알리는 문화관광부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대체입법'의 발표로 불교방송의 광고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는 8월 23일 한국방송광고공사와 민영미디어렙 설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대체 입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이 특별한 보호장치 없이 11월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그대로 통과될 경우 불교방송의 자구책 마련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상가상으로 새로 개정되는 방송광고법에서는 광고주가 선호하는 방송사에게 광고가 배정되기 때문에 공영과 민영미디어렙 중 어느 곳에 속한다 하더라도 자율경쟁 체제하에서 불교방송의 광고수입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자율경쟁 시장을 예고하는 새 방송광고법에서 불교방송이 국민의 건강한 정서를 위해 포교하는 종교방송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현행 체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방송광고시장은 81년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방송광고공사(KOABCO)가 독점해 왔으나 이에 따른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제도 개선을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3월13일 새로 발효된 방송법에 근거해 문화관광부가 이번에 현행 한국방송공사법을 폐지하고 양대 미디어 렙 설립 등에 관한 대체 입법안을 마련했다. 불교방송도 현재까지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수주에 따라 광고액이 결정돼 왔으며, 특히 상업방송인 SBS와 함께 패키지로 묶어 있었기 때문에 자체의 광고영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그래서 현행 방송광고법 시행하에서는 SBS의 광고 수주가 늘어나면 자연히 불교방송의 광고 수입도 함께 증가해 왔다. 실제로 불교방송의 7월 광고 수입을 살펴보면 SBS 라디오(AM, FM)의 13억원과 대등한 12억원 정도의 광고수입을 올렸다. 이 수치는 창사 이래 최대의 광고 수입이다.

방송광고시장이 자율경쟁 체제로 들어서면 불교방송을 비롯한 종교방송 자구책의 일환으로 현재 각 방송사에서 내고 있는 14%의 광고수수료와 5.5%의 방송발전기금을 합한 19.5%의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보호장치도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KBS와 EBS는 상업방송과 구별되는 공영방송과 교육방송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5.5%의 방송발전기금을 3.3%로 낮춰주고 있다.

불교방송의 한 관계자는 "자율경쟁하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광고 수입이 격감될 수 밖에 없다"며 "불교방송 등 종교방송 3사에 대해서도 방송발전기금 면제 등의 혜택을 통해 광고 수입 격감에 따른 보호장치를 따로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로 재정 수입의 90% 이상을 광고로 충당하고 있는 불교방송이 광고 수입 의존도에서 벗어나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불교방송이 생각할 수 있는 자구책은 종교방송으로서 독특한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포교 프로그램의 강화다. 상업방송에서 주를 이루는 오락 프로를 지양하고 불교문화와 불교 교리강좌, 신행상담, 큰스님 초청 법문 등 불교방송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고유한 포교 장르를 대폭 강화해 청취율 고양을 통한 위상 정립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자연히 광고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게 되고 광고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교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방송광고영업을 담당할 직원을 현재 2명에서 2~3배 정도 늘려 광고영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후원회 활성화로 고정적인 소액 회원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이외에도 불교 실업인들의 명예이사 위촉 등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 광고유치와 후원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8월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에서 김종율 문화관광부 방송광고 과장이 대체 입법안 제정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방송광고 대체입법 공청회 열려

"방송사간 이해상충 법시행 시간 걸릴 것"

이번 입법예고안이 11월 정기국회에 상정돼 그대로 통과될 경우 방송과 신문 등 국내 광고시장에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우선 방송광고업계는 민영미디어렙의 정식 출범으로 방송 단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의 광고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화관광부가 8월3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방송광고 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공청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양대미디어렙을 동시에 운영했던 프랑스의 경우 광고시장 점유율에서 방송광고는 87년 26%에서 98년 40%로 크게 늘어난 반면, 신문부문은 33%에서 27%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했던 정부 관련 부처의 한 관계자는 "새 방송광고법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학계를 비롯한 각 방송사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며 "국회본회의 상정과 법 시행까지는 오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불교방송의 광고 수입은 향후 1~2년 정도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탁소리

정 성 운 〈취재1부 차장〉

조계종 돈관리 문제없나

총무원 재무부의 한 소임자가 거액을 불법인출했다가 재입금한 사건이 발생, 조계종 총무원 회계 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총무원의 전·현직 소임자에 따르면, 최근까지 재무부에 근무했던 C씨가 지난 4월 총무원 명의의 통장에서 거액을 불법 인출해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다 3일만에 재입금했다. 이같은 사실은 사건 당사자가 최근 조계사신협 횡령사건으로 7월 초 구속된 직후 실시한 총무원 자체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다행히 총무원의 재정 손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가종무원은 거래 금융기관의 관계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불법 인출했으며, 액수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2~3억원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단순한 경리 사고이다. 그러나 불법인출 사실이 사건 발생 넉달만에 밝혀지는 등 총무원 재정관리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계사신협 횡령사건이 없었으면 사건 자체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과장급 직원이 적지 않은 액수를 관리자도 모르게 불법으로 인출할 수 있었던 점도 문제다. 통장과 도장을 재무담당 부서의 부·국장이 분리해서 관리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총무원 재무부에 근무했던 한 스님은 "믿고 일하는 스타일이었다"며 경리 사고를 막을 장치가 없음을 시인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총무원은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다 일부 사실만 확인해주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또 다른 유용은 없었는지, 재정관리상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경리사고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도 밝히지 않아 스스로 의혹을 부추기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리사고를 방지하고,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서는 정기, 비정기적으로 자체 및 외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회계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학인 모집

본 학교는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래 오늘날까지 연면히 이어온 어산(범패) 작법과 불전의식 전반을 연구, 계승하고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조계종 교육법과 어산학교 설치령에 의거하여 설립,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불교의식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이에 어산, 작법과 불교의식 전반을 연구, 전수할 학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어산과 : 00명 · 습의과 : 00명

교육내용
· 어산과 : 1학년-기본발성연습,복청계,도량게,거불,헌좌게,바라 및 승무기초
2학년-각종,상단,중단,하단,시식,바라,승무,영산제 시행, 49제
· 습의과 : 일용의식 - 도량석, 종송, 축원, 예경
상용의식 - 신중작법, 각단불공, 각종시식
제반의식 - 대령, 관욕, 시다림, 점안, 방생 등
· 특강 : 불교의식사, 의식과 불교사상(경전), 불교와 문화예술, 비교종교의식, 장엄 한글의식, 명절의례, 평생의례 등

교육기간
· 어산과(범패,작법) : 2년(4학기)
· 습의과(불전의식) : 6개월
※ 본학교의 소정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인에게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인정하는 졸업장을 수여함.

교육시간표

'2000학년도 하반기 시간표

요일/과정	어산(魚山) 과정(범패, 작법)	요일/과정	습의(習儀) 과정(불전의식)
화	18:00-19:30(학교강의실)	수	19:00-20:30(학교강의실)
금	18:00-19:30(학교강의실)	목	19:00-20:30(학교강의실)

응시자격
○종헌, 종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비구(니), 사미(니)
○각 과정(어산·습의) 재가불자도 수강이 가능함.

전형방법
서류전형과 면접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승적증명서 1통
3) 반명함판 사진 2매
4) 주민등록등본 1통 (재가자일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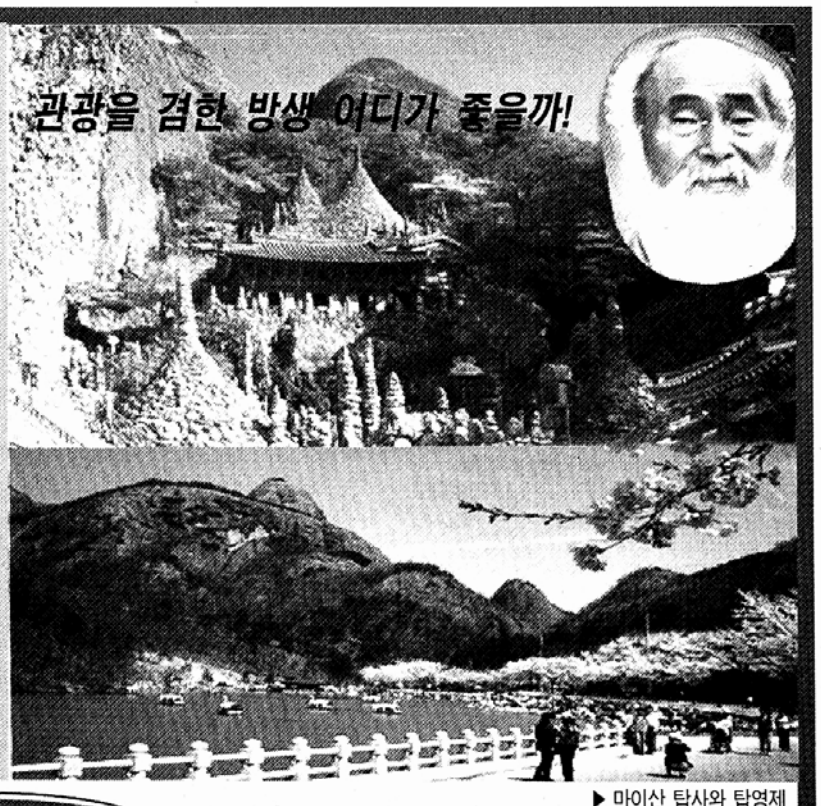
접수일자 2000.9.4(월) - 9.19(화)
면접일자 2000.9.20 (수) 오후7시
개강일자 습의과 : 2000.9.21(목)
어산과 : 2000.9.22(금)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6번지 중앙승가대학교 교학처 (2층)
Tel. 02)921-3425 Fax. 921-1910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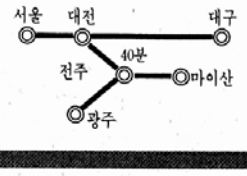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 063)433-2900,0303
432-0652,0072

62개국 문화예술인 서라벌에 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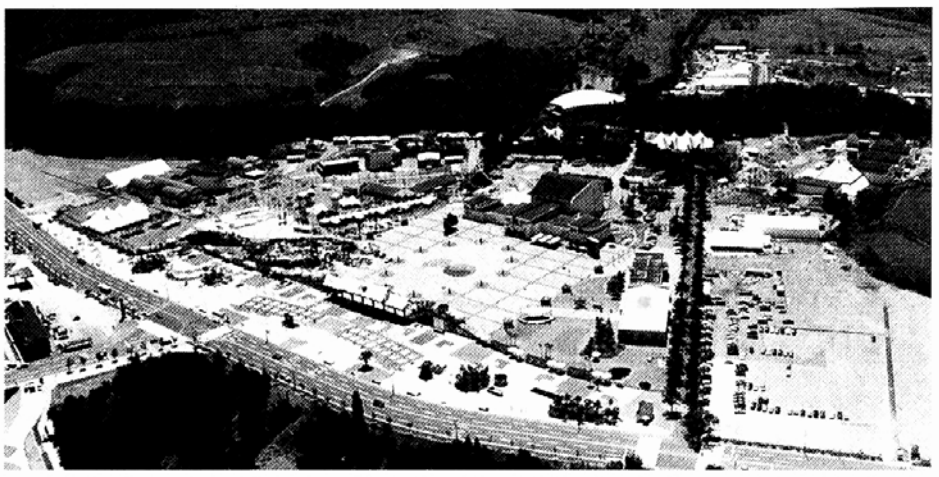
KYONGJU WORLD CULTURE EXPO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0

'경주가 세계로, 세계가 경주로'

올 가을 세계인의 관심이 신라 천년 고도 서라벌에 집중된다.

2000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1일 개막돼 오는 11월 10일까지 71일간 전세계인의 문화축제로 열린다. 이번 엑스포에는 세계 62개국 1만여명의 문화예술인이 한자리에 모여 50여가지의 전시와 공연, 축제, 이벤트를 통해 문화의 힘과 아름다움을 맘껏 펼쳐보인다.

경주시 천군동 보문관광단지내 15만평 부지에 들어선 엑스포 행사장 입구에는 62개 참가국가의 국기가 나란히 들어서 관람객들을 반긴다. 12지신상이 서있는 전승의 광장을 지나 첫 번째로 마주치는 전시장이 '문화 이미지전'이 열리는 주제관인 〈새천년의 숨결관〉이다. 그 옆으로 이번 엑스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가상현실 실감체험영상쇼 '서라벌의 숨결 속으로'가 펼쳐질 〈사이버영상관〉이 자리해 있다. 이 사이버영상관은 1회 651명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세계 최대규모로, 3차원 가상현실 컴퓨터영상 및 입체음향을 체험할 수 있다. 관객은 저주파 진동의자에 앉아 입체안경을 통해 펼쳐지는 가상현실 영상 속에서 신라 건국설화와 황룡사 9층목탑, 석굴암 등 천년전 신라문화를 만끽할 수 있다. 2일 가족과 함께 사이버영상관을 찾은 김영태 씨(경주)는 "역사책에서



◇경주시 천군동 보문단지내 15만평 부지에 들어선 2000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장에 각종 전시와 공연, 축제, 이벤트가 펼쳐진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눈여겨 볼 행사'

행사명	주제	장소	비고
문화이미지전	찬란한 빛, 사라진 문호여!	새천년의 숨결관	태초의 문화, 문화상승, 문화상실, 문화복원 등 4개 전시관
주제전시	동방의 빛을 따라서	동방문화관	248점 전시
주제영상	서라벌의 숨결 속으로	새천년의 숨결관(가상현실전용관)	1일 27회 상영
주제공연	도솔가-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백결공연장	1일 2회 공연
아시아 유럽 포럼	사이버시대의 문화	경주 현대호텔 국제회의장	10월23~25일 ASSEM 관련행사
국제청년문화캠프	젊음, 새천년의 꿈과 희망	경주월드내 서라벌수련원	25~30일 유네스코 관련행사
참여행사	삼국문화탐방 컴퓨터게임 천년의 신화	테크노광장 컴퓨터게임관	10월28~29일 전국게임왕 선발대회
참여행사	천축국대탐험전	창조의 마당	2㎞ 미로 30분 소요
참여행사	세계꼭두극 축제	화랑인형극장	1일 4회 공연
특별행사	야외오페라 무영탑	경주 불국사	29~10월1일, 10월6~8일 6일간 1일 1회 공연
특별행사	신라기와, 그 천년의 숨결	국립경주박물관	국내외 기와 유물 450여점
특별행사	상품 속에 깃든 문화의 숨결	우정의 집	무형문화재 및 명장 우수 문화상품 등 2000점
노인층을 위한 행사	민속놀이마당, 처용마당, 한가위대축제, 중국기예단, 신라 천년의 춤, 국악한마당		
기타행사	축제퍼레이드, 거리퍼포먼스, 실크로드탐사, 기획전시		
시가지행사	남산유적답사, 신라유적사진, 신라의 거리 조성, 새천년의 음악축제, 북한영화상영 등		

15만평 행사장 어디가나
공연·전시·이벤트
온가족 문화여행 최적지

배웠던 황룡사 9층 목탑을 실제인 듯 바로 눈앞에서 보고, 천년전 신라의 건국과정을 지켜보면서 그저 감탄할 뿐이었다"면서 "문화와 첨단과학이 결합된 국내 최초의 가상현실 '서라벌의 숨결 속으로'는 이번 엑스포에서 꼭 감상해야 할 프로그램"이라고 말한다.

이외에 이번 엑스포의 주제 전시가 열리는 〈동방문화관〉에는 주제 '새 천년의 숨결'과 부제 '만남과 아우름'에 걸맞게 유라시아 대륙의 문물을 비교 전시하면서 민족문화와 인류문화의 흐름 및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국내 박물관과 카자흐스탄 고고학 연구원, 중국 신간성박물관 등지서 건너온 248점의 국내외 유물이 전시중이다. 주제 공연인 '도솔가-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1일 2회 〈백결공연장〉에서 공연되며, 행사장의 구름을 이용해 박진감 넘치는 미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천축국대탐험장〉에는 하루 최대 2,160명이 입장 가능하다.

지난 98년 행사 때의 호응에 힘입어 이번 엑스포에서도 선보이는 세계꼭두극 축제는 8개국 12개 인형극단이 참가해 1일 4회 판토마임과 퍼직쇼, 레크리에이션 등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꾸몄다. 엑스포 기간중인 오는 10월 23일~25일 열리는 아시아 유럽 포럼 '사이버 시대의 문화'에서는 프랑스 문명비평가인 기 소르망을 비롯해 전 문화관광부 장관 이어령 씨 등 세계석학들이 참여해 새로운 문화비전을 조명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문화축제로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면모를 다질 계획이다. (054)740-7087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 컴퓨터게임 '천년의 신화'
■ 미로게임 '천축국대탐험'

청소년 발길 잡는다

2000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지난 98년에 비해 관람객들이 직접 온 몸으로 느끼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대폭 늘었다. 이 가운데 삼국문화탐방 컴퓨터 게임인 '천년의 신화'와 미로게임 '천축국대탐험'은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 행사로 꼽힌다.

'천년의 신화'는 민족문화를 테마로 한 토종 컴퓨터 네트워크 게임이다. 테크노광장의 삼국문화탐방관에서 운영되는 이 컴퓨터 게임은 근초고왕과 광개토대왕의 영토확장, 무열왕의 삼국통일 등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의 역사를 소재로 한 실시간 전략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한국 고대 역사를 신나고 즐겁게 배울 수 있게 한다. 특히 네트워크를 통한 다중 접속이 가능해 2명에서 최고 8명까지 동시 머드게임이 가능하다. 10월 28일~29일에는 전국 게임왕 선발대회도 연다.

엑스포 행사장내 1천여평의 창조미당에 마련되는 '천축국대탐험'은 배우면서 즐기는 학습의 장. 8세기 신라 고승 혜초 스님의 인도여행기 〈왕오천축국전〉을 바탕으로 한 미로게임이다. 복잡하게 얽힌 미로와 장애물, 인공암벽, 퀴즈광장, 구름다리 등을 통과하며 참가자 스스로가 천년전 구도자, 상인, 문화사절, 정복자가 되어 미지의 문화를 탐험하는 짜릿함을 맛볼 수 있도록 꾸몄다. 행사장의 구릉지를 활용해 5천축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린 세트와 시설물 등이 설치되고, 현장감과 신기함을 만끽할 수 있는 루트가 조성된다.



◇컴퓨터게임 '천년의 신화'는 최고 8명까지 동시 머드게임이 가능하다.

경주박물관 '신라기와' 특별전

기와로 느끼는 천년숨결



◇연화문 수막새



◇달·토끼문 수막새

신라인들은 자신들이 사는 땅을 불국토라 여겼고, 기와 한 장에도 이러한 이상향을 담았다. 화려한 연꽃무늬와 불경 속에 나오는 상상의 새 가릉빈가, 천계에 살면서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상상의 선인 비천(飛天) 등이 기와를 통해 신라인의 삶 속에 녹아든 것이다.

화려한 금속공예품이나 토기 등에 비해 소홀히 다뤄졌던 기와, 장식기능을 가진 건축 재료로만 알았던 기와를 통해 신라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문을 열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0'에 맞춰 8월 29일 개막돼 11월 12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리는 신라기와 특별전 '아름다운 기와, 그 천년의 숨결'을 찾으면 다양한 형태의 기와를 통해 신라인의 예술혼을 느껴볼 수 있다. 신라기와를 주제로 한 전시회로는 국내에서 처음이라 더욱 값진 경험이 될 것이다.

전시회에는 1934년 경주 흥륜사터에서 발견돼 그 꾸밈없는 담백한 미소로 '신라인의 미소'라 불리게 된 '얼굴무늬 수막새'를 비롯해 현존하는 것 중 제일 큰 '황룡사 치미', 안압지에서 출토된 '녹유 귀면와' 등 6세기부터 통일신라 말기까지의 신라기와 400여 점이 선보인다. 신라 기와에 영향을 준 고구려, 백제 기와도 함께 전시되고, 같은 시기 중국과 일본 기와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람객 스스로 신라 기와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게 했다. 국가별 비교뿐 아니라 시대별, 문양별로도 주제를 나눠 이해를 돕고 있다.



◇지금까지 귀신얼굴을 조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용 얼굴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귀면와.

지난해 10월부터 전시회를 준비해온 김유식 학예연구사는 "특별전을 준비하면서 신라 기와에 대해 새롭게 눈을 떴다"며 "지붕에 비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쓰는 기와 한 장도 예술적 감각으로 승화시킨 신라인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상화문 수막새



◇가릉빈가문 수막새

이번 전시회에서는 특히 기와에 용 얼굴을 새겨 넣은 용면(龍面)기와 50여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황룡사터, 사천왕사터, 안압지 등에서 출토된 이 기와들은 조각이 귀신 얼굴을 닮았다 해 지금까지 귀면(鬼面)기와로 불리던 것들이다. 그러나 기와 분류 과정에서 귀신 얼굴이 아니라 용 얼굴임을 밝혀냈고 아예 용면기와로 이름 붙였다. 울산 농소면에서 출토된 전돌 모서리 양측면에 조각된 용의 옆 얼굴을 합쳐 정면에서 보면 소위 귀면와에 조각된 귀신얼굴과 똑같다는 것이다. 성덕대왕 신종, 고리의 용두에 새겨진 용 얼굴과도 똑같다고 한다. 이같은 주장은 학계에 적잖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녹유사천왕상전' 복원품도 눈길을 끈다. 사천왕사터에서 출토된 기와 조각을 바탕으로 두 명의 조각가가 1년여 작업 끝에 복원했다.

이와 함께 국내 소장 중인 10만여점의 신라기와 가운데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1,200여점을 선정하여 〈신라와전도록〉에 담았다. 이 도록은 신라 기와를 무늬별, 시대별, 출토지별로 자세히 정리하여 신라 기와 연구에 획기적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박물관은 "엄청난 양에 비해 신라기와에 대한 논문은 10편 정도가 고작이다"며 "이를 계기로 신라기와에 대한 정리와 연구가 활발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인간의 명운(命運)을 좌우하는 지리학(地理學)을 현실 생활에 합리화 시켜 생활해 나가면 내일의 안정과 희망의 행복으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 나갈 것이다.

저자는 생기론(땅기운)을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서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길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누어져 있다.
2. 집터(陽宅)와 묘터(陰宅)는 좋은(吉地)터와 나쁜터(凶地) 땅기운이 흘어진다.
4. 나쁜 집(凶宅)터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5.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6.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열매를 먹고 산다.
7.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대도 김용식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화제의 신간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A5신/양장본
값 40,000원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해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 전국 서점 판매중



송월스님 저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실전 사주학길라잡이

일주일이면
나도 사주를 볼 수 있다.

지식의 유무·어떠한 직종이
나의 적성이며, 어느 길로
가야 적합하며 언제 운이 열
리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
로 이 사주 명리학이다.



김윤중 저
신국판 값 15,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헤서 명리진평 신국판/헤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헤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헤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용식 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암,진호입 공저/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辞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양장본 이상욱 지음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 진상백 저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김윤중 편저/정가 1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광성B/D 3층 T.921-8434 F.929-3470

두통, 신경통, 관절염, 위장병, 고혈압, 수족냉증, 사십견…

기적처럼 낫는다!



심천 박남희 선생

15년 진 입산수양하면서 인체에 대한 탐구 끝에 심천사혈요법을 창안했으며, 10여년 간의 임상경험을 통해 그 놀라운 치료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자기의 병 자기가 고치는' 기적의 대체의학

심천 사혈요법

죽은 피(어혈)만 빼주면 모든 병이 물러간다!

인체의 각 장기와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병원균이 들어오면 싸워 물리치는 '피'가 건강하기만 하면 우리 몸은 늙을 이유도, 아플 이유도 없다. 그러나 신장이나 간기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중금속이 누적되면 생기는 어혈(죽은 피) 때문에 사람은 병들게 되는 것이다.

'심천 사혈요법'은 바로 이 어혈을 직접적으로 빼내어 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안전하고도 가장 확실한 자연요법이다.

각종 만성병, 난치병까지도 낫게 하는 '심천 사혈요법'의 그 놀라운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탈모 변비 근육통 무좀 감기 요실금 생리통 간질 안과 질환 피부과 질환 협심증 당뇨병 우울증 간염 지방간 통풍 저혈압

심천 박남희 지음 | 값 8,000원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정신세계사 733-3135 www.mindvision.org

"우주와 삶의 원리 막사발에 담겼어요"

'막사발에 목숨을…' 펴낸 도예가 최차란 씨





도예가 최차란 씨(75)가 정호다완 재현과정과 그의 인생역정을 담은 〈막사발에 목숨을 쏟아 놓고〉(제삼기획)를 내놓았다. 도예가가 흙과 불을 다루는 일에서 한 걸음 물러나 책을 내놓았다는 것이 뜻밖이다. 게다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것, 즉 정호다완 재현에 목숨까지 걸었다는 점이 읽는 이를 놀래킨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는 말은 이제 너무 흔한 말이 되었다. 하지만 가장 한국적인 것이 무엇이며, 그 맥을 되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묻는 일은 언제나 새롭다. 그러한 물음의 과정에서 우리 것의 의미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도예가 최차란 씨가 혼을 불살라 구워낸 '막사발'의 현재적 의미를 살피는 일은 '한국적인 것'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일이기도 하다.

최차란 씨가 막사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지난 71년 일본 도쿄박물관에서 '정호다완(井戶茶碗)'을 목격하면서부터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우리의 사발에 '국보고려정호다완'이란 이름표가 붙어 있었던 것이다. 이를 본 순간 조선 초기의 그릇이 어떻게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었는지 의문이 생기지 시작했다. 그 내력을 알기 위해 다인들을 만나고 다도까지 배웠지만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결국 그는 사발을 직접 구워 보지 않으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 74년 경주 토함산 기슭에 새 등이 (해를 가장 먼저 맞는 동쪽의 개울이라는 우리말)요를 만들고 재현에 들어갔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막사발의 가치와 방법을 서서히 터득했다. 그 과정에서 나름의 철학도 정립했다. 겉으로 보기에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정호다완이 일본 국보로 지정된 것은 바로 '자연의 마음'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란 사실도 깨달았다. 무구한 본성을 지키고 사는 서민들의 자연스런 마음의 상태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그 서민들은 먹고살기 위한 순수한 마음, 즉 무아무심(無我無心)의 상태에서 막사발을 빚어냈던 것이다. 반듯하지도 매끄럽지도 않고 겉치레라고도 찾아볼 수 없는 정호다완이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인간 본래의 순수함을 그대로 담아냈기 때문에 일본에서 국보로 지정했던 것이다.

정호다완 재현 등 글로 쓴 '황토사랑'

그는 물레를 돌리면서 회전의 철학도 터득했다. 물레 가운데 사발을 놓고 돌리면 아무리 빠른 회전에도 떨어지지 않지만, 중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두 바퀴도 돌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이다.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것이 곧 진리인 것이다. 특히 회전 원리는 표현의 방법이 다를 뿐 불교의 윤회사상과도 맞닿아 있다고 한다. 회전원리로 무형의 흙에서 그릇이 만들어지듯, 생명도 윤회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그렇게 탄생된 그릇이나 생명이 사라지면 지(地)·수(水)·화(火)·풍(風)으로 다시 돌아가 회전(윤회)의 원리에 의해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된다는 것이다. 결국 막사발은 만드는 과정과 정신이 불교의 진리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막사발의 정신은 욕심 없는 삶이다. 이를 위해 최씨는 성형에서부터 불에 구워져 완성될 때까지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다. 그 열정은 곧 무욕의 경지에 드는 일이기도 하다.

그는 정호다완을 재현하면서 우리의 다도를 재정립하고 보급하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우리의 밥상철학과 연결시킨 '새등이 다도'를 발표하는가 하면, 이를 사회적으로 보급하는 다인회 활동도 적극적이다. '다도교본(가칭)'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도예가로서의 순탄하지 않았던 그의 삶은 가슴을 저미게 한다. 폐암(24살)과 자궁암(35살) 그리고 전신암(69)으로 삶과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면서도 식지 않는 '황토사랑'은 독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한다.

'고려청자가 세계 최고'라고 자위해온 우리는 가장 우리다운 막사발에 대해서는 그 동안 등한시했다. 이로 인해 일본사람들에게 전통문화마저 빼앗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미치광이 소리를 들으면서 흙을 만지고 몇날 며칠 가마굴에 불을 지펴 탄생한 정호다완을 구정(舍井: 우주와 삶의 원리를 담는다는 뜻) 사발로 부르는 것도 우리문화를 되찾기 위한 작은 몸부림이다. 이런 점에서 막사발 재현을 위해 반평생을 바친 도예가의 이야기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그는 말한다. 반평생 막사발의 정신을 추구하다 보니 웬만한 일에는 노여움도 분함도 생기지 않는다고. 막사발의 정신은 욕심이 없는 삶이기 때문이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간디의 경제관 "잠시 맡았을 뿐 내것 없다"

아지뜨 다스굽따 '무소유의 경제학'



모한다스 까람찬드 간디(1869~1948)의 사상을 경제적 관점에서 살피고, 그의 경제윤리와 철학을 현대사조의 패러다임을 통해 재해석한 〈무소유의 경제학〉(솔)이 우리말로 출간됐다.

글쓴이 아지뜨 다스굽따는 간디를 '경제학자'로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고 간디의 경제관이 '이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인도의 현실 인식에서 나온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비전이었음을 조목조목 짚어낸다.

그 동안 우리에게 소개된 간디에 대한 서적들이 그의 생애나 종교 혹은 종교철학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면, 이 책은 간디의 경제 사상을 주제로 현대 경제, 철학의 중심적 문제들을 다양한 사상가들의 입장과 비교했다는 점에서 그 전문성이 두드러진다.

글쓴이는 '개인'을 경제와 사회활동의 주체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기 이익 추구를 지향한다는 '개인주의'와 차별을 두기 위해 '무소유적 개인주의'라는 용어로 간디 사상을 특징짓는다.

경제학은 삶의 정신적 토대와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경제학과 정치는 물질적인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종교적, 문화적, 정신적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간디의 무소유 사상, 즉 '보관인 정신(내 것은 내가 잠시 맡아둔 것일 뿐이다)'은 그의 자아실현 개념인 '진리파지(眞理把持)'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된 경제윤리이다.

간디의 관점에서 볼 때 정신적 가치는 정치, 경제, 농업, 교육 그리고 그 밖의 일상생활의 활동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종교도 경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통합된 관계 속에서만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에 갈등이 사라진다. 경제와 윤리가 분리되면 탐욕, 부패, 경쟁, 권력 추구, 약자에 대한 착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시장중심의 소비사회에 대한 가치에 의문을 품고 새로운 경제학을 찾아야 할 필요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간디의 '참되고 도덕적인 경제학'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무한 경쟁의 논리와 욕망 충족의 극대화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간디의 '무소유 사상'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눈 여겨 볼만하다. 값 9천5백원.

김중근 기자

■ 틱낱한 스님의 마음공부 제안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



요즘 현대인들은 시간에 얽매여 자기의 삶과 생활을 잊기 쉽다. 프랑스에서 명상을 위한 작은 공동체를 지도하고 있는 베트남 틱낱한 스님이 쓴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지혜의 나무)는 현재 이 순간을 잊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제안을 한다.

'숨을 들이쉬면서 난 평화롭다. 숨을 내 쉬면서 난 미소짓는다.' 이 책은 이러한 주제의 가벼운 명상법으로 순간 순간을 관찰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틱낱한 스님의 명상법은 호흡을 의식하면서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을 '마음집중'하여 관찰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방의 면벽수행과는 다르다. 언제 어디서나 '숨 들이쉬기' '숨 내쉬기'를 하면서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음식을 먹으며, 홀로 걸으며, 전화를 받으면서 숨쉬기를 실천하여 마음 속에 건강한 삶의 씨앗을 심고 싹 틔우는 것이다.

진정한 마음의 힘은 마음의 평화에 있다고 한다면, 일상 속에서 매순간 '마음집중' 수련을 하면 내면의 평화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틱낱한 스님이 권하는 명상으로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새로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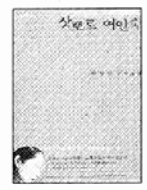
▲수덕사(글=고영섭·윤희상·유마리, 사진 박보하)= 대원사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 불교문화 44번째 권. 수덕사의 역사와 건축 그리고 유물을 100여 컷의 사진을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한다. 이 사진 가운데 일제강점기 때의 대웅전 수리 전·후의 모습과 묵서명 사진은 처음 공개되는 것. 또 고려시대 건축의 아름다운 곡선미를 자랑하는 대웅전과 그 안에 장식된 벽화 모사도는 고려시대 불교문화의 정신을 우리에게 전해주며, 선사들에 대한 일화들은 선지종찰 수덕사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값 4천8백원.



▲요가(이태영 지음, 여래)= 요가 이론서이자 실천행법을 담은 지침서. 요가의 역사를 비롯 요가의 종류, 수행자를 위한 조언 등을 〈하타요가프라디피카〉, 〈게란다상히타〉, 〈쉬바상히타〉 등 요가의 대표적 경전 3권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1장에서는 아트만, 업과 윤회, 요가에 대한 해탈 등 요가의 우주관과 인간론을, 2장에서는 요가 수행자가 지켜야할 계율 음식 및 수행가지 좋은 장소와 시간 등 수행 요건에 대해, 3장에서는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체위법을, 4장에서는 호흡법의 종류를, 5장에서는 실천 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무드라의 종류 및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값 8천원.



▲화랑도(군불교진흥회 펴냄, 글·그림 정수일, 감수 이하전)= 군불교진흥회(회장 정각 스님)가 군불자 및 청소년 포교용으로 펴낸 만화책. 삼국통일의 주역이었던 화랑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화랑도의 세속오계와 호국정신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될 만하다. 이와 함께 군불교진흥회는 〈만화로 보는 지장경 상·하〉도 펴냈다. 이 책을 법보시 하고자 하는 불자들은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02)749-5135.



▲삿뽀로 여인숙(하성란 지음, 이룸)= 동인문학상 수상작가 하성란 씨의 장편소설.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문제 즉 죽음을 파헤치고 있는 이 소설은, 주인공 진명(나)이 쌍둥이 남동생 선명의 죽음에서부터 발을 내딛어 삿뽀로 여인숙에 다다르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과정은 수수께끼를 푸는 형식이다. 죽은 쌍둥이 남동생이 보물찾기 놀이를 하듯 숨겨놓은 네 개의 작은 종 가운데 마지막 한 개의 종은 누구에게로 갔을까. 값 7천5백원.

▲한문과 우리말로 쉽게 쓰고 익히는 경전(덕진 스님 편저, 정토불교대학)= 〈예불문〉, 〈반야심경〉, 〈법성게〉 사경집으로 한문·한글쓰기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 값 4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판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2	심천사혈요법	박 남 희	정신세계사
3	전생가기 참 쉽다	설 기 문	도 솔
4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5	단박에 윤회를 끊는 가르침	김 지 수	불 광
6	달라이 라마, 삶의 네가지 진리	주 민 황	숨
7	전통사찰음식	적 문	우 리
8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달라이 라마	문 이 당
9	라마나 마하르쉬와 진아	대 성	탐 구 사
10	석가모니 승가동화	허운봉·이규성	은 하 수

도서 안내:(02)737-0695

신간

설 교수가 안내하면 혼자서도

전생 가기 참 쉽다

설기문 지음 / 값 8,500원 ●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전생 다녀오는 시간

45분

전생 유도 테이프 포함



설기문
동아대 교수 · 미국 공인 최면 전생 치료사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미국 인터내셔널 대학교 상담심리학 박사.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객원 교수 역임.
KBS TV 〈미스터리 추적〉을 포함한 다수의 TV프로그램에 출연.

국내 최초의 전생 매뉴얼북

● 전생 유도 테이프에 의한 최면으로
가장 편하고 가장 빠른 방법.
45분짜리 테이프를 한 번 또는 두 번 듣기만 하면…….

● 펜듈럼 · 점막대 · 손가락 · 거울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마술과도 같지만 분명한 사실. 거울 속의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말을 건네면 꿈은 반드시 응답한다.

● 현재의 나와 내 주변을 살펴보면서
지금의 나는 전생의 가장 완벽한 증거. 주의 깊게 주위를 다시 보면…….

● 전생을 알고 나면 ➡ ● 몸과 마음의 고질적인 문제가 풀린다. ● 세상이 전과 다르게 보인다.

738-0931 도서출판 솔

유명한 사람들의 전생이야기

데이비드 벵슨 / 서민수 옮김

그들이 유명하게 된 까닭은?



● 정주영
중국 수왕조 시대
대운하 공사 감독관
1300년대
태국 부농 집안의 수장
1800년대
중국 광둥의 상인



● 김대중
세종 시절의 학자
1700년대
네덜란드에서 출생
1800년대
필리핀에서 출생



● 박정희
고려말 최의의 환생



● 전두환
고려말 최충헌의 환생

세계 유명 인사 40인 포함
문선명, 존 레넌, 브루스 리, 칼릴 지브란, 에머슨, 스티븐 킹, 괴테, 칸트, 헤겔, 베이컨, 디즈니, 록 펠러, 처칠, 고르바초프, 엘리자베스, 빌리 그레이엄, 키신저, 솔제니친 외

전생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 왜 어떤 사람은 실패를,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할까?
● 부부는 어떻게 만나게 되나?
● 천재들은 어떤 진화의 경로로 태어나는가?
● 유학자들은 정치인 · 목회자로 많이 환생했다.
●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인의 전생을 보았을까?
● 이미 바티칸 신학자의 50%가 윤회를 믿고 있다.

문화재 소식

인각사지 복원 추진

조계종 문화유산 발굴조사단
지표조사 창건당시 사역 확인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하고 입적한 경북 군위 인각사(사적 제374호)가 복원된다.

조계종 문화유산 발굴조사단(단장 혜자 · 문화부장)은 인각사 종합정비 및 복원사업의 첫 단계로 9월부터 정밀지표조사에 들어간다고 8월30일 밝혔다. 내년 6월까지 실시될 이번 조사에서는 〈동문선〉 등 옛 문헌을 바탕으로 창건 당시의 정확한 사역을 확인하고, 주변지역 불교유적 조사를 통해 인각사의 역사적 성격,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일연 스님의 행적 등을 밝힐 계획이다.

또 향후 이를 토대로 전체 사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고려, 조선시대 가람의 모습까지 밝혀내 종합적 복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상규 문화과장은 "이를 토대로 일연스님 기념관을 건립하고 역사탐방로를 설치하는 등 성역화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운흥사 괘불 국보 신청



경남 지방유형문화재 제61호인 고성군 운흥사 괘불탱과 산청군 율곡사 괘불탱(비지정)이 국보로 지정·신청된다. 경남도는 8월29일 도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이 두 괘불탱을 각각 국보로 승격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신청키로 결정했다. 1730년에 조성된 운흥사 괘불은 7.6m×11.3m 크기로 의겸 스님 작품이다. 4.7m×8.3m 크기의 율곡사 괘불은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1684년 법림 스님 등이 그렸다. 도문화재위원회는 이들 괘불들이 조선후기 대작불사에 의해 조성됐고, 이들과 비슷한 진주 청곡사 괘불이 지난 97년 국보로 지정됐음을 감안해 국보 지정을 신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포항서 고려석불 발견

포항 북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불상이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청하면 서정리 비로자나석불은 방형대좌 위에 조성된 좌상으로 규모나 제작기법에서 볼 때 고려시대 불상으로 추정된다. 포항 북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석불로 이 지역 불교미술사 분야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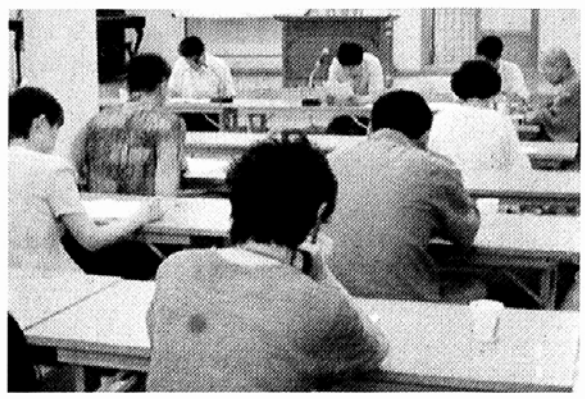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홍성빈)은 99년 10월부터 2000년 6월까지 포항시 북구 관내 7개 읍·면, 23개 동에 흩어져 있는 각종 유적에 대한 정밀조사 과정에서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불상 3기를 발견했다고 8월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절터 16곳, 탑 1기가 새로 발견됨에 따라 이 지역 불교유적은 모두 40건으로 늘어났다.

권형진 기자

"유식사상 정신치료에 활용하자"

김치온 박사, 보조사상硏 발표회서 주장

"수행법 과학적 데이터 축적"
"야뢰야식으로 심리현상 설명 가능"



◇보조사상연구회 제32차 월례발표회에서 '아뢰야식의 존재증명…'을 발표하는 김치온 박사. 이날 최종남 · 김성철 박사 등이 논평에 나서, 열띤 토론을 벌렸다.



중생의 마음을 심층 분석해 번뇌의 인과(因果)를 낱낱이 설명하고 있는 유식사상 특히 '아뢰야식'을 과학적으로 다루고, 이를 정신의학계와 심리학계에 수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치온(동국대 강사 · 사진) 박사는 8월26일 보조사상연구원 월례발표회에서 '아뢰야식의 존재증명에 대한 고찰'을 발표하고, "아뢰야식은 마음의 양상과 변화과정을 다룬 유식사상의 키워드"라며 "아뢰야식의 실제와 그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불교를 정신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정신의학자와 심리학자들은 불교를 정신치료에 활용하면 적잖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은 채, 현장에서 명상과 같은 불교적인 방법을 수용해 왔으나,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아뢰야식이란 '현상계의 사물을 인식하는 작용'이라는 뜻으로, 유식사상에서는 분별과 판단의 주체로 본다. 따라서 관념적인 정의에 머물러 있는 아뢰야식을, 관련 불교학자들이 실증(實證)할 수만 있다면, 유식사상의 교학 체계는 물론 분석심리학의 이론 · 방법 등과 비교 · 연구해 정신치료 분야까지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데 김 박사는 주목했다.

이를 위해 김 박사는 "우선 '유식'에 대한 철저한 교학 연구를 토대로 관념에 머물기 쉬운 정신 현상을 명확히 설명하려는 불교학자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그래야만 프로이드와 융이 보는 마음의 구조와 유식에서 보는 구조를 비교 · 연구할 수 있고, 나아가 '여래장과 무의식', '무심(無心)과 무의식' 등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어, 치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김 박사는 "불교에서 수행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수행법으로 다양한 임상 실험을 실시해, 과학적인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명숙 씨는 "지금까지 정신을 치료한다는 관점에서 불교사상을 고찰한 연구들이 부족해, 현장에서 불교적 방법론을 찾지 못했다"며 "정신치료를 위해서는 마음의 병이 무엇으로부터 발생하여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먼저 알아야 하며, 마음을 다루는 유식사상은 이에 대해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국내에서 불교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80년대부터. 이동식, 강석헌, 한기수, 윤호균, 문홍세, 신옥희, 정창용 등에 힘입어 지금까지 20여 편의 '불교와 정신치료' 주제의 논문이 나왔다. 그러나 정신의학자와 심리학자에 의해 주도된 탓에 불교를 접목시키는 안목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성과 역시 개념과 정신의 변화를 비교하는 일차원적인 것에 머물러, 치료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유식사상 특히 '아뢰야식'과 정신치료의 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을 정신상담 및 병리치료를 위한 방향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불교의 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중생구제에 적잖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학자들의 관심 여부에 따라 정신의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의료 현장에서 '마음치료'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선종어록 연구 양과 질 부족"

송인성 박사 '백련불교 논집' 10집에 논문



선종 어록연구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논문이 나왔다. 화제의 논문은 송인성(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사진) 박사의 '선종 어록의 언어 연구 현황과 과제'.

성철선사상연구원이 10월 말경 발간하는 〈백련불교논집〉 제10집에 수록될 이 논문에서, 송 박사는 "한국불교는 선종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학계의 선종 어록 연구 성과의 수준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선종 어록'과 관련해 한국의 연구 성과는 단행본 45권, 사전 1권 등으로, 양적으로 중국 · 일본의 성과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성과 역시 원문을 소홀히 다루고, 해석 상 오류를 범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대중적 관심도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조당집 주해 I〉(동국대역경원)는 대만본(本) 〈선장〉을 참고하면서 원문에 표점 대신 현토만을 사용해,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거리감만 주었다. 이 같은 경우는 '선림고경총서'(백련선서간행회) 가운데 〈임제록〉 〈조동록〉 〈운문록〉 등 37권의 선종 문헌도 마찬가지다. 또한 〈선학사전〉(불지사)의 경우, 관련 어록의 판본과 간행 시기를 언급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지고, 예문에 대한 우리말 번역이 없다. 또한 선종 어록에 자주 나타나는 어휘가 누락되어 있다. 선종 어록 관련 논문 역시 4 편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따라 송 박사는 "지금까지의 선종 어록 관련 연구 성과에 대한 정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선학 논저 색인 △선학 대사전 편찬 △선학 입문서 간행 △선학 관련 정기 강좌 개설 △선종어록 역주본 출간 △국내 · 외 교류 등의 '선학 저변 확대'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송 박사는 "단독 연구만으로 진행되어 온 선학연구 풍토를 떨쳐버리고, 올 3 · 4월 결성된 '선어록 연구회(회장 종범)'와 '한국선학회(회장 현각)' 등에 적극 참여해 토론 ·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어록을 연구하고 평가하는 일은 한국불교의 본 모습을 바라보는 작업인 만큼,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기대된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백련학당 3기 수강생

성철선사상연구원은 제3기 백련학당 수강생을 모집한다.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월 · 화 ·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학당에는 송인성 박사의 '선어록입문', 인환 스님의 '불교일본어 1', 사토오 시게키 교수의 '불교일본어2' 등이 개설됐다. 접수는 16일까지. (02)744-1541

한국선학회 월례발표

한국선학회는 16일 오후 1시 30분 중앙승가대학에서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는 이철헌 박사의 '사명당 유정의 선사상', 인경 스님의 '화엄과 선의 관계-돈교 논쟁을 중심으로' 등이 발표되며, 김상영(중앙승가대) · 황인규(동국대) · 서정형(서울대) 박사와 계환 스님 등이 논평에 나선다. (02)2260-3135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평화교우회

"열린 마음으로 참여불교 실천"
세계 각국 4천여 회원 활동

세계 평화와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불교단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 곳이 불교평화교우회다. 이 단체는 1979년에 설립되었는데, 현재 세계 각국에서 4천 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종파적 파벌 의식을 탈피하고 '열린 마음으로 참여 불교'를 실천하고 있다.

이 단체의 본부는 미국에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클릭' 한 번으로 꼼꼼히 살피고, 참여할 수도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연혁 △사상 △프로그램 △게시판 △생태학자 에세이 등을 열람 · 이용할 수 있다.

먼저 교우회 활동을 조망하고 싶다면 '연혁' 메뉴를 이용해야 한다. 교우회는 국경을 초월해 20여 년간 방글라데시, 베트남, 티베트, 미국, 일본 등과 같이 갈등과 충돌이 있었던 지역에서 불교의 평화 사상을 일깨우고, 제도화된 무지의 세계를 드러내는 데 일조했다.

1996년부터는 미국의 카이저 재단으로부터 5천 달러를 지원 받아 '아동 의료단'을 설치, 태국과 라오스 국경 인접 지역에 있는 아동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지역 아동 장애인들은 하나같이 땅속에 묻혀있던 '대인지뢰'의 폭발로 인한 것이다.

교우회에서 진행하는 독특한 불교 수행 프로그램인 '사회참여불교인동맹'을 알고자 할 때는 '프로그램' 메뉴를 열람하면 된다. 교우회 자원 봉사자들의 수행 프로그램으로도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인권과 관련된 편지 쓰기 운동 △분쟁 지역에서 온 피난민과의 공동 생활 △철야기도와 시위 참여 △청빈한 생활 △유해한 상품과 정책에 대한 저항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지지와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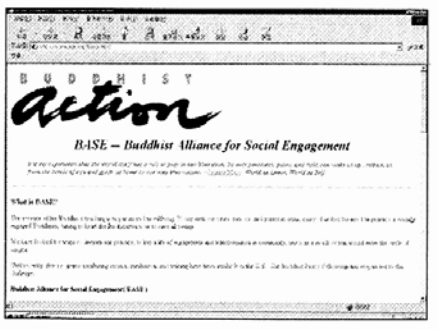
이 메뉴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는 미국인 불자들의 수기도 소개하고 있는데, 한 미국인 불자는 "정의 · 평화 · 여성 · 환경운동과 같은 현안의 실마리를 푸는 데 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하고 있다.

'게시판' 서비스를 이용하면 교우회가 실천하고 있는 사회 개혁 운동에 시공을 초월해 참여할 수 있다. 한 번의 클릭 또는 불자 네티즌 자신의 e-메일을 등재하는 것으로도, 인류의 사회적 생태적 고통을 치유하는 데에 동참한 셈이다.

또한 '생태' 에세이' 메뉴에서는 "자연은 그 자체로 우리의 자유를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연의 고통과 위험 등은 우리를 일깨우고 또한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연은 우리를 본래의 본성으로 되돌아가게 한다"는 여류 생태학자 조안나 메시의 '대지의 여신, 우리의 삶'과 같은 생태학자들의 글 5편을 열람할 수 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http://www.bpf.org



출판화제!
만불명호경

萬佛名號經과 함께 하는 一萬拜
1만분의 부처님께 禮敬을 올리는 일입니다.

이제 절(拜)수행을 하는데 염주를 세며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일배일배 지극정성으로 부처님명호를 부르며 하는 절수행은 환희와 신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만불명호경』은 菩提流支 번역의 『佛說佛名經』을 비롯한 총 9冊 56卷의 佛說佛名經에서 부처님의 명호를 일일이 대조 정리하여 신행생활에 유용하도록 새롭게 엮은 佛典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무심으로 올리는 절(拜)은 자신의 修行을 위한 것이라면, 부처님의 名號를 독송하며 올리는 절(拜)은 願力成就의 원동력입니다.

1만 분의 부처님 명호를 통해 수행과 원력의 성취를 체험하십시오. 만불명호경을 받아지니는 그 자체가 수행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백일기도, 천일기도, 참회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의 행복발원기도, 건강발원기도… 그 소중한 원력들을 지닌 기도를 이제는 「만불명호경」과 함께 하십시오.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편 집 : 도서출판 佛泉
감 수 : 월운 큰스님(동국역경원장)
역은이 : 초격 스님
보급처 : 광명선원
☎ 02) 584-1108, 587-3753
016-217-0143
가 격 : 35,000원

도서출판 佛泉 ※ 많은 불자님들께 보다 널리 보급하고자 전화나 우편주문으로 판매됩니다.

새천년, 미얀마에서 전해온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이야기!

아난 존자의 일기 1-4



원나 시리 지음, 벌라 옮김
신국판/각권 306쪽/각권 8,000원

아난 존자가 일생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생애!

아난 존자는 출가 후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까지 부처님을 시봉들던 제자이다. 따라서 이 책은 부처님의 행적을 가장 잘 알고,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부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읽고, 부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였던 아난 존자가 전하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철저히 경전의 기록에 근거한,
새로운 형식의 부처님 일대기와 그 가르침!

이 책은 방대한 빠알리 원전과 주석서, 소초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부처님의 숨결과 수행방식이 아직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미얀마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기존의 부처님 일대기와는 다른 새로운 감동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3층 ☎ 3672-7181-5

불법 알면 인생이 보람있다

박태원 교수가 쓰는 〈3〉

불교로 보는 인생

계산과 수행의 길

그 독특한 '생각의 힘' 때문인가? 인간의 이기심은 그 어느 동물보다도 집요하고 강렬하며 복잡하다. 짐승들의 이기심은 타고난 본능을 제한적으로 충족시키는 데서 그치게 마련이지만, 인간의 그것은 끝없이 번져 가는 욕망을 뒤쫓으며 자락자락 더해가기만 한다. 그 이기심들이 날카롭게 맞서는 사바세계 현장은 위험할 수밖에. 어찌해야 안전한 세상으로 가꿀 수 있을까?

현실 감각이 발달한 사람들은 계산의 길을 제시한다. 어차피 인간은 이기적이다. 양심은 공허한 꿈. 그런 것들에 호소하여 인간의 이기심을 조절해 보려는 것은 무지한 낭만에 불과하다. 이기심들의 충돌을 조정하는 법과 제도를 고안하여 시행하라. 준법이 위법보다 자기에게 훨씬 이익이 된다는 계산에 따라 행동하게 하면, 이기심의 밀림은 질서가 잡히게 마련이다. - 이른바 성악설의 기본 발상이다. 근대 이후 오늘날까지의 사회 운영과 교육의 기본 원리는 사실상 이 성악설이 주류로 행세한다.

그래, 인간의 현실은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기적이지. 양심을 믿어달라고? 교활한 놈들! 양심은 무슨 얼어죽을 양심! 어림없지. 순진하게 그 말 믿었다간 나만 손해볼 것은 뻔한 일. 허점만 보이면,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나를 속이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위험한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적으로 맞서야, 손해도 안 보고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지키지. 법대로 하면 돼 냉정하게 계산해야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하나 하나 따지고 또 따져. 그래야 만만하게 안 보고 등쳐먹지 않지! - 성악설적 발상의 전형이다.

분명 현실적이다. 이 길의 세속적 효용성은 아무도 부인 못한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는 이 계산의 길에 더 능숙해질 필요도 있다.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 주장을 이런저런 도덕적 명제들을 앞세워 쉽게 매도해 버리는 것은 자칫 또 다른 폭력일 수 있다. 끈질기게 이익으로 계산하고 협상하라. 세련되게, 합리적으로. 이기심의 합리적 조정은 사회 운영의 최소 요청이 아니던가?

타산적 행동 메마른 사회 초래

수행하면 영혼 풍요롭게 살져

그런데 어딘가 허전하다.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은 듯하다. 이기심들이 잘 교통 정리된 사회, 합리적이고 세련된 이기주의자들의 평화, 더 이상 구할 것은 없는가? 공허하고 각박하지는 않은가? 계산을 넘어서는 우애와 사랑과 신뢰, 헌신과 희생, 이기심의 답답한 공간과 메마름을 초월한 영혼의 자유와 풍요는 어디서 구하는가? 인류의 영성(靈性)은 또 하나의 길을 마련한다. 수행의 길이다. 인간에 대한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신뢰와 긍정이다.

현실은 다분히 성악설적이라는 점을 그들도 안다. 이기심으로 계산하고, 이기심을 법과 제도로 조정하는 것이 당장 효과를 본다는 것을 그들도 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계산의 길에 안주하지 못한다. '공허한 낭만'이니 '비현실적'이니 하는 비판을 충분히 수긍하면서도, 그들은 멀리 깊게 보며 존재 성숙의 길을 택한다. 성선설의 발상이다.

존재 성숙의 길은 반성과 자각과 교육과 훈련과 자율을 요구한다. 그러다 보니 수행의 체계가 발달한다. 성악설에 입각한 계산의 길에서는 목격할 수 없는 풍요로운 존재 성숙의 수행 노하우들이 축적된다. 동양은, 그리고 불교는 이 수행의 길을 인생의 희망으로 제시한다.

이기심의 집단적 표현들로 인해 소란하다. 그러나 상투적 도덕 명제들로 그들의 주장을 쉽게 매도해서는 곤란하다. 과연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이가 얼마나 되는가? 각자의 이익을 충분히 따지고 계산하라. 이익 계산의 비정함과 지난함을 감내하라. 인내심을 가지고 계산의 길에 충분히 익숙해져라. 그러나 그 길에만 머무를 수는 없을 터. 인생의 깊은 보람과 풍요를 그 길에서 찾기는 어렵다.

계산으로 얻은 성취는 언제든지 내 곁을 떠난다. 그러나 자기 성숙만큼은 온전한 자기 몫으로 남는다. 걸을수록 채워지는 길은 계산이 아닌 존재 성숙의 길이다. '지혜와 자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깨달음의 능력'에 힘 붙이는 길, 근원적 해방과 흔들림 없는 평안, 한 몸으로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키우는 길, 그 길에서 걸어간 만큼이 든든한 내 몫으로 남는다.

두 길은 이질적이다. 그러나 어차피 동시에 걸어야 할 현실이다. 같지는 않지만 별개의 것도 아니라던가(不一而不異)? 언젠가는 수행의 길에서 모든 것이 풀릴 수도 있을 터.

〈울산대 철학과〉

"삼독심은 재앙부르고 청정심은 복밭 일구죠"

법회중계

초하루 법회

〈2000년 ?월 ?일〉



성운 스님
〈삼천사 주지〉

좋으나 싫으나 꾸준히 금강경 수지 독송하면 숙세 쌓인 업장 사라져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며 저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이웃들이 사는 모습은 천태만상으로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우리 불교에서 가르치는 인과의 법칙으로만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찍이 어느 종교에서도 전생과 인과의 법칙을 이처럼 분명하게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과 환경은 나의 전생과 밀접한 인연의 관계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생에 내가 맞을 인연은 내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의 몸을 받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불치의 병에 걸려 고통받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고부간 부부간 또는 부모 자식간의 심한 갈등을 겪는다거나 하는 등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장애나 재앙은 전생에 내가 지은 악연이 금생에 재앙으로 그 형태를 바꾸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생이란 의미는 사람이 기억할 수 없는 과거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생에서 지나간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 몇 달 전, 또는 몇 년 전에 내가 행한 일 때문에 오늘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생에 내가 알게 모르게 행한 일로 받아야 할 과보 또는 재앙은 도저히 피할 수 없을까요?

그렇다면 종교를 믿고 가르침에 의지하는 우리 중생들은 아무런 의지처가 없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대승사상의 가르침인 금강경을 통해 우리 인간이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어 온 무거운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금강경〉 '농정업장분'에 말씀하시기를 과거 생에 무거운 과오를 갖고 태어나서 금생에 지독한 재앙을 만나게 되어있는 사람이라도 금강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면 그 묵은 업장이 소멸되며, 설혹 금강경을 공부하는 동안 누가 나를 업신여기고 천대하고 모욕하는 자가 나타나면 그 상황을 참고 넘기는 순간에 묵은 업장이 절로 녹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명쾌한 말씀입니까?

그러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그 공덕은 불가사의하며 무량아승지겁 동안 수행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진리란 법계에 두루 널려있고 마음이 청정한 자만이 진리와 함께 할 수 있으며, 마음이 청정한 사람이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남과 경쟁하며 살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모두 비운 사람을 뜻합니다. 이렇게 청정한 마음 가운데에서 비로소 바른 지혜가 나타나게 되며 청정한 마음은 변만법계의 우주 진리와 하나라는 가르침을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강경을 독송하는 자세는 능수지독송(能受持讀誦), 즉 그냥 마음이 내킬 때마다 읽는 것이 아니라, 좋으나 싫으나 꾸준히 쉬지 않고 자기 마음의 의지처로 삼아 독송 수행해간다면 반드시 숙세에 업장이 소멸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욕심 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은 곧 다가 올 재앙으로 이어지지만 청정한 마음 보시하는 마음은 마침내 복밭을 일구어 냅니다. 이것은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다른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마음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최첨단 전자불전 시대 이끈다

세계의 불교학 〈25〉 미 국 ⑦

미국 불교학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어떤 연구 방법론'으로 '어떤 불교'를 다룰 것인가에 맞춰진다. 여기에선 우선 '연구 방법론'을 생각해 보자.

미국은 최첨단 컴퓨터 기술을 보유한 나라인 만큼, 현재 세계 불교학계가 뛰어들고 있는 전자불전 시대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불교학자들 역시 이 시대를 맞아 경전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대장경 전체를 불교학의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다루지 못했던 수많은 경전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체적이며 종합적인 비교·연구 방법이 미국 불교학계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불교학계는 이미 빨리 삼장 전체와 그 주석서는 물론 티베트 장경의 많은 부분들을 전산화하고 CD로 제작·보급하고 있다. 또한 산스크리트·베트남 장경과 둔헌도 입력하고 있으며, 한국·일본·대만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문대장경 전산화에도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분야의 국제적인 협의체인 전자불전회의(EBTI)를 조직했던 랭카스터(버클리대) 박사는 "이러한 기술과 방법의 향상은 한 언어권에 속한 경전 연구를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 문자로 된 다양한 불교 문헌을 동시에 비교·검토할 수 있게 돼, 불교학자들의 연구 영역과 일반 불자들의 인식의 지평까지도 넓혀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양한 문자경전 폭넓게 비교 연구

경전 보급 늘어 불교대중화 청신호

사실 미국 불교학계에서 지금까지 고대어로 된 경전이나 불교 문헌은 거의 특정 학자들만의 전용물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 같은 환경에 힘입어 멀지 않은 장래에 상당량의 영역본 경전과 불교 문헌이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경전 번역 및 전산화 원력을 세운 사람은 故 누마타(前 버클리대 교수) 박사다. 이를 위해 누마타 박사는 1984년 버클리에 '누마타 센터'를 설립했는데, 이 센터의 계획을 보면, 2015년까지 139개의 주요 경전을 영역하여, 108권으로 엮어 일반 및 전자 출판할 예정이다. 현재 이 계획에는 100여명의 전문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법화경〉과 〈정토삼부경〉 등 10여권을 내놓았다. 이 사업은 100여년에 걸쳐 한문·티베트·산스크리트·베트남·빨리 경전 전부를 영역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마무리되면 약 1000여권에 달하는 방대한 영역본 경전 전집이 간행될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 불교의 대중화를 이룬다는 파급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센터는 미국 내 불교학 발전을 위해 버클리대 외에도 하버드대·시카고대·하와이대·스미스대, 그리고 각종 불교학연구소 등에 석좌제도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매년 한 명의 불교학 교수를 초청하여 강좌를 개설하고 있어, 장차 미국 불교학을 꽃피울 씨앗을 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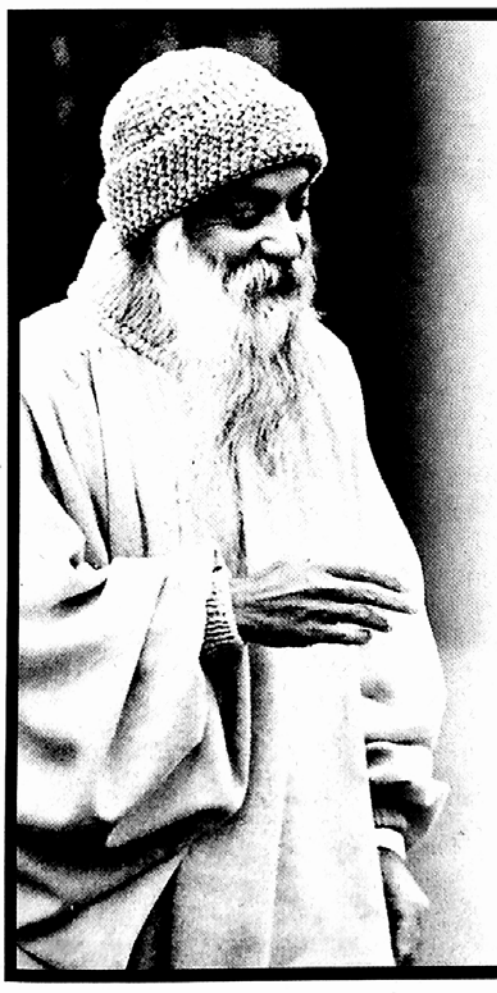


◇만다라를 그리고 있는 미국인 불자 청소년들.

따라서 미국 불교학은 첨단 전자 기술을 이용한 문헌 해석 능력과 연구 방법론이 진보해, 문헌에 대한 비교·분석이 용이해지고, 그 결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불교학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접 학문과의 협조가 증가되면서, 불교학의 저변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대중성 역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학문으로서 불교가 생활로 스며들 수 있다는 말이다.

미주불교학회 회장인 루에그(Ruegg) 박사가 취임식에서 "불교는 철학이자, 종교이며 또한 생활과 존재의 양식이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 체계이고 가치 체계이며, 이 체계는 불자들이 세계의 방대한 지역에서 그들의 세속적·정신적 삶을 추구하게끔 한다"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관찰과 정의는 타자로 대상화된 불교의 과거 모습과는 무척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우주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명상 여행

신간
Hyakujō. The Everest of Zen
禪의 최고봉 백장과 대주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8,500원

신간
The Great Secret
소중한 비밀 까비르 강론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11,000원

신간
The Hidden Harmony
서양의 붓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10,000원

깨달음의 빛은 갑자기 다가온다.
그곳에서 우주 전체가 열릴것이다.
백장은 선원(禪院)을 최초로 정비한 것으로, 대주는 돈오(頓悟)의 사상을 설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선사를 일본의 시인인 바쇼의 짧고도 그림 같은 시와 함께 그려놓았다.

가슴 속에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에 순종하라
이 강의는 까비르가 신을 향한 사랑을 노래한 열 편의 시에 대한 해설이다. 그는 말한다. 신의 얼굴을 찾지 말라. 신은 어떠한 것이든 좋다. 신은 사랑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다.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변화만이 영원하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가장 심오한 영혼이며 진정으로 보기 드문 꽃이다. 그에게는 삶에 대한 어떠한 이론도 없으며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이다. 그가 역설적인 삶의 문으로 안내할 것이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01. 탄트라 秘典 I
02. 탄트라 秘典 II
03. 탄트라 秘典 III
04. 탄트라 秘典 IV
05. 법구경 I
06. 법구경 II
07. 금강경
08. 반야심경
09. 탄트라, 더없는 깨달음
10. 십우도
11. 신심명
12. 하얀 연꽃(달마대사 강론)
13.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14.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15. 禪, 빈 거울에 담긴 노래 | 마조
16. 마음을 버려라 | 임제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 조주
18. 텅 빈 가슴을 넘어서 | 남전
19. 법의 연꽃 | 이규
20. 禪의 최고봉 | 백장과 대주
21. 내 사랑 인디아
22. 소중한 비밀 | 까비르 강론
23. 영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24. 서양의 붓다 |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색의 책은 출간 준비중입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_taeil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4-3236

태일출판사

시방세계

반야불교사
불사의 모든일 정성껏 하겠습니다.
031)905-6368 / 011)9934-3512


땀으로 인내로 고건축 계승 40여년

산문밖의 숨은 이야기

인간문화재 전흥수 대목장

'목수 치고 제집 가진 사람 없다.'

8월22일 인간문화재 대목장(大木匠) 74호로 지정된 국내 고건축의 거목(巨木) 전흥수씨에게 이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는 오는 2002년 완공되는 국내 최초의 한국고건축박물관을 사재 130여억원을 들여 손수 짓고 있는 목수이기 때문이다.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덕숭산 수덕사를 우로 비껴 차로 5분 정도 내달리면 우람한 자태를 뽐내는 고건축물들이 버티고 서 있다.

빼어난 건축미를 자랑하는 강릉 객사문을 그대로 본떠 만든 정문을 지나 전시관에 들어서면 실물 크기의 10~20% 모형으로 재현된 국보 제1호 숭례문, 국보 제15호 봉정사 극락전, 국보 제18호 부석사 무량수전 등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국보와 보물 200여점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들 전시물은 건축재료를 빠짐없이 축소해 짜맞춘 것으로 기와, 흙벽, 단청 없이 목조 얼개로만 돼 있어 건축물을 속속들이 볼 수 있다. 못 하나 쓰지 않고 재료를 모두 새기고 파서 짜맞추는 우리 전통 건축물이고 보면 이렇게 나무의 맨살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우리 전통 건축물의 참 멋을 잘 나타내고 있다.

사재 130억 들여 고건축박물관 98년 1차 개관 2002년 완공

뼈대가 훤히 드러난 건물 모형에는 작품설명과 함께 곳곳에 배흘림기둥, 공포 등 각 나무 재료들의 기능을 설명하는 이름표가 붙어 있다. 국사 교과서에서 무조건 외우기만 했던 전통건축 용어와 한국 건축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5000여평의 부지에 98년 10월 1차 개관한 이 박물관은 현재 본관, 제1전시관 등 6개동이 개관돼 있고 양반 사대부집, 초가 삼간 등을 더 지어 2002년 완공할 예정이다.

한국의 미를 응축해 놓은 한국고건축박물관. 40여년간 고건축 하나만 부여잡고 열정과 혼을 불어넣으며 장인의 삶을 살아 온 전흥수 관장(62)이 고향에 세워 놓은 자기 인생의 회향물(回向物)이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아름다움이 전수되지 못하고 당대에 끝나고 마는 것을 항상 가슴아프게 생각해 오던 중 고건축 분야만이라도 그 기능과 기법을 전승하는데 기여하고자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40년의 목수 일로 '인간문화재'라는 입신(入神)의 경지에 오른 전 관장이 고건축과 인연을 맺은 것은 약관 18세. 당시 대목으로 널리 알려진 부친 전병석씨에게 일머리를 배웠다.

3남 6녀 중 차남으로 태어난 전 관장은 보릿고개의 가난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다섯 살 아래인 동생(前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설정스님)을 가난으로 속세를 떠나보낸 고통과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한 상처가 불량스런 사춘기를 낳기도 했다.

21세 되던 해 전 관장은 방황을 접고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고건축 일에 뛰어 들었다. 부친이 대목이었던 인연으로 대목장 故 김중희씨를 만나 고건축의 미에 흠뻑 빠져들게 된다.

전 관장은 위계질서가 엄격한 공사현장에서 어깨너머로 일을 배우기 위해 이를 악물어야 했다. 배우는 속도가 빠른 그를 견제하고 쫓아내려는 선배들의 주먹질도 숨하게 이겨내야 했지만, 오로지 불심과 전통문화를 이어가겠다는 집념으로 고행길을 이겨냈다.





◇전 관장이 사재 130여억원 들여 건립중인 한국고건축박물관 전경.

"배우는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 일이 아닌가 하는 회의도 많이 들었고 돈 되는 일에 대한 유혹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목재가 쌓여 법당의 형태로 만들어져 가는 것에 심취한 나를 발견했을 때는 무척이나 환희심에 젖었습니다."

전 관장은 이 때 좋은 나무를 선택하는 방법 등 고건축의 기초부터 하나하나를 튼실하게 배울 수 있었다. '15년이 지나야 자를 잡는다'(독자적인 설계와 건축이 가능하다는 뜻)는 고건축 목공기술을 그는 배운지 10년만인 31세에 자립의 품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선조들의 품격 높은 기(技)와 예(藝)를 그대로 재현해 내야 한다는 두려움과 중압감이 자립에 깊이 들어선 그의 마음을 혼돈으로 밀어 넣었다. 이런 중압감은 마치 화두에 몰두하던 수좌가 은산철벽(銀山鐵壁)에 가로막힌 것처럼 한동안 나무를 쳐다보는 것조차 두려울 정도로 심한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했다.

손 거친 목조건물 연주암·망월사등 총면적 5만여평

그런 그가 마음의 평정을 찾고 망치와 끌에 혼을 담을 수 있었던 데는 수덕사 대웅전이 큰 힘이 됐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하는 '죽어야 산다'는 심정으로 발심을 새롭게 하자, 정재된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 사찰 고건축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당시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혼이 나간 사람처럼 일념에 푹 빠져 전통기법을 연구하다 보니, 거기서 화두(話頭)가 깨쳐져 사자후(獅子吼)가 나온 셈이다.

전 관장이 전국을 돌며 본격적인 고건축 공사를 시행한 곳은 문화재는 물론 전국 주요 사찰 건물 등 수백건에 이른다.

난공사로 꼽히는 관악산 연주암과 도봉산 망월사를 비롯해 오대산 월정사 대웅전, 속리산 법주사 대웅전, 안동 용담사 대웅전 등 그의 손을 거쳐간 건축물이 전국에 산재한다. 그가 신축·보수한 전통 건물을 면적으로 따지면 5만여평은 족히 넘는다.

특히 전 관장이 신축한 서울·여주·포천 등 10여 채에 이르는 대순진리회관과 대진대학, 대전 엑스포 종각 건축은 그의 대표작으로 건축미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전 관장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건축물은 수덕사 대웅전의 양식을 그대로 재현한 수덕사 황화루다. 20여년 전 신축부터 최근 보전 수리작업에 이르기까지 직접 관여할 만큼 애착을 쏟아부었다. 문화재의 원형보전과 전통적인 기법을 고수하는데 주력해 온 그의 집념의 단편을 보여준다.

양로원 수시 위문 장학금도 선뜻 보시행 실천

이제 그는 한국 고건축계에서 4명에 불과한 인간문화재 대목장이 되었다. 입문 당시 천대 받았던 직업이 이제 최고의 문화재 기능인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지난 90년부터 한국문화재보전수리기능인협회 회장을 10여년간 맡아온 그는 최근 신흥수씨에게 회장 자리를 물려주고 상임고문을 맡아 일반인의 문화재 애호정신을 고취시키고 보전수리기능의 전승·개발에 심혈을 쏟고 있다.

그는 우리 문화유산의 보전과 전승에 기여한 공로는 물론 노인공경과 효 실천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 MBC와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주최한 '99 좋은 한국인 대상'을 받기도 했다. 예산군 '효 장학회'에 2000만원의 성금을 쾌척하고, 남 모르게 양로원 등에 쌀을 수시로 전달하는 등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실천해 왔다.

한 우물을 파는 뚝심과 배짱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점철돼 온 이 시대의 장인 전 관장의 마지막 불사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이다.

"고건축박물관에 전통건축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전수장과 일반인을 위한 실습장을 만들어 청소년과 해외교포들에게 우리 문화의 얼과 문화를 체험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문화재를 아끼는 마음이 싹트기 때문이죠."(041)337-5877

글=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좋은 잠자리의 참이 보약입니다.
SALE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제 돌침대를 쓰셔야 합니다.
침대가 과학이라면 돌침대는 자연입니다

목단 902

봉황 201
▶ 쿵쿵 뛰면서 온돌방처럼 쓰는 리빙스톤 돌침대!!
▶ 전자파 자체 제거기능(특허 제0157651호)설치
▶ 200만원으로 돌침대를 쓰시겠습니까?
스프링 매트리스 침대를 사겠습니까?
■ 침대에 주사를 놓는다구요?
찐드기, 먼지, 알레르기, 습기에서 완전 해방
■ 아직도 침대에 전기장판을 쓴다구요?
온도는 자유롭게… 4계절용 돌침대
■ 돌매트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쏟아져
배기는 느낌이 없고, 척추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205 오크
101 싱글보료
침대의 名家 氣 세계인을 편안하게 건강하게
리빙스톤 (옥스톤)
Living Stone Bed
☎ 02)424-9427/2203-7821
돌침대의 효능…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초장파 의 물리치료 기능으로 몸속 깊숙이 뭉친곳을 풀어줍니다.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1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 (2인용)
가격이 싸다고, 광고가 요란하다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가열장치가 "열선장치"인지 "특수카본 필름장치"인지 초장파는 장치되어 있는지 …
돌판은 원석인지, 그리고 수입석은 아닌지 철분은 많지 않은지 … 입소문 제품이 제일 믿을수 있습니다.

다시 푸는 경서

달마 관심론(觀心論) ⑫

以恭敬故 不敢毁傷 以屈伏故
이공경고 불감훼상 이굴복고
無令縱逸 若能惡情永滅 善念恒存
무령종일 약능악정영멸 선념항존
雖不現相 常爲禮拜 其相者則身相也
수불현상 상위예배 기상자즉신상야
欲爲令諸世俗 表謙下心
욕위령제세속 표겸하심
故須屈伏外身 現恭敬相
고수굴복외신 현공경상
用之則現 捨之則藏
용지즉현 사지즉장
擧外明內 性相應也
거외명내 성상응야
若復不行理法 有執外相
약부불행이법 유집외상
內則迷故 縱於貪嗔癡
내즉미고 종어탐진치
常爲惡業 外則空顯身相
상위악업 외즉공현신상
何名禮拜 欺賢詆聖 必不免於輪廻
하명예배 기현광성 필불면어윤회

공경하므로 헐뜯지 않고, 굴복하므로 방종함이 없다. 만약 악한 감정이 영 사라지고 착한 생각이 항상 존속된다면 비록 겉모습으로 나타내지 않아도 항상 예배하는 것이 된다. 모습(相)이란 육신의 행위다. 세속적인 법을 따라 마음을 낮춰 겸손함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에 겉모습을 굴복시켜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 씀에 따라 드러나기도 하고 감춰지기도 하는 것이니, 겉의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밝아지는 것은 성품과 겉모습이 서로 같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이법(理法)을 행하지 않고 겉모습의 예배만을 집착하고 마음대로 탐·진·치에 놀아나며 악업을 짓는다면 이는 겉으로 거짓 흉내만 것이니 어찌 예배라 하겠는가. 성인과 현인을 기만하는 짓이니 반드시 윤회를 면치 못할 것이다."

겉의 예배통해 마음 밝아짐은
성품과 겉모습 서로 같기 때문

又問曰 溫室經 云洗浴衆僧
우문왈 온실경 운세욕중승
得福無量 若有觀心 可相應不
득복무량 약유관심 가상응부
答曰洗浴衆僧者 非說世間有爲之事也
답왈세욕중승자 비설세간유위지사야
此假諸事 譬喩眞宗 隱說七事
차가사자 비유진종 은설칠사
其七事者 一者淨水 二者燃火
기칠사자 일자정수 이자연화
三者澡豆 四者楊枝 五者淨灰
삼자조두 사자양지 오자정회
六者酥膏 七者內衣 用此七法
육자소고 칠자내의 용차칠법
沐浴莊嚴 能除三毒無明垢穢
목욕장엄 능제삼독무명구예

물었다. "〈온실경〉에 보면 '여러 스님을 목욕시켜주면 한없는 복을 받는다' 하였는데 오직 관심(觀心)만 해도 마찬가지입니까."

대답했다. "스님들을 목욕시킨다 하는 것은 세간의 유위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세상의 일을 빌려서 참진리를 비유한 것이며, 일곱 가지 일을 견주어서 말한 것이다. 그 일곱 가지는 첫째 맑은 물이고, 둘째 불을 피우는 것이고, 셋째는 조두(澡豆)요, 넷째는 양지(楊枝)요, 다섯째는 깨끗한 재(灰)요, 여섯 째는 우유 기름이며, 일곱 째는 속옷이다. 이 일곱 가지의 법을 사용하여 목욕하고 장엄하면 삼독과 무명의 때를 제거할 수 있다.

其七法者 一者法戒 洗溫愆非
기칠법자 일자법계 세온건비
猶如淨水 去諸塵垢 二者智慧
유여정수 거제진구 이자지혜
觀察內外 猶如燃火 能溫淨水
관찰내외 유여연화 능온정수
三者分別 揀棄諸惡 猶如澡豆
삼자분별 간기제악 유여조기
能淨垢 四者眞實 斷諸妄語
능정구이 사자진실 단제망어
猶如楊枝 能消口氣
유여양지 능소구기

일곱 가지 법이란 첫째는 법과 계율이다. 잘못된 허물을 따뜻한 물에 씻기를 마치 맑은 물이 더러운 때를 씻듯이 함이다. 둘째는 지혜이니, 내외를 관찰하기를 마치 타는 불이 맑은 물을 더욱게 하듯이 함이다. 셋째는 분별이니, 악을 골라 버리기를 마치 콩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음이다. 넷째는 진실이니, 온갖 거짓말을 끊는 것이 마치 양치질하여 입 냄새를 없애듯 함이다.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死'를 앞둔 스님과의 대화

"너와 나 하나일 때만 대비심"

혜경스님

무설정사 조실

'선(禪)' 혹은 '화두(話頭)'라는 말은 이제 일상어가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선'을 연결짓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21세기의 대안은 선'이란 말 또한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왜 선이 21세기의 대안이며 그 구체적 형태는 이것이다' 하는 얘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다. 소문 같은 전망만 넘쳐날 뿐, 현실과 소통하는 삶의 원리로서의 힘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선방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다. 출가 수행자에만 국한시켜도 결제 대중은 10퍼센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선을 해설한 책이나 이야기는 넘친다. 그야말로 '구두선(口頭禪)의 황금기'라는 자조가 나올 지경이다. 그러나, 기(氣) 수련이나 서양에서 역수입된 이봐타 수련 따위를 행하는 사람들은 급속히 늘고 있다. 선을 표방하는 한국 불교로서는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할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흔히 불법 수행의 근본을 말할 때, 신해행증(信解行證)과 교선일치(敎禪一致)를 든다. 하지만 선불교의 입장에 서게 되면 교외별전(敎外別傳)이나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말만 도드라지게 되고, 그것이 극단의 형태를 취할 때, 교학은 버려야 할 대상이 되고 만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옳을까. 특히나, 선의 중흥이 운위되고 그와 함께 간화선(看話禪)에 대한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는 이 즈음, 진지하게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 1933년 전남 여수 生
· 56년 서울대 사학과 졸
· 現 한국불교 법화본종 유지재단 이사장
· 동산불교대 경전연구원 교수
· 무설정사 주석

—우선 상식 수준에서 선(禪)과 교(敎)의 관계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들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불교를 두 가지로 정의하자면, 먼저 글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처가 되는 가르침'이라는 말이 되겠는데,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인 것입니다. 이로 볼 때, 교를 배제하고 불교를 논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그래서 교선일치(敎禪一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버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스승없이 성불했다는 사람을 마구니라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禪)은 착함(善)을 행한다는 것과도 통합니다. 또한 그것은 선정 바라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닌 만큼 보시일 수도 있고, 흔들림 없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인욕이요, 정진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좌선만이 선은 아닙니다. 행주좌와(行住坐臥) 즉 일상 생활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정신과 육체를 하나로 이루어 나가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我)라고 하는 집착의 근본을 이루는 말나식(末那識)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의를 버리고 선지를 참구하라는 '사교입선(捨敎入禪)'이나 불도를 전함에 있어 교설을 따르지 않고 곧장 마음으로 전한다는 교외별전(敎外別傳)이라는 말은 어떻게 새겨야 할지요.

▲어디까지나 그 말은 문자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뗏목의 비유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말도 너무 교설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한 데서 나온 것이지 무조건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집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도 사상(四相) 즉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도들에게 경전을 가르칠 때, 분별심이나 키우고 아상이나 세우려면 경전 공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바엔 차라리 돌뿌리 하나를 만나도 '색즉시공(色卽是空)', 나뭇가지 하나를 만나도 '공즉시색(空卽是色)' 하고 염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래도 의지할 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일 텐데, 어떻게 읽어야 할지요.

▲경전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글자만 보고 아는 체 하는 것은 불교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럼 참뜻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나온 말이 신독(身讀) 즉 몸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득하라는 것이지요. 경전은 결코 탐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인 것이지요. 같은 의미에서 불교는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은 지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불교는 반야(지혜)를 얻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분별이지만 반야는 통일입니다. 단순한 지식을 얻는 것으로는 통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느끼는 바일 테지만, 경전의 내용이 어려운 것도 보통 사람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역 경전 자체가 어렵긴 합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번역의 문제예요. 저는 은사로부터, 모든 경전은 해탈문이다, 그러므로 경전을 번역할 때는 해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율장을 번역할 때는 화합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그럼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경전 번역에 있어서는 해답을 먼저 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경전에서 말하려고 하는 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나서 번역에 임하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번역이 너무 많아요.

적어도 경전을 번역하는 사람이라면 경전을 만든 사람의 수준과 버금가야 합니다. 또한 경전 번역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산스크리트나 빨리어 원전과 한역 그리고 우리말의 차이, 시간과 공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한역만을 중시하여 번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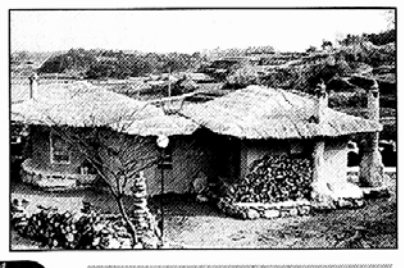
한역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경우, 한자의 뜻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예사로이 넘길 수 없는 흠을 만들어 내요. 좀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옥편에 의존한 번역은 이제 지양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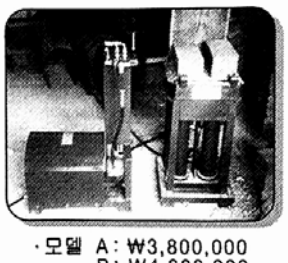
예를 들어 흔히 '번뇌를 끊어라' 하는데, 번뇌란 끊어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번뇌의 실체를 알고 그것을 뛰어넘을 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마왕 파순의 대화를 보세요. 파순이 어디 실제 인물입니까. 부처님 마음 속에 있는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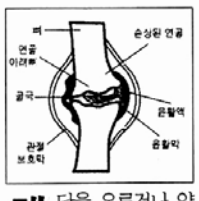
황토환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사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던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쿳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 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슘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괘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랭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

> 경전공부 한다면서 글자에만 얽매이니 참뜻 알기 힘들어요 몸으로 읽고 행해야

하나의 번뇌인 것이지요.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끊은 게 아니라 조복 받으신 것이지요. 한자로 '단(斷)'이라 표기된 것에서 한발짝도 더 나가지 못한 탓에 끊어라는 말밖에 할 수 없게 된 결과입니다.

'관(觀)'도 볼 관자로만 새기면 곤란해요. 관세음보살 하면 '본다' 고만 생각하거든요. 세상 소리를 본다? 이치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럼 뭐냐. 온몸으로 체득을 한다고 해야 맞는 번역이 됩니다.

-또 막막한 것이, 불교를 일러 다 경전 다방편의 종교라 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수없이 많은 경전 중에서 무엇을 봐야할지도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경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마침 오늘 대담의 주제가 선과 교의 관계니 만큼 그 둘을 아우르고 있는 〈법화경〉을 가지고 얘기를 풀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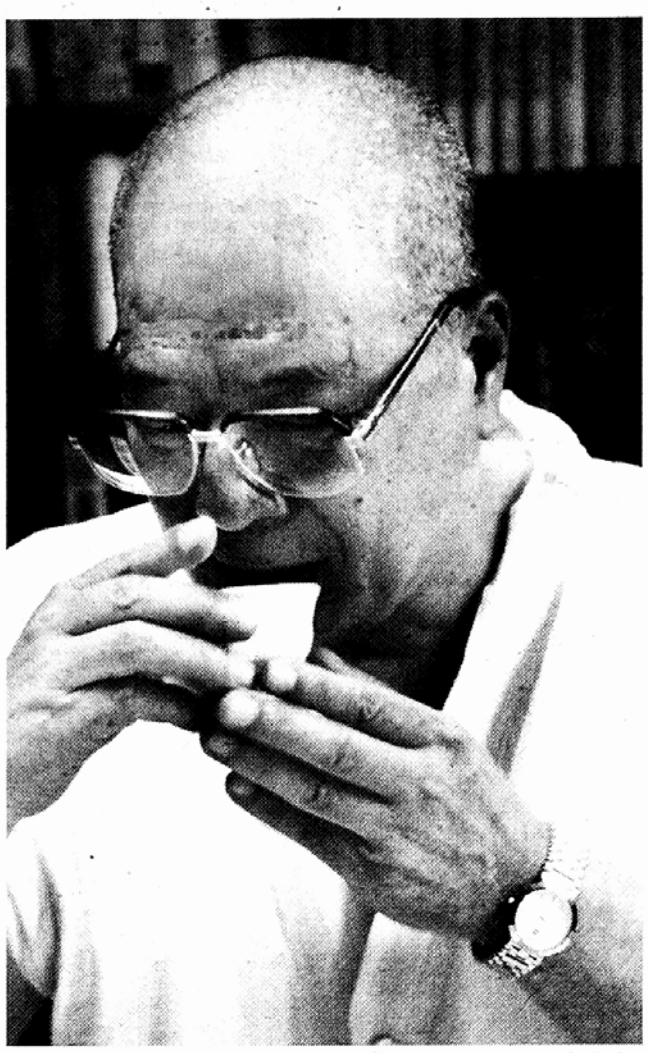
원래 법화경에는 선과 교가 같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교상문(敎相門)과 관심문(觀心門)이 함께 갖추어진 경전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예로 법화경에서 나온 것이 마하지관 아닙니까. 이런 법화경은 고래로부터 회업경과 함께 쌍벽을 이루며 널리 독송되어 왔습니다. 우주의 진리인 일승묘법이 설해져 있고, 영원한 생명의 실상이 무엇인지가 설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전이 수승한 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관세음보살보문품〉이나 〈약왕보살본사품〉 등에서 제시하는 보살도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을 한번 보십시다. 〈관세음보살보문품〉에는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에 의해 일곱 가지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이 설해져 있는데, 이는 결코 이름을 부르면 복이 온다는 식의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들을 온갖 괴로움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아름다운 그분과 마음이 통하면 자연히 구제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대승을 말하는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염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되고 싶다'는 동경과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한 동경과 서원이 강렬하다면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서원을 품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는 즉시 구제의 손길을 뻗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국 경전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경전 공부의 궁극적 목표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 마디로 '보살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은 능히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다가 누군가가 발을 밟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때, 그 사람이 사과를 하기 전에 먼저 사과를 해 보세요. 당신이 발을 놓을 곳에 내가 발을 놓았노라고. 그럼 그 사람의 마음 또한 보살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살심은 반야에서 나옵니다. 분별력 차원의 지식과는 다르지요. 반야는 통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갑돌이 갑순이 상태로 있을 때는 분별의 상태이지만, '사랑을 했더래요' 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반야라는 건 그와 같이 너와 나라는 분별이 사라진 대비심에서 나옵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대비심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대비심이 나올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 즉 반야란, 너와 내가 하나 즉 동체임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수희(隨喜)라는 말도 '따라 기뻐하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말 역시 '내가 그 속으로 들어



◇혜경 스님은 신도들을 대상으로 경전을 가르치실 때도 항상 믿음의 차원에서 시작하여 보살행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한다.

번뇌 끊는 것 아닌 뛰어넘을 뿐
보살도는 마음 아름답게 하는 것

간다'는 뜻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가 곧 나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가 기뻐함은 곧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결코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보살행의 최고 형태가 바로 '동체대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면서부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걸 갈라놓고 봅니다. 나와 너, 자연과 인간, 시간과 공간 등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나 아닌 모든 사람은 경쟁의 상대일 뿐이고, 자연은 정복의 대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생물과 무생물도 가름의 차원에서 구분짓지 않습니다. 무정과 유정이 있을 뿐, 다 살아있는 존재로 봅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무기질에도 생명이 있다는 건 과학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나와 대상이 둘 아님을 체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신도들에게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거꾸로 하라고 합니다. '하화중생'하면 '상구보리'는 절로 된다는 것이지요.

-선이든 교든 보살도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대승을 말하면서 보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음 없는 몸을 생각할 수 없고 몸 없는 마음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둘이 같이 가야지요. 선과 교도 마찬가집니다. 함께 가야지요. 조선조에 와서 이루어진 선교 양종 체제는 타의에 의한 구조조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문수와 보현이 둘이 아닙니다. 문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을 하는 것이 보현인 것이지요. 관음과 세지를 다른 것으로 알아서도 안됩니다. '관음' 하고 부르니까 세지가 대답을 했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관음은 마음이요 몸뚱이는 세지라. 지혜로서 중생의 고뇌를 체득하여 큰 세력을 얻으니 그것이 곧 대세지인 것입니다.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님을 체득하는 것이 반야일진대, 반야를 추구하는 선이 반야의 그릇인 교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지요.

-끝으로 무설일자(無說一字) 즉 한 마디도 설한 바 없노라는 말씀의 참뜻을 여쭙는 것으로 대담을 마칠까 합니다.

▲있는 그대로가 진리라는 말씀이지요. 그대로가 진리이니 설할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진리임을 알면, 꽃을 부처로 볼 수 있겠지요. 꽃이 어디 미운 사람 고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가립니까. 차별 없이 향기를 뿜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처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리를 체득하는 것이 바로 불법 수행입니다.

대담=윤제학 부장
(yunjh@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지묵스님의 스님이야기

■허연 스님

나에게는 할아버지뻘 되는 사제(師弟)스님이 한 분 있었다. 지난주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으로 전국이 눈물바다가 되었을때 그 투박한 평안도 사투리의 사제스님이 떠올라 가슴 한 구석이 아련해졌다. 그에 대한 추억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허연(虛然)스님, 아마 살아 계시면 세수는 95세 법납은 20년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된다. 고향은 평안도라는 것 외에 아는 것이 없고 1.4 후퇴 당시 혈혈단신으로 월남하여 38선 때문에 남은 세월 망향의 한을 품고 고단한 삶을 살다가신 분이다. 엿장수로 전국을 떠돌다가 부처님 법을 만나 늦게 출가하여 사제가 된 노스님인데 어찌됐건 손자뻘 되는 주변스님들에게 항상 깍듯이 사형의 예를 갖추곤 했었다.

은사스님께서 인척도 없이 오갈데 없는 노인이니 그래도 부처님 품에서 거두면 밥은 굶지 않을 거라면서 소개를 시켜 주셨다. 잘 돌봐드리라는 당부의 말씀을 곁들이면서.

비슷한 연배의 사형사제들은 뜻밖의 할아버지 사제를 두게 되자 잠시 술렁거림 속에서도 은사스님께 어찌 나이 많은 스님을 상좌로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지만 은사스님께서는 끼니걱정하는 노인을 밖으로 내칠 수 없다 하시면서 어린 우리들에게 자비심으로 동의를 구했다.

외롭고 고단한 삶 살아온 할아버지뻘 늦깎이 사제

한 번은 운문사 대비암에서 보살계 산림법회를 할 때인데 허연스님의 나이가 율사스님들보다도 더 많으니까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당시 강원의 학인스님들이 대중방에 인사하러 와서 계단(戒壇)의 율사스님들을 외면하고 당시에는 행자였던 그 앞에 와서 삼배를 올린 것이다.

사미계를 수지하러 왔던 그가 절집 정서를 알지 못해 당황하는 기색에 얼굴까지 창백해지고 있었는데 장난기가 있던 사형스님이 그대로 절을 받으라고 옆구리에 신호를 보냈다. 어정쩡한 자세로 절을 받는 모습이란 지금 생각해도 절로 웃음이 나온다.

계사스님이셨던 일우(一愚), 종수(宗秀)스님께서 저 스님은 누군고 라고 물었을 때, 은사스님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빙그레 웃으셨던 기억이 난다.

자비문중이란 말을 이렇게 해석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 곳이 부처님 도량이라고.

늦게 출가해서 그것도 칠순이 넘어 절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속에서 익혀왔던 습관들을 쉽게 털어 낼 수가 없었다.

그런 연유에서 손자, 아들 뻘 되는 스님들에게서 '중속한이'라는 마음 아픈 소리도 듣곤 했지만, 워낙 타고난 넉살이 있었기에 주변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나이 70 넘은 노스님들은 계(戒)의 구속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일부 전언(傳言)에 의해서 때로는 곡차도 몰래 갖다 드리기도 했었다.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아온 늦깎이 사제에게 모두들 수행자로서의 냉정함 보다는 자식 같고 혈육같은 인간적인 정을 앞세우곤 했다.

그러다보니 다른 스님들보다 사형되는 스님들에게 더욱 더 가족같은 친근감을 표시했다. 때로는 친근함이 지나쳐 출가인이라는 본분을 벗어나 연로한 노인 특유의 투정아닌 투정을 부릴 때도 있었는데 그럴때면 스님들은 농담반 진담반으로 "늦깎이는 할 수 없어"라는 말로 이곳은 엄연한 부처님 도량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그래도 젊어서 만주에서 보냈던 시절을 이야기 해 보라고 하면 신명이 나서 예뻤던 기생 이야기며 일본사람들 이야기를 곧잘 해주곤 하였는데 도중에 눈가에 고인 눈물을 애써 감추려 고개를 돌리곤 했다. 이내 긴 한숨으로 이야기를 끝내고는 "곡차 없습니까"를 연발하곤 하였다.

젊은 시절을 기억하고 상기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엔 즐거움이면서도 나중에는 형언키 어려운 아픔으로 변해버린다는 사실을 붉어진 눈시울을 통해서 느끼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기골이 워낙 장대하고 젊은 사람 못지 않게 힘이 세었는데 발을 헛디뎌 허리를 다치고 나서는 급격히 시력도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주위 스님들 손길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그는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어



그림 · 문병성

린아이처럼 짜증이 늘기 시작하더니 정을 떨려고 작정을 했는지 막무가내일 때도 있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중은 아플 때 가장 외롭고 힘들다. 그 누구하나 일별도 주는 이가 없을 때 더욱 그렇다. 혼자 끙끙 앓다가 일어나야만 한다. 병상의 문을 두드리면 "아이고 죽갔시오". "일 없시요"를 수없이 되뇌이며 긴긴 겨울 밤을 지새웠던 그를 뒤로하고 서울로 올라왔었다. 사형 한 분이 그 곁에 있었지만 뒷날 소식에 의하면 허리가 웬만해지자 정처없이 떠났다고 한다.

"무슨 노인네가 가사 걸치고도 염불 한 번 하는 것을 못보니 절에 와서도 박복한 짓만 한다"고 쌀쌀맞게 쏘아대던 내 모습이 한없이 야속하다. 몇 년을 한솥밥 먹으며 살아 왔는데 떠나올 때 그야말로 절연(絶緣)하듯 떠나왔으니 '인간 못된 것 중된다(?)'는 말이 나를 두고 하는 말 같다. 어릴 때부터 정이 많으면 중노릇 못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기에 얼굴은 애써 평상시 표정인데 눈가에 고이는 눈물은 어쩔 수 없다.

"89년도인가 영천 성모병원에서 김익현 노인이 누구냐고 연락이 왔길래 가보니까 이미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화장을 한 후야. 그래서 제사만 지내줬어." 지리산에 있는 사형에게 연락을 해보니 허연스님은 10여년 전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했다.

담원 석혜경 스님의 들풀 내음 물씬한 사색과 수행이야기!

화제의 신간 절찬리 판매중

약간 삐딱하게 사는 것도 바로 사는 것이다





값 7,000원 / 신국판 / 240쪽

담원 석혜경 스님의 들풀 내음 물씬한 사색과 수행이야기!

올바름, 또는 선(善)하다는 관념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자유롭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절대적이라 믿고 의지하는 신념마저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그 눈이 삶의 깨달음을 주는 지혜의 눈인 것이다.

한세상 후회 없이 살면서 부처님 같이 크게 깨달아 달 그림자 뜨락을 쓸 듯, 자취 없이 적멸(寂滅)에 들 수 있다면 내 인생도 또한 정말 행복한 매무새라 할 것이다.
- 본문 中에서

경인방송 화제의 프로그램
『아침을 여는 선체조』 모음

마음으로 따라하는
무심행 禪체조

값 9,000원/신국판/304쪽
배규원 지음



선체조는 몸과 마음이 질병과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방법을 수련자에게 가르쳐주는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운동법이요 치료법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서 있을 정도의 힘만 있다면 자신의 체력에 알맞은 만큼의 운동량을 받아들여 몸과 마음을 진실되게 만들 수 있다.
선체조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닦아나가는 수련법이다.

화제의 책 절찬리 판매중

하남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302호 / 전화 02)720-3211 · 팩스 02)720-0312 / 홈페이지 · http://www.hnp.co.kr

가람의 장면들 33

강화 정수사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정수사는 작은 사찰임에도 독특한 구조로 암자의 공간적 미학과 윤리학을 잘 나타내고 있다. 보물 161호인 정수사 법당.

민족성산 지키는 소박한 암자

세계 올림픽의 성화를 그리스 올림피아산 정상에서 채화하듯이, 전국 체육대회의 성화는 강화도의 마니산 참성단에서 태양빛을 모아 점화시킨다. 마니산 정상에 있는 참성단은 바로 민족의 기원인 단군을 제사지내는 곳이고, 마니산은 그래서 민족의 성산으로 숭상되어 왔다. 그러나 단군 설화는 한민족이 한반도에 이주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설화였고, 그 공간적 무대는 중앙 아시아나 동북부 중국 쯤이어야 했다. 한반도 중부에 있는 섬에, 그것도 해발 468m밖에 되지 못하는 낮은 산이 어떻게 단군의 성지가 되었을까?

우리 나라에서 4번째로 큰 섬, 그러나 수도권에서 다리 하나로 연결된 가까운 섬, 강화도는 그래서 큰 환란이 있을 때마다 민족의 정통을 지켜준 수호의 섬이었다. 세계 대제국 몽골의 침략에 맞서서 2)여 년을 버텨낸 것도 강화도의 절묘한 힘이었다. 그래서 이 섬은 실제 크기 이상으로 중요한 민족적 상징이 되었고, 마니산의 신화성 역시 그 역사적 결과는 아니었을까?

신화화의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이같은 성산에는 필연코 성스러운 가람이 있어야 한다. 강화도에서 가장 유명하고 규모가 큰 가람은 전등사인데, 그래서 전등사가 마니산을 지키는 가람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전등사는 정족산에 있는 가람이고, 마니산의 가람을 굳이 찾는다면 정수사라는 작은 절이다. 법당 하나와 삼성각, 그리고 요사채가 있는 정도의, 터도 좁고 건물도 작은 그런 사찰이다. 전등사와는 규모 면에서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처럼 작은 가람에도 보물 161호로 지정된 법당 건물이 있다. 세종5년, 그러니까 1423년에 세워졌다. 국내 현존하는 목조건물의 99.9%는 임진왜란 이후에 세워진 것으로, 기껏해야 200~300년 전의 것들이다. 임진란 이전의 건물은 수십 개에 지나지 않아, 정수사 법당은 무척이나 소중한 문화재로, 이 작은 가람의 유구한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왜 '법당'이라 부를까? 보통 가람의 법당들은 대웅전이나 극락전, 관음전 등의 건물 이름이 있고, 문화재 명칭도 그 이름을 따른다. 비단 정수사만 '법당'이라는 일반명사로 부르는 것은 특별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정수사는 규모도 작지만 위치도 마니산 높은 곳, 인가와는 뚝떨어진 곳에 자리잡았다. 큰 절이 아니라 암자가 자리함직한 위치요, 규모의 터다. 암자는 일반적으로 일반 재가신도들의 법회나 불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수행하는 스님들 몇분을 위한 생활터요, 수행처였다. 따라서 규모가 클 필요도, 건물이 많을 필요도 없었다. 암자의 건물들에는 뚜렷한 이름이 없다. 부처님을 모신 집이면 '법당', 스님들의 생활처면 '요사채'라 부르면 그만이다.

아담한 절벽 담장 법당위에 툇마루 짜지붕 구조 독특

그나마 작은 암자에는 법당과 요사채가 하나의 건물 안에 있는 경우도 많다. 건물의 가운데 큰 방에는 부처님을 모셔서 법당 공간으로 사용하고, 양 옆의 방들은 스님들이 기거하는 승방이 된다. 이러한 복합건물들은 서울 근교의 작은 절들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이를 통칭해서 '대방채'라 부르고 있다. 한 건물을 이처럼 복합용도로 쓰는 이유는 분명하다. 땅도 좁고 재정도 없어서 독립된 건물을 지을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스님 몇분이 기거할 암자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하지 않으려는 절제심의 발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당'이라는 명칭으로 미루어보아 정수사는 재가신도 대상의 절이기보다는 수행 중심의 암자 성격이 강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마니산 정상에 오르는 중요한 교통로에 있기 때문에 보통 암자보다는 여러 가지 형편이 넉넉했을 것이다. 정교하게 지어진 법당 건물이 그 여력의 증거다. 그러나 보시가 많다고 해서 사치하지는 않았다. 법당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4칸의 자그마한 건물인데, 정면에는 툇마루를 만들었으니 내부는 더욱 좁다. 법당 건물에 툇마루를 놓은 것은 안동 개목사 원통전을 포함해 전국에 두 곳 뿐이다. 법당 앞에 툇마루는 법당의 이미지를 소박하게 만든다. 장엄을 뽐내야할 큰 절의 법당에는 있을 수 없는, 서민적 공간요소다.

법당 앞에는 작은 마당이 있는데, 마당 끝은 측대와 자연 절벽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서쪽 경계를 이루는 높지 않은 절벽은 장엄하기보다 아담하며, 웅장하기보다 친근하다. 마치 암석으로 만든 건물이나 담장과 같다. 서민적 형식의 법당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절벽이며 바위이다. 이 절벽(바위) 위에서 법당과 마당을 내려다보는 경치도 일품이다. 어찌면 이렇게 건물과 마당이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런데 법당 건물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내 곧 이상한 모습이 눈에 띈다. 건물 지붕의 앞면이 뒷면보다 긴, 짝지붕인 것이다. 지붕의 용마루(앞면과 뒷면이 만나는 가장 높은 부분)가 건물의 중심에 놓인 것이 아니라, 법당 내부공간의 중심에 놓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4칸의 길이 가운데, 앞 1칸은 툇마루가 있는 개방공간이며, 뒤의 3칸이 법당 내부인데, 용마루는 바로 뒤 3칸의 중앙에 놓였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위용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건물 전체의 중앙에 놓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이 건물은 바깥의 위용보다는 내부 공간의 분위기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겉모양보다 내실을, 형식보다 핵심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던 암자의 공간적 미학이요 윤리학인 셈이다.

종교간 대화 '화두풀기' 활발

불교 NGO 불자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정신문화의 상징인 종교가 인류화합과 평화를 위한 창조적 대안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일까.

8월2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천여명의 세계 각국 종교·영성지도자들이 종파를 초월해 인류평화를 논의하는 '밀레니엄 종교·영성지도자 세계평화정상회의'를 연 것은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종교지도자들은 지구촌 분쟁해소 및 이를 위한 용서와 화해, 빈곤구제, 환경보존 등 4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뒤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생명존중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관용과 비폭력을 위한 사명'이란 유엔평화선언에 서명했다.

이런 국제적인 노력은 세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환경위기 극복 등 지속가능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세계질서 구축을 위한 초종교적 협력의 강화와 이를 위한 교단의 자체 개혁이 필요하다는 종교NGO들의 일관된 주장에서 나온 것이다.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국제기구로서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와 종교연합선도기구(URI)가 국내에서는 KCRP와 URI Korea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종교간 대화문화의 고양을 위해 크리스챤아카데미가 대화문화아카데미로 확대개편 되어 오는 26~30일 '밀레니엄 2000 종교청년 평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종교간 이해의 마당이 넓어지고 있다. 불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등 전통 종교의 종교NGO들은 범종교적 상생정신으로 종교화합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종교NGO들은 이와함께 종교 화합과 대비되는 교단개혁을 '교단을 그 종교의 가르침에 맞게 변화시켜 가는 운동'으로 정의하고 교단의 발전을 위한 '쓴 소리'도 아끼지 않고 있다.

'불교 바로세우기 재가연대', '교회갱신을 위한 실천연대',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새시대를 여는 목회자 모임' 등 종교NGO들은 '종단 개혁', '교회 쇄신'(가톨릭), '교회 갱신'을 외치며 기성교단의 자정과 쇄신을 위한 교단 개혁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사회적 위상 강화만을 염두에 둔 물량주의적 사회참여,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교단의 운영, 시민사회의 진전을 저해하는 종교적 맹신행위, 종교내부의 자본과 권력의 메카니즘을 혁파하는 일들을 종교NGO가 개선해 가지 않는다면 종교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지난 8월28일 '아셈 2000 민간단체 포럼 종교분과'가 서울 수운회관에서 '종교간의 대화와 관용의 실현을 위한 한국종교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세가지 주제로 개최한 워크숍은 최근 종교NGO들의 화두가 되고 있는 '교단 개혁과 종교간의 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 토론회였다.

이날 '각 종단의 쇄신을 위한 종교NGO의 역할과 과제'를 발표한 정웅기 재가연대 시민사회국장은 "최근의 교단개혁운동은 대개 교단내부에서보다는 사회변혁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교단내부로 시선을 돌리면서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분석하고, "교단개혁운동은 교단 자체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더불어 사회 회향(참여)이란 사회성을 띠어야 대중화에 성공한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앎과 실천이 유리된 잘못된 교단내 풍토를 개선해 지행일치가 되는 교단사회를 만드는 것이 종교NGO의 목적이라면, 이웃 종교와의 대화와 협력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면서 중앙집중 폐해의 극복과 지역(사찰)단위의 역량 강화, 출재가의 올바른 관계 정립, 사찰 재정 투명화, 재가불자들의 종단운영 참여, 신도교육 강화 및 조직화, 불교 자주권 확립 등을 종단개혁의 주요 과제로 지적했다.

'종교간 대화와 관용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한 제3시대 그리스도연구소 상임대표 최형묵 목사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하에서 고통받는 민중위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협력, 시민사회적 보편 가치 신장을 위한 협력, 남북의 통일과 화해를 위한 종교간 협력과 학술적 대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종교간의 대화와 화해' 필요성은 그간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개신교 목사의 단군상 및 불상 훼손사건 등 종교간 갈등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쉼없이 벌어지는 종교전쟁 등에서 비롯되었으며, 교단개혁은 잇따른 조계종 분규와 일부 교회의 세습, 천주교 교단의 권위주의 등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8월28일 '아셈 2000 민간단체포럼 종교분과'가 서울 수운회관에서 개최한 워크숍. 최근 종교NGO들의 화두가 되고 있는 '교단 개혁과 종교간의 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KCRP 26~30일 종교청년 평화축제
종파초월 달라이 라마 환영행사 준비
종단운영 투명화 등 내부개혁 운동도

이와 관련 19일 오후2시 서울 종로 5가 연강홀에서 발족식을 갖는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가톨릭 김수환 추기경, 개신교 강원룡 목사를 상임고문에 추대하는 것을 비롯 원불교 천도교 유교 KCRP 대표 등 주요종단 대표를 고문에, 각 종교별 지도급 인사 200여명을 지도위원에, 각 종교·시민단체 대표 10여명을 공동대표에 선임하는등 범종교적인 환영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종교 화합 분위기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아봐타 코스
〈뜻대로 사는 길〉
苦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 화엄경 4구게 -
아봐타는 자신의 마음(신념)이 삶에서 경험하는 상황 및 사건들을 창조하거나 끌어당긴다는 단순한 진리를 토대로 한 매우 강력하며 빠른 효과를 가져 오는 코스(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전세계 64개국에서 안내되고 있으며 현대 불교, 선(禪)의 공학, 새로운 인간 존재의 탐사기법 등등으로 불려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를 경험하신 많은 스님과 불자님의 성원에 힘입어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 봉인사에서 아봐타 코스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스는 국내외에서 많은 코스 안내 경험이 있는 慧元, 해산, 적경 스님 등 많은 아봐타 마스터들이 동참하여 코스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게 되는 훌륭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땅의 수행자들을 초대합니다.
▶주 최 : 봉인사
▶홈페이지 : http://soback.kornet21.net/~bonginsa
▶기 간 : 2000년 9월 16일 ~ 24일 (8박 9일)
▶참 가 비 : 180만원(숙식제공)
▶신 청 : 봉인사 한길정진원
T.(031)574-5585/529-5585 F.031)574-0808
봉인사 한길 정진원 합장

지장보살님을 모십니다

◆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이유
불사하시면서 어려운 스님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조성해 드립니다.
불사를 하시고 싶으셔도 여력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불사에 맞추어 조성해드리며 뜻이 있으신 스님 및 재가불자님의 연락 바랍니다.
◆ 금주산 약수물로 만든 약수 된장
병원에서 시한부 삶의 선고를 받은 한 보살이 금용사에 기도를 드리러 왔다. 기도드리는 중에 부처님께서 소금 10가마니, 메주10가마니, 큰통 10개를 주시면서 만인들에게 먹이도록 말씀하시면서 가셨다.
그후 병은 모두 다 낳았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된장을 만들어 보급하게 되었다. (택배가능)
금 용 사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산25-8
TEL:031)533-4405 FAX:031)532-3444

바로보인 환단고기

시공이 나뉘기 이전인 태초의 모습과 우주 탄생의 비밀을 최초로 밝히다!
『환단고기』는 세계를 다스린 웅장한 고대사의 주인이었던 우리의 고대 역사가 담겨 있는 역사책이다. 또한 역사책이라고는 하나 태초로부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한 책이다.
이를 통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광활한 민족사를 찾고 황폐해진 인류정신을 다시 꽃피우고자 하는 것이 『환단고기』를 오늘에 맞게끔 되살려 『바로보인 환단고기』로 펴내는 뜻이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4권 중 1권은 민족정신의 정수이자 우주의 영원한 역사인 『환단고기』의 삼신일체사상을 총정리하여 출간하였다. 이어서 2, 3권에 환국에서 단군조선에 이르는 고대 역사와 북부여, 고구려, 발해, 고려의 역사를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대순으로 정리하여 출간할 예정이며, 4권에서는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글을 실어 출간할 예정이다.
특히 2, 3권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여러 역사 문헌을 근거하여 『환단고기』의 기록을 부인할 수 없게끔 최선을 다하였다.
『환단고기』가 전하는 선조의 지혜에 가만히 귀기울여 보라.
정신과 물질이 나뉘기 전 우주의 모습과 인류 정신의 시조였던 조상의 진면목에서 태초로부터 고대가 오늘에 살아 숨쉬는 당신의 실존을 확인할 것이다.
☞ 바로보인의 책들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벽암록 / 영원한 현실
바로보인 천부경 / 세월을 복채로 세상을 복삼아
바로보인
○ http://www.zenparadise.com ☎ 597-2460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현대불교신문사
지사 · 지국 안내
부산지사 051) 634-5114
광주지사 062) 375-9986
대구지사 053) 983-9222
충청지사 042) 527-0559
울산지사 052) 257-7737
강릉지사 033) 643-5577
제주지사 016) 695-6885
진주지사 016) 585-2120
안산지국 031) 494-8859
영주지국 054) 674-1199
목포지국 061) 279-3788
밀양지국 055) 353-1196
고성지국 055) 672-0078
일본지사 031) 713-5111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생사 놓고 넘어설 때 피안에 도달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를 하게 된 그 세월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오래되지 않았다고 해도 되고 오래됐다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세월 아닌 세월이 이렇게 가는 동안 누구나가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똑같이 알 수는 없지만, 또 똑같이 차원이 높아지지는 않지만, 사회에 나가서든가 또는 가정에서라든가 자식을 기르는 데서라든가, 자기가 해 나가는 소임에 따라서 모든 걸 대치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돼야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또 세상도 좋아질 테고, 자손들도 대대손손이 좋아질 테고 여러 가지로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공덕을 쌓으실 겁니다.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

우리가 지금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잘되자고만 빌러 다녀서는 안됩니다. 잘되는 게 있어야 못되는 게 있고 못되는 게 있어야 잘되는 게 있는 까닭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만 있어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낮은 곳에서만 있어서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반이렇게 걸쳐놓고 교차로를 넘나들면서 고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저 나는 한마음선원에 그냥 다닌다, 이런 정도로만 하신다면 내가 섭섭하죠. 얼마나 섭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생을 두고 거듭거듭 태어나면서 마음 졸이고 모든 것을 버려서, 이렇게 고구마 같고, 난장이 같고, 또 하나도 보잘 것 없이 못난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었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 사람은 잘나게 태어날 수도 없고 믓나게 태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진해서 못나게 태어난 것도 재주덩어리 아닐까요? 허허허….

그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진리도 하나요, 부처님 법도 하나니까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로 보면 여기 여러분 수만 명이 다 깨우친다 하더라도 일불(一佛)이며, 일법(一法)이며 바로 차이없는 도리를 알게 된 둥근 원리입니다. 이런 고로 우리가 좀더 생각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생각해서, 일을 할 때에나 잠을 잘 때에나, 또는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나 항상 자기 뿌리를 잊지 않을 것을 자기 뿌리에 맹세하는 반면에 자기 짝은 열심히 뛰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죠? 부처님이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할 테니 너는 뛰어라' 이랬다구요.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하고 가시는데요, 여러분은 패기가 없어요. 과감히 뛰어넘을 줄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더 있다 죽으나 덜 있다 죽으나, 이따 죽으나 또 먼저 죽으나 죽는 것은 한 번, 똑같이 죽어요. 하늘이 무너져도요.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뛰어넘질 못합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인데 말입니다. 죽으나 사나 뛰는 마음 자체가 바로 피안으로 넘어서는 그런 도리입니다. 한생, 한생을 이렇게 살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쩌나, 저렇게 하면 어쩌나' 하기 때문에 넘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사적으로 이걸 해야 한다는 거, 결사적으로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 왜 그런가? 여러분 가정 가정이 소임을 다 따로 따로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직이면 교직, 회사면 회사, 장사면 장사 이렇게 제가끔들 다 가지고 있는 소임에 따라서 내가 자꾸 터득을 하면 그게 개척이고, 그게 계발이고, 그게 바로 나를 내가 승화시키는 길입니다. 억지로 높은 자리를 뺏어서 올라갈 양으로 애쓸 필요없이, 자기가 맡은 소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대로 해 나가셔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마음의 발전을 말합니다. 마음의 발전이 되면은 스스로 행도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발전하게 되면은 바로 여러 사람들에게 다 좋은 일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 천차만별의 소임이 다 발전한다면 그 뒤에 발전을 못 하고 가는 사람들도 덩달아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면서 나간다고 해봅시다. 그 연구진들이 제가끔들 연구를 해서 질문을 하고, 또 연구 결과가 이 세상에서 보람있는 연구가 된다면, 개개인의 연구지만,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열 가지를 연구했다면 그 열 가지 연구한 걸로 인해서 이 세계가 다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름이 종교지 인간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면, 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미래에 모두 공덕이 될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공생(共生)이면서, 공체(共體)면서, 공심(共心)이면서, 공용(共用)이면서 공식화(共食化)하고 이 세상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조그만 거든 큰 거든 한 번씩은 다 돼 봤다고 생각합니다. 돼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겠습니까? 계단을 하나 하나 딛고 올라오지, 그냥 거기서 날아 올라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림 · 최주현

우리 없이는 보살도 부처도 없어

마음 발전되면 스스로 행도 발전

세상을 다 살리는 공부

누구나가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딛고 올라오셨을 겁니다. 이렇게 모두 첨단의 위치까지 다 그냥 한 발 한 발 딛고 넘어왔단 얘깁니다.

이렇게 걸음 걸으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고등동물로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만 이 진짜 사람으로서 모든 일체 만물을 다 먹일 수가 있고 되남게 할 수 있는가? 이 소리가 "떡 하나를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다 먹이고도 떡 하나가 되남더라." 하는 소리거든요.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마는 모두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실천을 하는 데는 유(有)의 법이나 무(無)의 법이나 똑같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똑같이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어야만이 그게 아주 옳은 법이라고 봅니다. 그게 실천이 되려면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이 세상을 다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을 길러도 그냥 우뚝 올라오는 게 있죠. 그렇듯이 자라지 않았든 자랐든 또 더 자랐든, 더 자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라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라지 않은 사람 때문에 더 자란 사람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공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평등공법(平等空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귀중한 도리가 현재 우리 삶에 이렇게 닥쳐 있는데도 우리가 그냥 무심하게 돌아간다면, 나중에 얼마나 손해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무우종자면 무우 종자, 즉 배추 종자면 배추 종자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종자! 그거를 불가(佛家)에서는 종성(種性)이라고도 하고 또 불성(佛性)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그 불성이 말입니다. 그 똑같은 불성에서 모습이 어떻게 모두 달라지게 나왔을까요? 그것은 모습이 모두 달라야만이 모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는 살 수 없죠, 하나로서는.

내 불성은 다 갖춰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앉으나 서나 누우나 자나 깨나 오직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뭔가, 그거 하나를 가지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나갑니다. 여러분은 저하고 이렇게 같은 자리를 하면서 세월 아닌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렵풋이라도 짐작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서 특출나게,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그 발전하지 못한 차원에까지 미치게 함으로써 모두 살게끔 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실천적이고 현실적으로 유용하겠습니까? 그래서 화엄경에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현실의 모든 게 보살이 현실 그대로 나투어서 있는 것이니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없고는 보살도 없고 부처도 없고 다 없어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상 신기할 것도 없고 뭐 대단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정말이지 첨단을 넘어설 수 있고, 실천을 할 수 있고, 현실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연구를 해서 차원이 높아졌다고 '나는 이만큼 높으니까' 하고 아만과 아상을 갖지 마시구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떡 하나로 만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먹인다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만으로 떡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떡을 만들어서 다 먹인다고 자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아시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로 알게 되면 눈물 날 일이요, 뼈가 아플 일입니다. 그 사람네들이 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내 몸이 가루가 돼서 뿌려져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음…, 하여튼 여러분께서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한층 더,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내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유야무야 하지 마시고,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고 그대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대장부가 되는 길입니다.

난 이렇게 말을 하고도요, 만날 다 말한 것 같지를 않아요. 뭔가 또 있고 뭔가 또 남아 있구요. 그것을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이 세상만사를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러니 오늘부터는 서로 토론을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곧장 부산으로 가는데 주변 경치도 좀 구경을 못 하고 쭉 간다고 합시다. 그럼 쭉 갔다 그냥 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죠, 급하게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는 길 주변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심어져 있는데, 누가 추수를 다 허들여서 다 나눠 먹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 거를 다 알려면 우리가 서로 토론이 필요합니다. '해주시오' 하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해주시오'는 아직까지 자기 뿌리를 못 믿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코 자기를 버려서 자기 뿌리를 믿는다면 그런 게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도중에 '아! 이렇게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만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절실히 체험을 하고 가겠구나! 이렇게 하면 참선이니 좌선이니 뭐, 이런 걸 따지지 않겠구나!' 하는 것이 알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가 부르려면 그저 닥치는 대로 잡수실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배가 고프다고 날더러 자꾸 먹게 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따로이 한마디 하겠는데, 내가 먹어서 여러분의 배가 부를 순 없지만 급할 때는 언제나 내가 여러분과 하나로 (양 손바닥을 서로 붙여보이시고) 돼 드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하나가 그릇된 거면 나가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것을 모두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조절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좀더 빨리빨리 크시란 얘기죠. 그러니 이게 그냥 말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알고 보고 듣고, 자기가 현실에 이렇게 하고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책입니다.

주머니 속 대장경

101 - 교리 · 입문편	102 - 교리 · 입문편	201 - 생활불교편	202 - 생활불교편	301 - 선(禪)편	302 - 선(禪)편	303 - 선(禪)편	401 - 문학편	501 - 문학 · 학술편	502 - 문학 · 학술편
20C의 창조자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기반은 '불교'였다.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표리를 푼다.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성전 '菩提道次第'	'게을'을 통해 참된 불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일깨워 준다.	허운(虛雲)화상의 참선 수행 요결	깨달음 자체보다는 어떻게 궁극에 도달할 것인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한글 세대를 향한 선(禪)불교 강의	조선 시대 선사 44인의 선시 모음집	모든 중생에겐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황폐한 우리의 교육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천상천하유아독존'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법수로 배우는 불교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재가 불자를 위한 게을 강좌	참선요지 (參禪要旨)	방편개시 (方便開示)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허공의 딸꾹질	불성이란 무엇인가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루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B6 변형 242쪽 / 값 5,500원	이제열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조웰 스님 편역, B6 변형 178쪽, 값 4,000원	혜능 스님 엮음, B6 변형 330쪽, 값 5,500원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醒) 스님 옮김, B6 변형 278쪽 / 값 5,500원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醒) 스님 옮김, B6 변형 278쪽 / 값 5,500원	한형조 지음, B6 변형 336쪽, 값 6,000원	이중찬 지음, B6 변형 282쪽, 값 5,000원	전치수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김종서 지음, B6 변형 182쪽, 값 4,500원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행·주·좌·와 어디도 걸림없어야 참선

☞ 15면에서 계속

나갈 때 그건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것을 알고선 하루는 땅을 치고 울고, 하루는 하늘을 쳐다보고 울었답니다. "내 불성이 있는 줄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고 말입니다. 내 불성이 이렇게 여여하게 하는 줄 몰랐다는 거죠. "내 불성이 여러 가지로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찌 알았으랴!" 하고 말입니다. "내 불성이 갖추어진 거를, 들이고 내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거를 어찌 이렇게 알았으리까!" 하고 땅을 치고 운 거죠. 여러분이 한 생을 걸어가면서 그 뜻을 맛보신다면 이 세상을 다 준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준대도 그냥 묵묵히. 다 안 준대도 묵묵히, 내가 금방 죽는대도 묵묵히,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묵묵히…,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이,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것이 무슨 까닭에 그렇게 '묵묵히'일까요. 그게 신기한 겁니다, 아주.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전에 달마대사가 왜 얼굴에 털이 없느냐고 했죠? 그런데 털이 없는 것이 실체입니까? 털이 있는 것이 실체입니까?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털이 없다는데, 털이 없는 것이 실체입니까? 털이 있는 것이 실체입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베죽하게 올라간다고 그래도 평등한 거니까요. 절대로 다른 생각 말고 대답해 보세요. 그냥 토론이에요, 이것도. 어때요? 남들은 뭐 거창하게 주장자를 들고 온통 야단법석을 하지만요. 아, 주장자들은 모두 가죽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왜 무겁게 바깥으로만 들고 다닙니까? 안 그래요? 염주도 이 끝없는 진리를 표현한 거지, 업보를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끝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업보도 짓고 이러는 거죠. 그걸 표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털이 있는 것이 실체입니까? 털이 없는 것이 실체입니까?

내 한생각 내는게 곧 법

신도1: 털이 없는 것이 실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스님: 그러면 또 딴 분은요?

신도2: 그거는 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스님: 그러면 털하고 상관이 없으면 털 없는 거는요? 털 없는 건요?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까?

신도3: 털이 없어도 무(無)요, 털이 있어도 무입니다. 털이 있어도 공(空)이요, 털이 없어도 공입니다.

스님: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한마디 해보십시오. 이것도 무효고 이것도 무효라면 무엇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도3: 털이 있어도 실체요, 털이 없어도 실체입니다.

스님: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뭐라구요? 허허허…. (대중 웃음)

신도4: 불성!

스님: 아, 여기 불성 모르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신도5: 양쪽을 다 쉬어야 됩니다.

스님: 또 없습니까? 하여튼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되면 스스로 여기서 나오죠 샘물이 정수에서 스스로 나와서 스스로 물 퍼먹다 보면 그게 스스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그 말을 한다면 또 그걸 흉내를 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말을 못하죠, 실천을 못하면서 말의 흉내만 낸다면 그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말이죠.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는 잘 압니다. 그래서 말과 뜻과 행이 자기를 다 표현해서 내놓는다 이런 말이 있죠. 자기의 차원을 다 드러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차원이 높습니다. 차원이 높기는 하지만 왜, 계란이 알이 되긴 됐는데요, 눈이 '없다면 그건 무효죠. 그거와 같습니다. 어때요? 하하하…. 그 말만 하고 진짜 말을 못하는 심정도 여러분이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문하십시오. 가끔들 이렇게 한마디씩 해보는 데 대해서 너무도 획기적이고 좋은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한 번 생각해 보는 점이 있거든요.

질문1: 큰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 마음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은 한 4년여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공부를 했으면 그래도 남을 떠먹여 주지는 못할망정, 제 스스로는 떠먹을 수 있어야 할 텐데, 제 앞가림도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나름대로 공부해 온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의 생활에 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저는 첫째, 이 마음공부를 하고 나서부터는 설령 몸이 아프더라도 병원이나 약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인공 자리에 맡겨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의식적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다 한두 가지씩은 공부의 재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도 한 10여 년 전부터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는 병원에 다니고 했습니다마는 이 공부한 후로는 계속 나름대로 열심히 관(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태가 심할 때는 정말로 저를 성가시게 하고 생활에 불편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만이 네가 주인공 반야줄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갈 게 아니냐, 이러한 가르침으로 알고 저 나름대로 놓고 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어디까지가 약이고 어디까지가 약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좀 심할 때는 소금물이라도 좀 써 보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이것까지도 마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른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하기 전에는 술 마실 일이 생겨도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에 술 마시기가 좀 꺼려졌는데요, 이 공부한 이후로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술 마실 인연이 다가와도 일부러 피하지 않고, '꼭 먹지 말아야 한다면 당신이 안 먹게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냥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에 어떤 이상증세가 나타나도 이 공부하기 전에는 '혹시나 어떤 큰 병에 걸린 게 아닌가' 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아야 되고 불안한 생각도 들었는데, 이 공부를 하고 난 후에는 '건강문제를 다 맡겼다면 당신이 다 알아서 할 것이 아닌가' 하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특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귀담아 들리지 않고 건강문제를 다 맡겼다면 다 알아서 할 것 아닌가 하고 일부러 제가 뭘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몸이 불어서 배가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배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식생활도 바꾸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 다 맡겼으니 알아서 할 것 아닌가 하고 그냥 살아가야 하는 건지 큰스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스님: 사람이 살아나가려면 천차만별의 용도를 다 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아심을 가지고 이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다, 이것은 부처님 법이다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공부하는 중에 번연히 알면서도 '네가 진짜 있다면 나와 봐'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몸이 아플 때 약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밥도 약이니까요. 그러니까 걸리지 말고 그대로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정히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것도 법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꼭 소금을 썼으면 좋겠다, 이럴 때 그것도 법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자성(自性)의 법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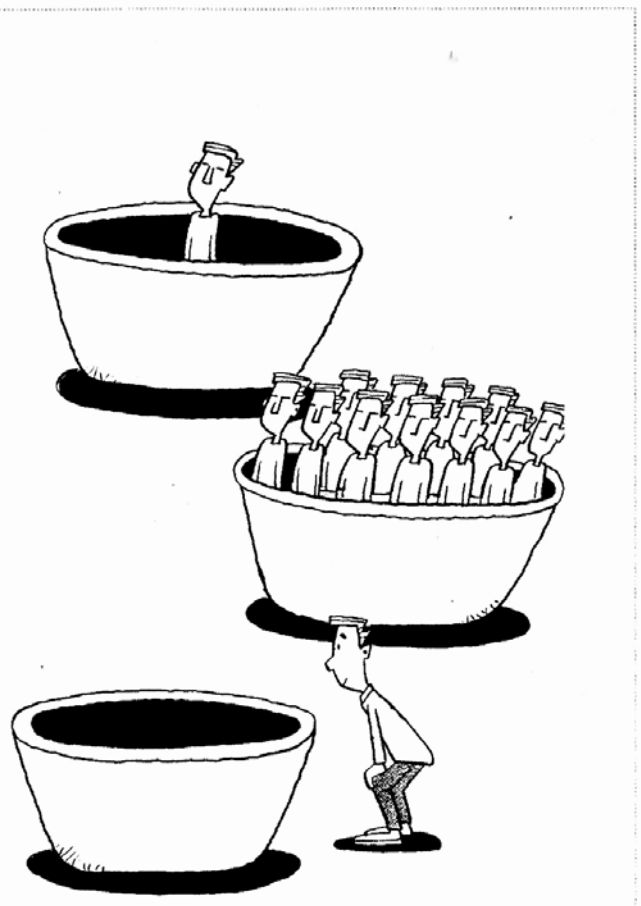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달마대사 수염이 있는가 없는가

있고 없고를 떠나 그 가운데서

스스로 알아낸 한마디를 해보라

여여하게 계신 부처님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법이다', '저것이 진짜 법이다' 이런 게 없이 내가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하고 생각할 때 그게 진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 그걸 의식적으로 그러지 말고요. '이것도 그놈의 법이고, 그것도 그놈의 법이고, 저것도 그놈의 법이니까 그놈이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그 안에서 모두 생명들이 다 작용을 하겠지.' 하곤 그냥 보세요. 그래서 그놈들이 알아들으면 '허, 아무리 해도 저놈은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니까 그냥 해주자' 이러고 그냥 할 겁니다, 아마.

6·25 때 당해보신 분들이 여기도 계실 거예요. 6·25 때 의사가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아주 몽땅 다 없을 때에 급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갔겠습니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지구가 구멍이 나서 뭐 어떻게 된다 한다면 컴퓨터를 지고 다닐 겁니까? 또 컴퓨터가 아무리 잘 보여 준다 하더라도 컴퓨터를 지고 다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할 겁니다, 다 끊어져서. 또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놈의 거 보기만 하면 뭘 합니까? 대치를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급할 때 극한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들 생각하시고 열심히들 하십시오.

질문2: 스님, 반갑습니다. 울산지원에서 왔습니다. 어제 울산지원 법형제분들께서 금왕지원에 가서 철야정진을 하는데 동참했습니다. 공부함에 있어 제가 즐겨 읽는 시 한 구절 의위드리고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주인공을 놓칠 때마다 맨 마지막에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는 구절을 자주 읊고 제 마음자리를 지켜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좌선을 거의 1시간 가까이 하고 있고 또 주인공 자리, 그 에너지요 보이지 않는 그 여여한 자리에다가 항상 맡기고 놓치지 않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우님들이나 스님께 말씀드리면 그것도 또한 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큰스님께서 제 마음자리를 심안으로 보셔서 그것이 정말 착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전혀 개의치 않고 누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그냥 여여하게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착이니 어쩌니 하는데, 정말 제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상통

스님: 아까 그 시를 읊으시는데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고 했죠? 글쎄요, 그것을 그냥 간략하게 얼른 힌트를 알려줄 양으로 저 나무 뿌리를 항상 방편으로 말을 합니다. "일체 만물만생의 그 나무들은 자기 뿌리를 자기가 가지고도 자기 뿌리를 못 보고, 남의 나무 큰 것만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요. 그런데 자기 뿌리가 없다면 지금 댁은 말도 못할 뿐더러 송장이에요, 그냥. 송장인데도 불구하고 살아 있는 이유는 바로 자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이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허허허…. 그거를요, 개의치 마시고, 또 개의치 않는다는 것도 아니죠, 이게 관하는데 올바로 직선으로 들어가는 길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뭣고?' 하고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남의 말도 들어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나, 잘됐나 선생님이 잘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군요.

그리구요, 1시간씩 좌선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좌선 자리가 따로 없어요. 행선도 참선이요, 섰어도 참선이요, 앉았어도 참선이요, 일을 해도 참선이요, 누워서 자도 참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걸림이 없어라' 하는 뜻이죠. 어느 거 하나 걸림이 없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다, 이런 거죠. 관법(觀法)이 직선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만날 앉았어도 헛앉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0분이나 30분 동안 앉아서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어!' 하고 관하라는 겁니다.

질문3: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지원 청년회 법우입니다. 제가 대구지원에 나오게 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대행스님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약 한 8년 전 어떤 책을 통해서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대행스님을 마음 속으로 굉장히 존경해 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매스컴을 통해 가끔 소식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근에는 인연이 되어서 그런지 꼭 스님을 뵙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침내 대행스님을 뵙게 된 데 대해 굉장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모든 세상만물은, 나부터도 그렇지만 주인공 즉, 근본에서 나와서 근본으로 돌아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나도 중생이고 모든 것이 중생들인데, 중생들은 삼계(三界) 에서 항상 윤회를 할 수밖에 없다. 즉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을 하지 않으면 더 죄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위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의식이 진화될 수는 있어도 여전히 삼계를 윤회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어 성불을 해야 대자유를 얻고, 쉽게 말하면 삼계를 벗어나서 성불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의식이라는 그 자체가 업을 통하여 진화가 계속돼서 마침내 인간이 됐는데 인간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드디어 성불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오지 않았느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드디어 부처님이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가는 곳은, 근본자리로 만약에 되돌아간다 하면,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 자체가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또 삼계가 아닌 딴 세계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세계에 머무는 건지, 그런 분들이 만약에 윤회를 하지 않고 없어져 버린다면 자유롭게 다시 삼계의 인간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스님: 허허허…. 삼계에 머물러 있는지 또 돌아올지 그거를 말하는 겁니까?

질문3: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인간들은 육체를 벗게 되면 의식 자체로 남아서 계속 윤회한다고 하는데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그러한 것이 완전히 근본으로 돌아가면 나라는 이 의식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스님: 이거 보세요. 삼천 년 전에 계셨던 부처님 그분이 바로 여기들 이렇게 전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풀 한 포기만 있어도 부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 도리를 알려면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3: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럼 개체화된 나 자신은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스님: 부처님의 그 마음은요, 원자와 같아서 그 속에서 입자가 나오는데 일체 만물만생이 다 입자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가 입자 아님이 없고 자기 몸 아님이 없고 자기 생명 아님이 없으니까 뭐, 죽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태어났다는 것도 없고, 또 죽었다는 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치밀히 해보시면 그 차원을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질문3: 원래의 근본자리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이라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의식 자체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든가 아니면 약간 높은 차원의 세계로 가든가, 나라는 그 자체를 구성한 여러 덩어리로서 남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체를 이해하려니까 힘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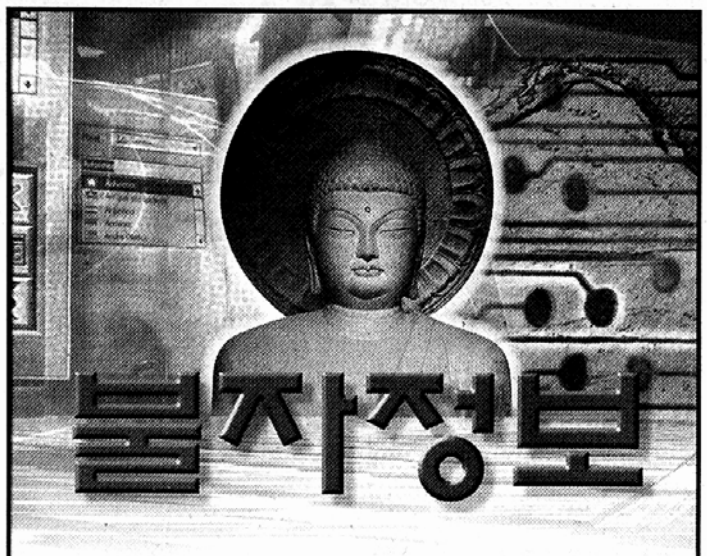
스님: 그거는요, 이 정신세계의 문제니까, 이 마음 없는 마음의 그 세계에서 본다면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삼천 년 전 아니라 언제라도, 미래와 현재와 과거하고도 이렇게 상통이 되고 일체가 다 하나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합쳐지고 펼쳐지고, 자유자재하죠. 댁이 부처님을 놓고 '깨달은 분들은 실체가 어떠한가? 그 의식이 있나 없나? 그분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도 있나?' 그러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지금 댁이 말하는 그 순간, 이 세상은 모두가 고정됨이 없어서 어느 것이 어떻게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할 수도 없이 그냥 찰나 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누가 어떻다, 있다 없다, 과거다 미래다 현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찰나생활이기 때문에, 삼계가 그냥 돌아가니까, 하여튼 아침부터 이렇게 앉아서 설법 듣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 인내력을 기르는 거니까 '아이고, 내가 몇 시간씩 앉아서 이렇게 하루 생활을 버렸으니…,'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것도 내 몸을 바로 금강옷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허허허…. 금 강옷 있죠? (합장하시면서) 그럼 여러분 제가 일어나도 괜찮겠습니까? 허허허….

※위 법문은 1996년 7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끔은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강좌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신입생 3600명 모집 (53기)
- 9월 28일까지 (주간, 야간반)
◆7층 7보탑 낙성식
- 9월 20일 (1인 원불 접수중)
◆행자 모집 (행자원 2기)
- 선착순 10명
- 노동아닌 교육위주
- 신사고, 개혁불교의 산실(남 · 여)
◆통신과정, 인터넷 과정 모집중
(www.TVbuddha.co.kr)
053)474-8228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주지 우학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저자

견성체험지도 책 · 테프 판매!!
■내용 ; 마음을 보아(견성) 질병/죽음/윤회/잡념/번뇌/습관/비만/금연/금주/잡재의식과 현재의식의 갈등/외로움, 불안, 우울, 시기, 질투등의 감정/학습력/운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 공부
■위치 ; 통합병원
박민수 참선 교육원 02)2061-2356
http://min soo zen.pe.kr 017)609-9068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 내려온 비술
▶ 손하나만으로도 몇년전, 몇월, 몇일의 운세 점검 몇년후, 몇십년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내림굿을 받았어도 점괘가 시원치 않는 분
인연있는 분에게 전수합니다
02)918-5554 / 017)317-1597

전통범패 불교의식 모집
◈기초반, 중급반
◈강의내용 : 예불, 아침쇳송, 저녁쇳송, 상단축원, 중단작법 태공, 도량석, 도량게, 복청게, 천수바라 태징 찍는법, 북치는 법, 관음의식, 현자게 개인지도 가능
031)865-4893
011)661-9119

2000년 초발심 불자교육을 위한 (3개월 과정)
원효정사 불교문화대학 제3기생 모집안내
1. 교육대상 불교공부를 하고자하는 모든분(초심자 환영)
2. 개강 : 2000년 9월 19일(화) 오후2시 지도법사 :세정스님
3. 모집방법 및 전형
4. 원서교부 및 접수
▶개강식 : 2000년 9월 19일 오후2시
▶본 문화대학 사무국
▶T. 02)744-3413~4 F. 744-9686
▶입학금 : 7만원 3개월 수강료 교재비 포함
공통내용
초급반
▶각기초교리전반, 사원예절, 사경, 기도하는법
▶초심자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실시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2시~4시
▶모집인원 소수 정예반(30명)
▶입학원서(본회양식) 명함판사진2장
▶특전 : 본과정 수료후 수료증 수계증 수여
원효정사 불교문화대학

구인구직

신심있는 공양주 구함
(45~60세)
창녕 청년사
055)521-2315
011)592-0071

배우자를 찾습니다
■나이 28~32(여)
■절에 있을 분
■평생사업하실 분
054)261-3764

후좌선
승납 5년이상 45세 미만인자
상좌로 계승할
인연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바로 명의이전가능)
043)537-4070
- 노스님-

비구니 부전 스님 모십니다 (50대)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배우자를 구합니다
■나이 35세이상
불심이 돈독한 여성
■남자나이 : 47세
■경주 최씨 대구 거주
■직업 : 공예사
■특징 : 재력이 안정되어 있음
011)508-1234

조용한 사찰에 기도하면서 같이 지낼분 연락바랍니다
052)254-2427
011)562-5556

신심있는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행당동)
02)2234-2198

탈 종 공 고
정토종 총무원장 법하
◇법 명 : 해명
◇사 찰 명 : 서울 은평구 녹번동 (천수암)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0. 9.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대체의학 체험교실 회원모집
(성인병 예방과 치유)
비만 · 당뇨 · 관절염 · 만성피로
위염 · 간염 · 고혈압 · 정력쇠퇴
· 2000년 9~12월(월 · 금 오후2시)
· 장소:연화사(시흥대로 한양아파트 앞)
02)809-4542/011)232-8275

(제주도) 중문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찰부지, 토굴부지, 별장지, 콘도부지, 연수원부지, 요양원부지, 과수원 기타 사실분, 파실분 환영
· 급매물 중문관광단지 입구 대지 340평 지하 1층 자상2층 가든 및 민박 최고 요지
064)738-7497~8
011)697-7496

보이산차
벽돌전차, 육보차
칠지병차 소타차
고산 오룡차 철관음
※ **도매가 판매** ※
전화주시면 견본보내드립니다.
02)911-6798
017)406-6682
茶道里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 분말(230g) ₩39,000
환 (250g)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사찰안내

사찰 ·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더욱 새로워진
광진불사

포교원 안내
◆위치 : 서울 중랑구 동부시장 내
◆평수 : 40평(법당, 방1개) 2층
◆가격 : 2천 7백만원
월 70만원
019)9108-090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내
◆ 2층 43평
◆ 법당 : 29평 석가모니불(동불) 관음지장 후불탱화, 신중탱화,법고(대북), 범종, 피아노,고려대장경 24권봉안 스님방1, 신도방1 주방, 샤워장 옥상사용
◆ 가 액 : 보증금4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별도 절충가
011-790-7162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사천읍내
◆평수 : 종교부지500평, 대지110평
◆법당18평 (삼포집, 콘크리트 저)
요사채116평 ,그외 건물2동
◆가격 : 3억 8천만원
055)852-1595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통영시내
◆평수 : 2,000평
◆건물 : 법당1개, 요사채2개
◆특징 : 시내속에 산사, 바다보임
◆가격 : 시설권리금1천 3백만원
(월 20만원)
055)646-2766

절터 안내
◆위치 : 경남 함양군
◆절터 : 5,000평
◆가액 : 평당 20,000원
※찻길 샘물식수
토굴터
◆위치 : 경남 함양군
◆평수 : 토굴터 347평, 찻길
◆가액 : 500만원 ※찻길
055)963-3068

사찰(급) 안내
◆위치 : 강원도 태백산 도량
◆평수 : 약830평
◆특징 : 법당20평(목조), 요사채3동 각30평씨, 방6개, 산신각, 종각, 3층탑 5층탑, 미륵불, 지장전, 남골당불사주 음내 소재지 기차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스님이 몸이 안좋은 관계로
◆가액 : 답사후 결정
02)2618-0767/011)753-0768

기도 공부터 안내
◆ 울창한 숲속의 산사분위기 동네와 800m 떨어짐. 깊은 산속에서 전화, 전기, 차도 완전해결 서울 40분 옆엔 계곡이 흐르고 뒷산엔 괴석이 즐비함
◆ 평수 : 136평 건평 25평
◆ 가액 : 삼 5천 5백만원
031)585-5844
017)765-5846

사찰(급) 안내
◆ 위치 : 전남시
◆ 대웅전 20평, 목조, 요사채2동 40평, 천연암반수
◆ 가 액 : 3천만원
011)696-4848

사찰 안내
◆ 위치 : 남원 전주간 국도 2분거리
◆ 대지 : 120평, 법당30평 방7개, 삼존불(108불조성)
◆ 가액 : 6천만원
063)634-8607
017)622-1491

사 찰 (급) 안 내
◆위치 :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대지 : 435평 종교대지 등기필
◆건물 : 법당31평, 목조(삼포,오포,금단청필) 요사80평, 방10칸, 주방2칸, 거실, 명부전9평 단청필, 주지실 · 사무실12평, 창고 약4평 주차장100평 이상 차량 무제한 주차 가능
◆가액 : 8억 건물완공4년, 총공사비 12억, 대지 평당 90만원 이상감.
◆특징 :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도량으로 창건주 신병으로 저렴한 가액에 양도합니다.
055)294-4889 / 02)351-4447

사 찰 안 내
◆위치 : 포천시 이동근접(서울 강남에서 2시간 소요)
◆부지 : 25,000평 ◆법당 : 30평(목조, 단층완료)
명부전 30평(목조 단층완료), 산신각 20평(목조 단층완료)
◆요사채 : 60평 (현대식 산세수려하며 백담사 계곡처럼 사시사철 계곡물이 많이 흐르고 있는 천년고찰의 기도, 참선도량임 신도들 하계수련장으로 이용하면 아주 좋으며 관광사찰로 운영할 수 있는 법력있는 스님 환영
◆가액 : 10억
◆위치 : 대구광역시
◆대지 : 40평 (5층 주지실, 4층요사, 3층 .법당, 1,2층 종무소, 지하 선원)
※ 도심포교원 현대식 건물이며 선원 운영에 관심있는 스님 환영
◆가액 : 2억 8천만원 (융자있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561-7791 018)273-9390
※전국소재 사찰,암자 양도,양수하실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위치 : 부산근교
◆법당,요사,참선방, 주차장
◆부지 : 8,000평
◆가액 : 6억 5천 (답사후 절충가능)
주인 011)9314-0780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양수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 부산서구
◆부지 : 70평
◆법당및 요사 : 70평
◆임대료(전세) 6천만원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암자(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자양면에 자리한 산세수려하고 임법당의 기도도량임
◆ 함께 기도 정진하실 비구니 스님, 보실님 식구분들 구합니다.
◆건강이 안좋으시분 수양 기도 가능함
◆전세 철세 (4200만원) 가능함
054)338-1237/018)510-1237
연혜스님 합장

포교당 안내
◆ 위치 : 구리시내 5층건물
◆ 평수 : 5층 법당50평, 4층 요사채, 공양간 50평, 옥상 휴식공간
◆ 특징 : 좋은위치, 좋은시설 완벽함 스님 유학관계로 사정상 급매
◆ 가액 : 보증금2천 만원
월134만원 권리금8천 만원
011)751-7960

절터 · 암자 · 전원 · 요양
◆ 위4대 명당의 적당한 평수, 마치 안락한 의자처럼 산이 감싸고 있음. 항상 아늑하며 웅장함을 느끼는 곳 북한강 상류 기도, 공부하기엔 안성맞춤. 서울 40분소요 산속까지 포장완료. 동향이 탁트임
◆ 평수 : 대지300평 건평 실60평
031)585-5844
017)765-5846

토굴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177-8번지 구덕마을
◆ 방3개, 현대식 주방, 샷시, 보일러, 바다가 차로5분거리
◆ 가 액 : 3천만원
019)545-2962

사찰 안내
◆ 위치 : 마산 근교
◆ 대지 : 1,000평, 임야 2,400백평
◆ 건물 : 법당 35평, 나한전 15평, 산신각 7평, 전통목조 금단청으로 만듬. 요사채(콘크리트)60평, 주지실, 전통목조기와집 및 황토 35평, 창고10평, 주위 환경 교통및 산세수려
◆총투자액 11억
◆ 가액 : 6억 (답사후 절충)
055)759-6541/011)9853-914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68번지 대동사
◆ 평수 : 대웅전12평, 칠성각12평 요사채, 방3개18평, 방2개 9평 산신각2평, 종각1동, 창고1동 실평수, 터는 국유지
◆ 가 액 : 1억 2천만원
02)2267-7791/031)635-3775
019)466-7791

사찰 안내
◆위치: 지리산 청학동입구
◆건물: 임법당1동, 요사채1동(방4개)
◆특징: 주방, 욕실, 화장실 별도, 현대식 시설, 통나무집, 방2칸 주변경관이 좋고 주차장있음.
※하동화개 지리산 햇차 판매
포교원(전세) : 부산 동래 안락동
전세2천만원 월30만원 권리금2500만원
011)842-4549

사찰 안내
◆위치 : 강원도 인제군 내린천 상류
◆대지 : 450평, 전답 2,200평 대웅전 30평, 요사채25평 7층탑, 3층탑, 관세음 미륵상, 종 운판등 98년 창건
◆가액 : 3억 3천
033)462-8073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 식물원 입구
◆평수 : 37평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02)482-4550
011)306-9295

포교당 안내
◆위치 : 신대방3거리 전철역 (7호선)옆
◆구조 : 법당 30평, 요사채, 방 3개, 부엌, 화장실
◆가액 : 보증금 5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1천만원 또는 보증금 3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1)741-2087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부지 : 5800평중 대지600평 전 5,200평(준농림)
◆법당22평, 산신각4평, 요사채30평 (2동), 공양실 12평
◆특징 : 주변산세, 경관 뛰어나며 기도도량임. 납골당 최적지
◆가격 : 답사후 가격 결정
054)954-0391/011)501-2219

사찰 안내
◆위치 : 전남 진도군 지산면 심동리 187번지
◆ 평수 : 건평80평, 부지120평 사용평수 40평
◆ 가 액 : 7천 1백만원
011)746-3457
02)793-6036

사 찰 안 내
◆위치 : 부산근교
◆법당,요사,참선방, 주차장
◆부지 : 8,000평
◆가액 : 6억 5천 (답사후 절충가능)
주인 011)9314-0780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양수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 부산서구
◆부지 : 70평
◆법당및 요사 : 70평
◆임대료(전세) 6천만원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안내
◆

불자 세상보기

국회 속기록 봐도…인터넷서도…지하철에서…

욕설-폭언 난무하는 사회

말이 거칠어졌다. 아예 욕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됐다. 어른이나 학생, 인터넷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 신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험한 말들이 마구 오간다. 이러다가는 '욕설 사전'이 베스트셀러가 될지도 모를 정도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자신이 표현욕구를 충족시키기만 하면 된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은 '욕 권하는 사회'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지난달 28일에는 국회의 속기록이 공개됐다.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서도 험한 말들을 찾아보는 건 어렵지 않다.

▲국회 속기록에서 본 저질 대화

99년 12월17일 열렸던 국회본회의 제15대 제208회 속기록을 보면 국회 정무위에서 한 남성 국회의원이 여성 국회의원에게 "나도 너같은 딸이 있다. 딸밖에 안되는 것이,어디서 무슨 말을 하느냐. 뺨을 서너 차례 맞아야 버릇을 고칠 수 있다"며 "싸가지 없는 X"이라고 한 발언이 실려있다.

또 지난 7월14일 열렸던 국회본회의 제16대 213회 속기록에는 자리에도 없는 이회창 총재에 대해 삿대질까지 하면서 "이회창 대표 정신 차리시오"라고 하는 등 욕설에 가까운 비난의 말을 마구 쏟아놓은 국민회의 정대철 의원의 발언이 그대로 표현돼 있다.

▲인터넷에 올라 온 욕설

"니는 니 에미 애비 때릴때도 쇠몽둥이로 XXX 내리치냐 XX야" "니가 한 번 맞아봐, 말도 안먹히는 광신도들같이 얼굴 빨개져서 달려들고… 과잉진압이라는 말이 나오냐"

서울 모 경찰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오른 글이다. 지난 7월 롯데호텔 노조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를 놓고 두 사람이 신랄하게 육두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다.

8월31일 한 게임 사이트 게시판에는 "이 XX야. 디디알이 지난지가 언젠데 지금 지랄이냐."라는 욕설이 올랐다.

▲일상생활의 폭력적 언어

"씨X, 그 XX 왜그러냐, X나게 말 안듣더라구." "병신같은 XX, 그걸 그냥 줬어? 그러니까 개기지 XX야." 두 고등학생이 지하철에서 나눈 대화다. 또 길을 가던 한 엄마는 아이에게 "에이, 이XX 왜 그렇게 말을 안들어, 너 집에 들어가서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한다.

이들 예는 단적인 것에 불과하다. 말로 하다 안되면 맞고함과 삿대질, 심지어는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런 차원에서 욕설은 아예 신사적일지도 모른다.

〈대아미타경〉에 "거친 말을 멀리함으로써 자신과 남을 해치는 일을 면하고, 좋은 말을 익힘으로써 저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해서 남과 내가 널리 이롭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정어(正語)'라 하는데, 팔정도의 하나일 만큼 지계(持戒)의 큰 덕목으로 여긴다. 나쁜 말로 욕해서 남을 업신여기면 원한이 생기고 재앙이 뒤따르는 것을 경계한 탓도 있지만, 말을 아끼고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수행의 방편이요,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함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말'은 그저 아무렇게나 내뱉는 것이 아닌 신중히 생각하고 조심스레 건네야 할 표현방식인 것이다.

말에는 분명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난무하는 온갖 폭력적 언어는 결국 타인과의 관계를 해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건강까지 좀먹고 있다. 이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정어' 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건강한 사회,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행하는 '말'에서부터 시작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좋은 말은 저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한다" 대아미타경

"난지도 골프장 건설 반대"

12개 환경단체 서명운동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서울 난지도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고 생태공원으로 살려내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등 12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난지도 골프장 백지화 시민연대'는 난지도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서울시와 맞서고 있다.

시민연대측은 서울시민 100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대에 나섰고, 서울시는 친환경적이고 대중적인 골프장을 건설해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학자들은 '친환경적인 골프장'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지금 막 되살아나고 있는 난지도에는 300여종의 식물종이 들어와 있고 생태천이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생태 관찰조사의 중요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휴식공간도 좋지만 굳이 생태적 가치가 큰 난지도를 골프장으로 만들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만약 환경보다 개발이익만을 앞세운 계획이라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낫다. 자연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 '난지도 골프장 백지화 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달말 난지도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의 골프장 설립계획을 규탄하고 있다.

인간배아 간세포 배양 성공

국내연구진 세계서 3번째

각종 암, 심장병 등 불치병을 앓는 환자에게 필요한 세포와 조직을 만들어주는 인간배아 간세포 배양이 국내에서도 성공했다.

의료법인 마리아 산부인과병원 기초의학연구소 박세필 소장은 지난달 30일 "정자·난자 수정 후 5일까지 시험관에서 배양된 상태로 냉동보존된 수정란에서 배아 간세포를 따로 떼어내 배양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배아 간세포는 인체 특정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도록 배양조건을 맞춰주면 불치병을 앓는 환자에게 필요한 세포와 장기를 공급할 수 있어 미래의학을 이끌 '꿈의 세포'로 불린다.

인간배아 간세포 배양 성공은 미국과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이며, 냉동보존된 배반포기배를 이용해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가 과학적 검증이 아직 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절차없이 진행돼 인간배아 연구윤리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도시 '러브호텔' 주택가까지 난립

일산, 분당, 중동 등 신도시 지역에 '러브호텔'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고 있어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 중에서도 일산의 경우 '러브호텔 도시'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 도시 일대에 난립한 숙박 업소는 모두 140여개. 여기에 카바레와 룸살롱, 단란주점 등 접대부를 고용한 유흥업소는 모두 120여개를 합치면 가히 '환락의 도시'로 불릴 만도 하다. 특히 일산 대화동의 경우 10여개의 러브호텔이 마치 단지를 이루듯 한 곳에, 그것도 초등학교에 인접해 들어서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결국 이들 신도시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찾아 이곳으로 이주한 주민들에게는 배신감을 안겨주고, 뒤틀린 욕망을 해소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해방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증일아함경〉에 이런 부처님 가르침이 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사람이 문안드리며 여쭈었다. "무슨 인연이 있었기에 성(城)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줄어듭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소행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본래 풍요하던 성이 황폐하게 되는 것은 모두 사람들이 탐욕에 묶여 인색하고 애욕에 깊이 빠졌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바람이 시절을 맞추지 않았고 비가 제때에 내리지 않아 곡식이 자라지 못하여 죽은 사람들이 길가에 널려있게 되느니라. 나라는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번성하지 못하느니라."

신도시들이 황폐해지지 않고,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부당국과 시 관계자, 그리고 뒤틀린 욕망을 해소하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시론

자비로운 한가위

유대인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다. 곱추가 가장 기뻐할 때는 자기보다 더 큰 혹을 짊어지고 있는 곱추를 보았을 때라는 것인데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위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솔직히 나도 나보다 더 심한 장애인을 만났을 때 내 장애가 작아보이면서 이 정도인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싶어 내 가슴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욕심을 잠시나마 거둬낼 수 있었다.

나누면 나 또한 행복얻어

아마 같은 심리일 것이다.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불교방송의 '그리운 등불하나'에는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자기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봉사를 갔다오면 자기가 얻어오는 것이 더 많다고 하면서 장애인이 천사라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처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겸손이거나 지독한 교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진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방귀희
〈솟대문학 발행인 · 방송작가〉

사람한테는 기본적인 연민이 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질투하거나 더 고통스러워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동정심이 생기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된다. 인간의 그런 선심(善心)을 발로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못한 대상을 자꾸 만나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들 중에는 잘 사는 사람들만 눈에 뜨인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일어나서 결국은 어리석음에 빠져 고통스럽게 된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은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귀찮아하고 함부로 대한다.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관세음보살이다.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는 가을이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가을이 낭만보다는 곧 겨울이 올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을은 맛나는 계절이라기보다는 겨울이라는 쓴 맛을 기다리는 근심만이 가득할 뿐이다.

그런 이들의 걱정은 아랑곳 없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추석 명절 연휴로 들떠있다. 추석 선물세트가 얼마라는 둥 하며 백화점마다 고급물건들을 쌓아놓고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렇게 세상이 들뜰수록 더 외로워지고 서글퍼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핏덩이 상태로 버려진 아이들은 자신들이 왜 버려졌는지도 모르면서 보육원에서 사랑에 목말라하며 어른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배 아파 낳은 자식들에게 외면 당한 노인들은 그래도 자식 걱정을 하며 양로원에서 젊은이들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세상을 그리워하며 사는 장애인들은 재활원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수해 지역에서 물난리를 겪은 수재민들과 수해 복구를 기다리고 있고 소년소녀 가장들은 온전한 가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우리 주위에는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명절이 다가오면 오히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는 곳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찾아오던 이들도 명절을 지내야겠지.' 오지 못하는 그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썰물처럼 빠져나간 그들의 빈 자리에는 쓸쓸함만이 남는다. 우리 사회는 정녕 이렇게 메말라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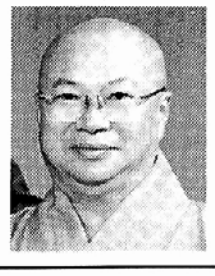
소외받는 이들에 관심을

아닐 것이다. 우리들은 마음이 있어도 표현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일 게다. 그래서 무정한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선심을 이제는 끄집어내어 보여줄 때이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착한 마음을 착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가 행복할 때일수록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봐야 하고 내가 바쁠 때일수록 다른 사람의 소외를 어루만져주어야 한다.

올 추석 명절은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좋은 일을 실천하는 보시행(布施行)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골고루 부처님의 자비를 나누어주었으면 한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화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숨쉬식(2개월 50만원), 숨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천고(2개월 100만원), 차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오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의료법인 효성 양방 · 한방병원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이사장 비서실) ☎ (052) 254-2600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불치병(병명을 못찾는 분), 기관지 천식, 위장병, 정신 질환, 간질, 중출, 고혈압, 당뇨 치료문의
무료진맥 · 완치!!

불교생협

한가위 제수용품 사러 오세요

'순수 국산 유기농산물만 준비돼 있으니 이번 추석 차례용품 믿고 사러 오세요'

각종 농·수산물의 수입 상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꽃게와 같은깨 파동의 여파로 순수한 우리 식품만 파는 사찰 직영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을 찾는 불자들의 발걸음이 늘고 있다.

특히 12일 추석을 앞두고 생협들이 과일, 햅쌀, 한과 등 추석 상품들을 제품 종류별로 가지런히 진열한 특별전을 열고 있어 수요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유기농산물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일반 재배작물보다는 가격이 다소 비싸지만 농약과 비료를 거의 쓰지 않아 건강에 좋기 때문이다.

석왕사등 10여곳 햅쌀 과일 한과 특별전
무공해 유기농산물…주부 발길 부쩍

현재 교계 생협매장은 불교생협운동본부, 영화사, 봉은사, 능인선원, 수원포교당, 부천 석왕사, 남원 실상사 등 10여곳 정도다.

이중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산하의 불교생협운동본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며 조화롭게 살아가자는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에 근본 취지를 두고 쌀, 채소, 잡곡, 건강식품, 밀, 건어물 등 다양한 식료품을 저렴한 가격에 불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어 호응도가 높다. 또 남원 실상사도 사찰 옆 귀농학교에서 생산되는 곡류를 비롯해 무, 배추 등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추석을 맞아 기획상품전을 열고 있는 불교생협운동본부는 차례상에 올릴 약과 한상자에 7천원, 찹쌀 유과 1봉지에 3천5백원, 제주포 1개에 3천5백원 등에 판매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사리, 대추, 햅쌀 등의 제수용품과 매실차, 사과쥬스, 아카시아꿀 등 국내 주요 산지에서 재배한 다양한 과일 선물세트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1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부천 석왕사 생협도 16일까지 '2000 한가위 차례상 모음전'을 마련하고 있다. 인기품목과 가격을 살펴보면 유기농 햅쌀 8kg에 2만9천원, 포도 5kg에 1만9천원, 생표고버섯 250g에 3천3백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외에도 직접 가정에서 빚은 솔잎송편이 1kg에 1만7천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찹쌀 산자는 150g에 5천4백원, 유과는 160g에 3천5백원에 내놓고 있어 가정에서 만들기 번거로워 걱정하고 있는 주부들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다.

불교생협운동본부 곽유찬씨는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산물을 찾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까다로운 품질관리와 함께 최소의 택배비용만 받고 불자들에게 물건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밝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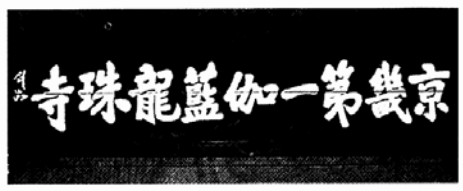
◇교계 생협매장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불교생협운동본부에서 12일 추석을 맞아 특별 기획전으로 내놓은 인진쑥, 사과, 매실, 생식 상품 세트.

◇교계의 생협매장

사찰(매장명)	전화번호
영화사(한마음)	(02)3437-4363
봉은사(솔향기)	(02)511-6069
능인선원(푸른나라)	(02)577-5800
수원포교당(여래살림)	(031)255-2693
석왕사	(032)663-7771
실상사	(063)636-3031
관문사	(02)3460-5300
불교생협운동본부	(02)861-1889

사찰 편액을 찾아서

⑲검여의 용주사 · 해인사 편액



◇용주사 사문 편액



◇해인사 범종루 편액

검여 유희강(劍如 柳熙綱 · 1911~1976)은 현대 한국 서예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서예가로, 인천에서 출생해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웠고, 후에 명륜전문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1939년 중국으로 건너가 북경의 '동방학회'에서 서화와 금석학을 연구했으며, 1943년에는 '상해미술연구소'에서 서양화를 배우기도 했다. 1946년 귀국한 검여는 박세림 등과 '대동서예연구회'를 조직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 밖에도 그는 인천시립박물관장과 한국서예가협회장 등을 지내기도 하였다.

검여는 각 체의 글씨에 모두 뛰어났을 뿐 아니라 전각과 그림에도 능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육조체(六朝體)의 행서를 잘 썼으며, 소동파의 글을 좋아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1968년 뇌출혈로 인해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어 오른손으로 글씨를 쓸 수 없게 되자 좌수서(左手書)를 연구하여 또 다른 경지를 이루기도 하였다. 그가 사찰에 남긴 글씨는 많지 않으나 수원 용주사 〈용주사〉, 〈경기제일가람용주사〉, 〈범종각〉, 합천 해인사 〈범종루〉, 〈사운당〉 편액 등이 전하고 있다.

수원 용주사 사문에 걸려있는 〈경기제일가람용주사〉 편액은 무늬 없는 좁은 변죽을 덧댄 단순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액판 좌측 위쪽에 '검여(劍如)'라는 관지가 있다. 검여의 초기 글씨는 웅건(雄健)한데 비해 만년의 좌수서(左手書)는 청경(淸勁) 하였다. 이 편액의 글씨는 1968년 이전에 쓴 것으로 북위(北魏) 해서의 필의(筆意)를 지녔으며, 결체(結體)가 단정하고 필치가 주경하다.

합천 해인사 〈범종루〉 편액에는 도서나 관지는 없으나 1968년 검여가 전서로 된 〈사운당〉 편액과 함께 쓴 글씨이다. 해인사의 종각은 본래 구광루 동쪽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80년대 초에 주지 명진(明振)이 지금의 자리에 종각을 새로 지으면서 편액을 옮겨 건 것으로 보인다. 편액의 글씨는 북위(北魏) 해서의 제법을 혼융(混融)하여 쓴 것으로, 근골(筋骨)이 견강(堅剛)한 서미(書味)의 해서이다.

안병인〈대한불교진흥원〉

…용주사 단정한 북위 해서 필체
범 종 루 굳세고 단단한 기운 서려

건강백과

커피와 질병

대한의사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평균 352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한다. 하루 1잔 꼴이다.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기분전환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신다는 사람도 있다. 커피는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해 커피는 기호식품일 뿐 건강에 지나치지만 않으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정상인의 경우 하루 4잔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위장질환=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위산의 분비를 증가시켜 기능성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또 위·십이지장궤양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을 4.6배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담석증=카페인은 담낭 운동을 촉진하고 담낭액의 흡수를 떨어뜨려 담석증의 발생위험을 낮춘다.

기억력 높이고 다이어트 효과

위장장애 원인…4잔 이하 적당

▲유방암=커피를 많이 마시면 유방종양(양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으나, 최근 대규모 역학조사 결과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노르웨이에선 마른 여성이 커피를 마시면 유방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골다공증=커피는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 골밀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대퇴부 골절 위험이 2~3배 정도 높다.

▲다이어트=유럽에선 커피 다이어트가 유행이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으로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며 기초대사량을 높임으로써 칼로리 소비를 늘려준다. 단 우유나 크림 등을 섞어 마시는 것은 금물. 단백질이 카페인과 결합해 카페인의 흡수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기억력, 추리력 등이 향상된다. 이런 결과는 노인에게 더 두드러진다. 카페인은 자살을 방지하는 항우울효과가 있다. 자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 불면증 환자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차별화된 교육프로 절실"

조계종 어린이집 운영 주지연수



◇동국대 교수 대원스님이 18일 내원정사에서 '불교유아교육과 운영관리'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은 8월 18일 부산 내원정사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 주지연수회'를 열었다. 내원사, 금강사 등 22개의 사찰 유치원 주지들과 9개의 어린이집 대표 스님들이 참석한 이날 연수회에서는 '협의체 조직 및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토론회에 이어 '불교 유아교육과 운영 관리'를 주제로 한 대원스님(동국대 불교아동학과 교수)의 강의가 열렸다.

이날 강의에서 대원스님은 "어린이 포교를 체계화 하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와 함께 요구되는 차별화·특성화된 유아 교육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스님은 "발전적인 어린이집 경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중간 관리자들의 합리적인 활용"이라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주지스님들은 어린이집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예산부족으로 인한 직원 및 시설 관리의 어려움과 차별화된 어린이 포교 프로그램 부족 등을 꼽았다. 김주일 기자

청소년 단신

봉선사 어린이집 운영

남양주 봉선사가 9월부터 구리시에 있는 인창 시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한다. 이번에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연건평 1백 20여평 규모로 1백여명의 원아를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다. 1일부터 모집하며 9월 중순에 개원할 예정이다. (031)527-5974

전문봉사 동아리 회원 모집

서울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는 봉사활동의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전문 봉사 동아리 회원을 모집한다. 봉사활동의 전문교육을 통해 내실있는 봉사자 확보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전문 봉사 동아리단은 봉사활동 소식지 발간 작업을 비롯해, 홈페이지 운영, 문화재 지킴이, 관광도우미, 문화봉사, 응급구조 등 6개 분야로 나눠 연중 상시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6개월 이상 활동한 봉사자들은 '2002 월드컵' 등 크고 작은 국제규모의 행사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02)739-9260

16·17일 백제권 문화답사

조계사 청년회는 16·17일 양일간 선운사와 무량사 등지로 '백제권 문화답사'를 떠난다. 성보문화재 연구소 김현정 강사가 안내를 맡을 이번 문화답사 프로그램에서는 악산 미륵사지를 비롯해, 부여 정림사지, 서산마애삼존불, 수덕사 등을 둘러보며 백제불교의 특징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02)735-3724

서불청 해인사 참선기행

서울불교청년회는 16일부터 1박 2일간 경남 합천 해인사로 정기 산행 및 참선 기행을 떠난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야산 야간 산행을 비롯해 해인사에서의 새벽예불 및 108배 참회 정진 등 참선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02)730-9108



동산 관세음 보살상 봉안식

◇광동여고에서 열린 자비동산 관세음보살상 봉안식.

광동여고 자비동산에 관음상

종립학교인 광동여고는 8월26일 교내 자비의 등산에서 '관세음보살상 봉안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일면스님을 비롯해 의정부 사암연합회 지섭스님 등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일면스님은 "자비동산이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봉안으로 야외 법당 역할을 하게 됐다"며 "학생들이 언제든지 마음 편히 와서 기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덕현호 시집

사랑과 詩 바람의



A5신 144쪽 값 4,500원

※ 구입안내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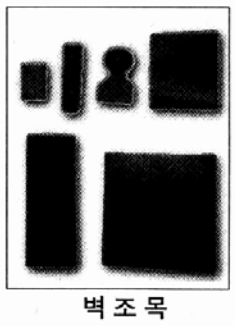
명상시집
· 정화의 빛 - 값 4,500원
· 고향의 숨결 - 값 4,500원
· 달마를 보라 - 값 5,400원
· 해 탈 - 값 5,000원
· 마음의 창 - 값 7,200원

바람은 언제나
당신을 휩싸고 돕니다.
머언 하늘을 나르는 나비도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당신이 떨고 있으면
바람은 당신을 감싸 녹여 줍니다.
당신이 밉다고 떨치려 해도
바람은 언제나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속에도 입가에도
떨리는 손끝 흔들리는 옷자락에도
바람은 살며시 숨어 있지요
우리가 늘 만날수 있듯이
바람은 항상
우리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것을
감싸고 달래주면서
바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홀러가며
허공에 나래를 폅니다.

도서 출판 정화사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우)339-834
Tel: 041) 867-4000
Fax: 041) 867-4001

행운을 따르는 벽조목

벼락맞은대추나무의 수수께기


벽 조 목

옛부터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몸에 지니거나 보관하면 모든 화를 쫓고 행운을 가져오며 소원이 이루어 진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998년 11월에 서울롯데백화점에서는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합격을 기원하는 행운의 나무 가지기 행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벽조목은 워낙 희귀하여 진품이 어려운데 여기에 진품이 있습니다.
엣 선사께서 좋은 물건은 인연따라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055)742-6044
011)554-6044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겨울나무

싹을 틔웠지
꽃도 피웠지
단풍도 들었어

침묵으로
부서져 내리는 그 어깨 위에서
바람소리로 외쳤어

기다림이야

아직도 울 수 없는
사랑이야

『한맥 문학 7월호 시 부문 신인상으로 등단 당선 된 겨울나무 외 4편』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7-2호 현대 골든텔(오피스텔) 8층 811호
강남역 (2호선) 3번출구
☎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진아 꽃 피우는 방편의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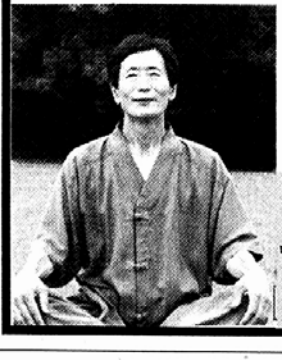
우 담 바 라
(하나한)

안은 엷어지나 밖이 두터워지는 비움 넘고
걸려들지 않으나 함께 못하는 바라봄 넘고
틈새 하늘 뿐 구름 못여는 이뤄꼬 넘어

부분에서 전체 찾아 相 집착 벗고
자연과 하나되어 담뿍퐁당 業習 벗고
자아 경계 자유로이 머뭄없이 마음내는 길

《체험소감》

"엄마 자궁 몸나 아닌 내 자궁 얼나로 부활영생 참 경지" - 신부
"먹고 싸고 보고 듣고 일함 모두를 道로 노자 소원 성취" - 교수
"아픔-我픔 나아짐- 나我짐 참나의 근원적 예방 치유 길" - 의사
"구름사이 하늘 아닌 구름여는 법 애고 가득 채워 해결" - 스님



특 징
※궁극 현실 조화 좋아 겨냥
※언어 마음이전 존재 발굴
※종교 안밖 모든 방편 융해
※심각 아닌 진진 놀이 진행
※추가 과정 없이 한판 전수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517-1
031)885-1011/016)206-1001
매월 셋째 월15:00~토 15:00(55만원)
농협 111-12-336006 윤 석태
(일주일 전 예약 요망 준비 필요)

염 주



- 금강주염주세트 30,000원
- 도실백팔염주(특) 40,000원
- 기노백팔염주8mm 40,000원
- 백옥백팔염주(대) 40,000원
- 백옥백팔염주(소) 30,000원
- 흑조목백팔염주 40,000원
- 보리수납작백팔염주 30,000원
- 생광석백팔염주 35,000원
- 수암옥염주세트 98,000원
- 수정백팔염주 8mm 50,000원
- 수정컷팅백팔염주 90,000원

단 주



- 금강단주(특대) 11,000원
- 대추연꽃단주30mm 20,000원
- 도실단주(특) 10,000원
- 벽조목단주(소) 18,000원
- 사진단주25mm 46,000원
- 생광석단주 10,000원
- 주목단주 20mm 14,000원
- 주목단주 24mm 16,000원

합장주



- 무상합장주 14,000원
- 사금석T합장주 8mm 64,000원
- 수정주판알합장주 16,000원
- 수정컷팅합장주10mm 25,000원
- 자수정미노합장주 16,000원
- 자수정커팅합장주 16,000원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사이버몰

마 하 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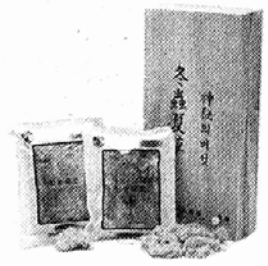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농장직판 – 신비의 버섯

동충하초

150g
1개월 복용분

가격 70,000원

경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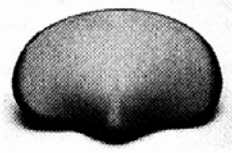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하게 하였습니다.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름원목

■가격:₩85,000

참선명상방석



일 반 ₩30,000
숯가반 ₩35,000
황토반 ₩35,000

실용신안1998-025039
의장등록14387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규격: 39×43cm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헤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가우스 X 4개

발마사지 헬스기구



다양한 기능의 첨단고급 재료로 제작

가격: ₩39,000

죠연열 건강벨트



원하는 온도조정 (36℃~70℃) 가능

가격: ₩105,000

옥베개



가격 : ₩33,000

오동나무 목침



■크기
가로 30cm
폭 13.5cm
높이 9.5cm

■가격
개 폐 형 ₩20,000원
무개폐형 ₩15,000

정사각틀 에밀레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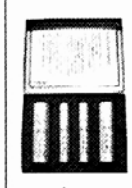


신비한 걸작품, 사이버 사운드, 완벽한 종소리의 재현!

규격: 20×31cm
재질 - 청동

가격:₩210,000

석씨향방 오분향, 생기향세트



규격 4개 1세트

효능 희엄경 보현행품에 업기지효능이 있음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 할 때
- 제사를 지낼 때
- 불결한 장소를 해끗이 하고 싶을때
- 공포를 느낄 때
- 조상의 영복을 빌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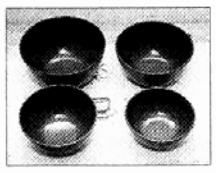
가격 : ₩60,000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백화향 선물세트

백화+신자단+천연목향+향꽃이



가격: ₩50,000

보원향 선물셋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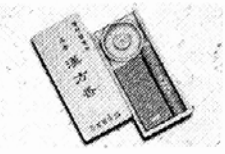
보원+민복침향+한방향+향꽃이



가격: ₩60,000

한방향 선물세트

향등+한방향+향꽃이



■가격 ₩25,000원

불자반지



재질 : 금 · 큐빅(1.5돈)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순금도금 은 히란야메달



- 종교및효능 : 남녀공통 브로치형 메달
- 재질 : 천연자수정,차부착 순데일순금도금, 루비 세팅
- 효능 : 정화지유에너지가 발생, 가슴(챠크라) 심장에 에너지를 공급

지름 : 4.5cm 가격 :₩400,000

삼보죽염



황토가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조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 삼보미용죽염 (250g) 가격 :₩3,500
- 삼보미용죽염 (500g) 가격 :₩6,500
- 삼보순소금 (500g) 가격 :₩6,500
- 삼보죽염 200g 가격 :₩36,000
- 삼보죽염 600g (Set) 가격 :₩105,000
- 삼보죽염비누 (110g 2개) 가격 :₩1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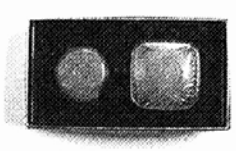
장군죽염



서해안의 청결한 곳에서 천일염을 황토가마에 담아넣고 산속의 오염되지 않은 황토와 소나무 장작만을 사용하여 1300℃가 넘는 고온으로 굽고 녹여 나온 제품!!

- 장군죽염-2회죽염 가격 :₩4,000
- 장군죽염-3회죽염 가격 :₩6,000
- 장군죽염-9회죽염 분말 가격 :₩36,000
- 장군죽염-9회죽염 선물세트 가격 :₩108,000
- 장군죽염-9회죽염 선물세트 (소) 가격 :₩18,000
- 장군죽염-9회죽염 알갱이 가격 :₩36,000
- 장군죽염-9회죽염 홍화씨환 가격 :₩36,000

금비누



■ 2개 1세트 가격 :₩25,000

머그잔



■ 2개 1세트 가격 :₩ 5,700

가마솥

■ 가격 :₩30,000
■ 요장 : 경기도여주
■ 재질 : 바이오세라믹

청자당초 5人다기

■ 가격 :₩ 42,000
■ 요장 : 경기도여주
■ 재질 : 청자 토 + 재유 (천연유)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제기와 제구

제사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이 지내는 것으로 인류 문화의 중요한 한 요소이다. 제사는 동서 고금의 어느 사회에서나 행여져 왔다.
제사는 인류의 정신 사상에는 비롯된 것으로 사람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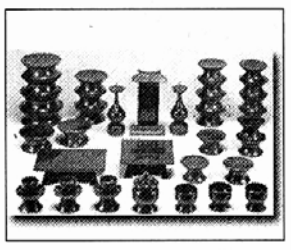
■ 제구의 종류

- 병풍(屛風) 제사를 지낼 장소의 뒤와 옆 등을 둘러친다. 현란한 그림이 그려졌거나 경사진치에 관련되는 내용의 글씨가 있는 것은 피한다.
- 교의(交椅) 신주나 위패를 봉안하는 의자로서 계상이 높으면 교의도 높아야 하고 계상이 낮으면 교의도 낮아야 한다. 보즈음에는 신위를 보통 계상 위에 봉안하고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신위판(神位板) 제사 모주 지방을 붙여 놓을 비롯이다. 이는 예전의 신주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신주 형태의 목적(木牌)로 제작하여 의자와 계상에 세워 놓거나 작은 사진 액자 모양의 목판으로 제작하여 기대어 놓아도 무방할 것이다. 신주는 관리와 예법이 엄격하고 까다롭지만 신위판은 쉽시로 지방을 붙여 놓은 기구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는 없다.
- 제상(祭床) 제사음식을 차리는 상이다. 120x80cm 정도가 되어야 제수진설에 적당하다.
- 향안(香案) 향상(香床)이라고 한다. 향로와 향합, 모삿그릇을 올려놓는 작은 상이다.
- 주가(酒架) 주전자,퇀주병,퇴주기 등을 올려 놓는 작은 상이다.
- 소탁(小卓) 축판을 올려 놓고 신위를 봉안하기 전에 임시로 모시는 작은 상이다.
- 소반(小盤) 제사 음식을 진설하기 위해 올릴 때 쓴다.
- 촛대(燭臺) 제상에 촛불을 밝히기 위한 도구이다.
- 향로(香爐) 향을 사르는 기구이다.
- 향합(香盒) 향을 담아놓는 그릇
- 모사기(茅沙器) 모래와 띠 묶음을 담은 그릇. 강신 때 뇌주를 여기에 붓는다. 이는 옴지(땅)에 있는 신(백魄)을 부르는 의식이다. 현대는 보통 굽이 있는 꽃꽂이 수분(水盆)과 유사하다.여기에 깨끗한 모래를 담고 띠 한 묶을 한 뼘 정도로 잘라 가운데를 묶은 실로 묶어서 모래에 꽂는다. 이것은 당비닥을 상징한다. 표지에서의 제사는 땅에다 바로 뇌주를 붓게 되므로 모사기를 쓰지 않는다.
- 축판(祝板) 축문을 끼워 놓는 투명이 붙은 판이다. 크기는 사방 30cm면 적당하다. 오늘날은 결재판이나 흰종이로 대체하는 것도 무방하다.
- 자리(석席) 마루나 방에서 지낼 때는 하나면 되지만 묘제에는 바닥에 깔 만큼 준비해야 한다.
- 지필묵연함(紙筆墨硯函) 축문을 쓰거나 지방을 쓰기 위한 한지,붓,먹,벼루 등을 담아 두는 함이다.

■ 제기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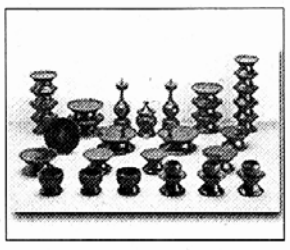
- 시접(匙接) 수저를 올려놓는 제기로 대접과 모양이 비슷하다.
- 탕기(湯器) 탕과 국을 담는 제기로 여러 모양의 것이 있다.
- 두(豆) 김치와 젓갈을 담는 그릇으로 굽이 높고 사각형이다.
- 떡그릇(병대) 떡을 담는 제기로 위판이 사각형이다.
- 모삿그릇(茅沙器) 모래와 띠의 묶음을 담는 그릇으로 보시기처럼 생겼으며 굽이 높다.
- 준항(준缸) 술을 담는 항아리이다.
- 준작(준勺) 주기로서 사기와 구리로 만든다. 작은 새 부리 모양으로 생겨 술을 따르는데 쓰인다.
- 변 과실과 건육을 담는 제기로 받침을 높게 하여 대나무로 엮어서 만들었다.
- 조(俎) 고기를 담는 도마 모양의 제기로 받침이 달려 있다.

남원 동천목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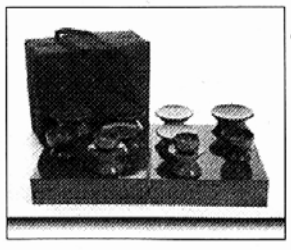
■재질 : 지리산오리목
■가 격 : 172,000

남원 동천목孝제기



■재질 : 지리산오리목
■가 격 : 203,000

성묘용 이동식(휴대용) 제기



■재질 : 지리산오리목
■가 격 : 73,000

음 반



- 관세음보살 정근 (영인스님 CD) ₩10,000
- 금강경(영인스님 CD) ₩10,000
- 부모은중경(영인스님 CD) ₩10,000
- 석가모니불 정근 (영인스님 CD) ₩10,000
- 신묘장구대다라니(영인스님 CD) ₩9,500
- 약사여래불 정근 (영인스님 CD) ₩10,000
- 예불천수경 (영인스님 CD) ₩9,500
- 우리말 천수경(영인스님 CD) ₩10,000
- 장고가락 염불(영인스님 CD) ₩10,000
- 장엄염불(영인스님 CD) ₩10,000
- 지장경(상)(영인스님 CD) ₩10,000
- 지장경(중)(영인스님 CD) ₩10,000
- 지장경(하)(영인스님 CD) ₩10,000
- 지장정근(영인스님 CD) ₩10,000
- 천도제 의식 (영인스님 CD) ₩10,000
- 천도타령염불(영인스님 CD) ₩10,000
- 천수경 아미타경(영인스님 CD) ₩10,000
- 팔양경(영인스님 CD) 승장기획 ₩10,000
- 회엄신중 정근 (영인스님 CD) ₩10,000
- 회심곡(영인스님 CD) ₩10,000
- 날개 CD ₩10,000

■ 무비스님강의집(금강경 테이프 20개) 가격 :₩45,000
■ 무비스님강의집(지장경 테이프 20개) 가격 :₩45,000
■ 무비스님강의집(진심직설 테이프20개) 가격 :₩45,000
■ 문구암스님범음범패집(테이프 20개) 가격 :₩66,000

향적원 …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선물세트1호 (고추장, 더덕장아찌, 각 1Kg) = 42,000원 ※ 간장900ml서비스
선물세트2호 (무우, 오이, 감 장아찌 각 500g) = 20,000원 ※ 간장900ml서비스
선물세트3호 (된장, 고추장, 더덕, 마늘쫑, 무우장아찌 각500g) = 39,000원 ※ 간장900ml서비스



향적원 선물세트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8,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8,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 12,000원
- 나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9,000원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홍화란?

국화과에 속하는 일년생 화초로써 옛날부터 잇꽃이라 불렸으며 잎이나 꽃받침에 가시가 붙어있고 씨의 크기는 해바라기와 흡사하여 홍화꽃잎은 예로부터 옷감염료, 연지, 화장품으로 이용되었으며 한방에서는 통경제나 어혈을 풀어주는 파혈제등으로 사용되었다.



홍화씨

■원료 -볶은 홍화씨 100%
■용법-볶은 홍화씨를 물2리터에20g정도 넣고 충분히 끓인 후냉장고에 보관후 수시로 드시면 좋습니다.

■용량500g (1봉지)
■가격:25,000원



홍화정

■원료 - 홍화씨 80%, 하수오 뿌리, 마뿌리 산수유 얼매, 황기, 두충껍질, 찹쌀 등의 약재를 넣어 드시기 편하게 정(환)으로 만든 제품
■용법 - 1일 3회 매회 3g(T스푼 1숟갈) 정도를 생강차를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용량: 200g 3통 / 250g 2병
■가격:120,000원 / 77,000원



홍화분말

■원료 - 홍화씨 100%를 미세하게 갈아서 만든 제품
■용법 - 1일 3회 매회 3g (T스푼 1숟갈)정도를 생강차를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용량: 200g 3통 / 250g 2병
■가격:90,000원 / 65,000원



홍화엑기스

■원료 -홍화씨 80%, 대추, 하수오뿌리, 마뿌리, 산수유, 황기뿌리, 두충껍질 등의 약재를 4~5시간 고농축 엑기스로 드시기 편하게 만든 제품
■용법 - 1일 2회 식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용량: 80ml 60포/ 80ml 48포
■가격:128,000원 / 98,000원

베지푸드

콩에는 포화지방이 적고, 아미노산이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들어 있으며, 풍부한 비타민(비타민A,B,E,K)과 균형 잡힌 무기질(칼륨, 철, 인, 칼슘)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아이소플라본(제이스타인, 다이드제인)과 같은 식물성화합물로써 건강증진에 특효입니다.



콩살로만

■ 설명
콩단백과 유청단백에 천연향료를 첨가하여 담백한 햄맛을 낸 제품
ISO9002 인증획득
무방부제, NO 콜레스테롤

■수량: 1000g 2개
■가격:28,000원



콩살들이

■ 설명
콩단백과 유청단백에 천연향료를 첨가하여 담백한 햄맛을 낸 제품
ISO9002 인증획득
무방부제, NO 콜레스테롤

■수량: 1000g 3개
■가격:36,000원



콩비엔나

■설명
콩단백과 소맥단백으로 햄맛을 낸 제품, 도시락 반찬 및 간식용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수량: 500g 4봉지
■가격:3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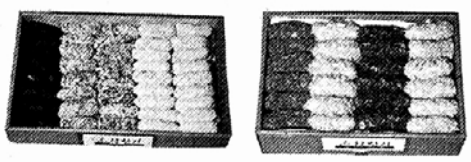


버섯말이

■설명
고급 표고버섯에 유청단백을 첨가하여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맛을 살려, 국, 볶음, 찌개용으로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수량: 150g 8봉지
■가격:32,000원

산촌유과 … 한국정통의 유과



한과는 곡물 가루에 꿀, 엿, 참기름,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꽃 모양 물고기 모양 같은 판에 박아 낸 다음 기름에 지지거나 조려서 만든 과자이다. 다른 말로 조과(造果)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천연물에 더하여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의 전문가인 김연식씨가 불교사원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정통 한과이다.

산촌 들깨유과	90,000원	산촌 콩유과	30,000원
산촌 김유과	90,000원	산촌 쑥유과	30,000원
산촌 잣유과	100,000원	산촌 호박유과	30,000원
산촌 대추유과	100,000원	산촌 김치유과	90,000원
산촌 땅콩유과	100,000원	산촌 된장유과	90,000원
산촌 흑임자유과	100,000원	산촌 고추장유과	90,000원
산촌 파래유과	90,000원	산촌 감자튀김	54,000원
산촌 찹쌀유과	30,000원	산촌 감자유과	54,000원

※ 1BOX : 4kg 공통

이렇게 들었다 — 수재민 돕기

"망쳐버렸어. 이젠 쌀밥 구경하긴 틀린겨."

수마에 휩쓸려 논바닥에 쓰러진 벼이삭을 바라보는 농부의 시름 깊은 모습이 안타깝게 한다.

8월31일 초속 50m가 넘는 기록적인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프라피룬(PRAPIROON)'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 현재 3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으며 71가구 293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팔월 한가위가 멀지 않았다. 연이은 태풍과 호우로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망연자실해 있을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때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일손을 돕고, 작은 정성을 모아야 한다. "나는 온 세상의 낱낱 이웃들을 위해 그들과 같이 무량겁을 지내면서 그들의 덕을 충만시키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을 버려두고 모른체 하지 않으리라.〈화엄경 십행품〉"는 보살의 다짐을 다시한번 새기자. 또 경전말씀을 통해 미리미리 재난을 대비하는 지혜를 배우자.

자비심 내 궁핍한 이웃 도우라

▨ 보살은 마땅히 온갖 중생을 위해 큰 불이 날 때와 큰 물에 떠내려 갈 때와 폭풍이 불 때, 배나 강물·바다·나찰의 환난에도 마땅히 이 경률을 독송하고 강설해야 한다. 〈범망경〉

▨ 작은 악을 대단치 않게 알아 재앙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물방울은 작지만 시간이 흐르면 차츰 큰 그릇을 채우고 간다. 〈열반경〉

▨ 보살은 이웃들이 온갖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대비심(大悲心)을 일으켜 이렇게 다짐한다. '나는 온 세상의 낱낱 이웃들을 위해 그들과 같이 무량겁을 지내면서 그들의 덕을 충만시키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을 버려두고 모른체하지 않으리라.' 보살은 모든 것이 무아(無我)라고 생각하고 대비심을 일으켜 모든 이웃을 구제하면서도 그 일에 물들지 않는다. 세상을 초월해 있으면서도 세상을 따르고 있다. 이것이 보살의 집착없는 행이다. 〈화엄경 십행품〉

▨ 비록 육신은 허망하다 해도 오직 은혜로운 보시의 복은 있어 자기를 따르는 양식되나니 감관을 잘 거두어 단속하고 선정을 닦는 공덕을 의지하여 돈이나 재물이나 또 음식을 그 힘따라 보시하고 잠에서 깨어나면 그것은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니라. 〈잡아함 노사경〉

▨ 대비란, 중생의 귀의할 곳 없음을 관찰하고, 중생이 사악한 길에 떨어짐을 관찰하고, 중생이 선근 없음을 관찰하고, 중생이 긴 생사(生死)에 잠자는 것을 관찰하고, 중생이 욕(欲)에 묶여있음을 관찰하고, 중생이 오랜 병을 가지고 있음을 관찰하고, 중생이 선법을 바라지 않음을 관찰하고, 중생이 제불의 법 잃음을 관찰하여 그때마다 대비를 일으키는 것이다. 〈회엄경〉

▨ 대승에 이르려면 네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보시로 모든 궁핍한 이를 도와 주며, 높고 낮은 이를 차별하여 마음을 두가지로 쓰지 않으며, 무엇을 남에게 주면서 무슨 희망이나 갚음이 있기를 바라지 않고, 공덕을 중생에게 두루 베푸는 것이다. 〈방등경〉

▨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법구경〉

▨ 세상에 재앙이 있고 일기가 고르지 못해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주린 나머지 고향에 안주하지 못하고 등을 돌려 도망치고자 할때는 마땅히 비심 (悲心)을 일으켜 곡식창고를 열고 가난한 삶을 일시적으로 도와줌으로써 그 목숨을 건져 본토에 안정해 살도록 해야 한다. 〈아난사사경〉

▨ 소 치는 다니야가 말했다. "나는 이미 밥도 짓고 우유도 짜 놓았습니다. 마히강 기슭에서 나는 처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움막은 지붕이 덮여 있고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만일 비를 내리시려거든 비를 내리시옵소서." 〈숫타니파타〉

▨ 보살은 보리도를 수행할 때 길을 잃은 중생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며, 길의 와석(瓦石)과 가시덤불을 제거하며, 건너야 할 물이나 험한 곳에 다리를 놓으며, 어두운 곳을 위해 등불을 단다. 〈대집경〉

▨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를 행하면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가 가는 곳에는 그림자처럼 복된 결과가 따르리라. 그러므로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때 없는 깨끗한 보시를 행하라. 보시를 행하면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기쁨은 거기 있으리. 〈잡아함 환희경〉

신행 캘린더

9월 6일 (수)

■ **석불문화연 '강원도 석불' 발표**=한국석불문화연구회는 오후6시 삼청동 가족 아카데미아에서 사랑방 모임을 갖고 '강원도지역 문화재 및 석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011-9016-5171

■ **선재마을 '정혜결사' 법회**=선재마을은 오후7시30분 선재한의원(삼성동 차관아파트 옆)에서 '보조국사 정혜결사문'을 내용으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02)518-0845

■ **한일 친선법요·음악공연**=불교문화연구원은 일본 입정대학 불교음악공연단을 초청,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예술극장에서 '한일친선 법요·음악공연'을 펼친다. (02)2260-8507

■ **북한어린이돕기 기금마련 고미술전**=북한어린이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2000 고미술특별전시회'가 다보성 고미술상설전시관에서 열린다. (02)581-5800

■ **철도청 성북승무소 성지순례**=철도청 성북 승무사무소 불자회는 안성 칠장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성북역 운동장에서 오전10시 출발. 011-9776-0541 박병호

9월 9일 (토)

■ **한빛은행 부산불자회 법회**=한빛은행 부산불자회는 오후5시 영주암에서 정관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051)462-3271 표은정

9월 14일 (목)

■ **인천제철 포항공장불자회 법회**=인천제철 포항공장 불자회는 오후7시 포항 대승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054)271-1956 박기훈

■ **기도간사 교육**=능인선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기도팀장과 기도간사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참선, 주지스님 말씀에 이어 '기도팀장의 역할과 임무'를 주제로 한 임혜인성씨의 실무이론 강좌로 진행된다. (02)577-5800

■ **법장사 가족등산**=법장사는 가족 단위의 도봉산 등반대회를 갖는다. 출발은 오전11시 법장사에서. (02)971-0303

9월 16일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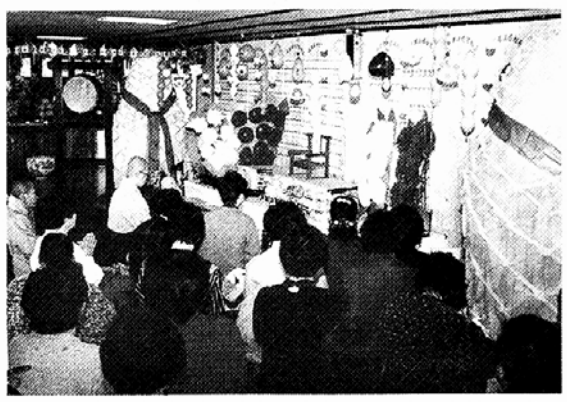
■ **태고종 밀양분원 만등불사**=태고종 경남교구종무원 산하 밀양분원은 오전 11시 밀양시 삼내면 긴늪숲에서 남북평화통일기원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한다. (055)354-0969

■ **춘천정신병원 불자회 창립**=국립춘천정신병원의 불자 의사와 간호사, 일반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불자회가 오후 2시 병원 강당에서 창립법회를 갖는다. (033)260-3301 이동숙

■ **선학회 사명당 선사상 발표회**=한국선학회는 오후 1시30분 중앙승가대학 강당에서 월례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는 이철헌 박사의 '사명당 유정의 선사상', 인경 스님의 '화엄과 선의 관계-돈교논쟁을 중심으로' 등이 발표된다. (02)2260-3135

■ **조계사청년회 백제권문화답사**=조계사청년회는 무박으로 이틀간(16~17일) 백제권 문화답사를 간다. 이번 기행에서는 선운사, 서산 마애삼존불, 수덕사, 무량사, 익산 미륵사지, 부여 정림사지 등을 둘러본다. (02)735-3724

9월 18일 (월)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타태아의 넋을 위로하는 타태아기령 천도법회.

■ **타태아기령 천도사경법회**=신흥사, 방생선원, 사천왕사 등 8개 사찰 및 단체는 오전10시30분 사천왕사에서 제5회 타태아기령 천도사경 연합법회를 봉행한다. (02)723-6258

9월 19일 (화)

■ **'정화운동' 조명 학술세미나**=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와 불교신문사는 오후1시 조계사 교육문화관에서 '교단 정화운동과 조계종의 정체성'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02)733-1604

9월 20일 (수)

■ **불자가수회 정기법회**=대한불자가수회는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02)713-2905]

■ **연꽃부부회 9월법회**=부산 혜원정사의 연꽃부부회는 오전 10시 법당에서 9월 법회를 갖는다. (051)866-7771

법회안내

'승만경' 강의



지묵 송광사 스님은 오는 10월3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7시 전북불교대학 3층 대강의실에서 7회에 걸쳐 '〈승만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063)226-7878

경불회서 법문



정일 연화사 주지스님은 13일 오후7시 경희의료원 불자모임 경불회 정기법회에서 법문한다. (02)958-8113 권혁운

통일정사 정기법회



최혜명 군불교진흥회 부회장은 10일 오전10시 하남시 검단산 통일정사 일요 정기법회에서 '남북통일을 위한 불교계와 불자의 역할'을 주제로 법문한다. (031)793-8693

한은불교회 설법



백남석 법사는 8일 정오 한국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는 불자들의 모임인 한국은행불교회 정기법회에서 법문한다. (02)759-4545

게시판

알림

▲**사회복지사 국제포럼**=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7일 오후1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제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사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02)786-0190

▲**무료 노인컴퓨터 교실**=자양복지관은 6일부터 매주 수요일 광진구내 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무료 컴퓨터교육을 실시한다. (02)458-1664

▲**장애인 컴퓨터 무료교육**=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18세 이상의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무료로 교육한다. 강의는 매주 토요일 오전10시 주1회 진행된다. (02)852-0525

▲**경주 남산 성지순례**=진여회는 16일 두박2일로 경주 남산 성지순례법회를 봉행한다. 순례단은 흥륜사에서 새벽 예불 후 칠불암을 비롯 부처바위골, 탑골, 미륵공 등을 둘러본다. (02)821-3242

▲**해양탐구 자연학습기행**=터사랑은 10일 노현포대, 해양생태공원, 자유공원, 인천상륙기념관, 인천시립박물관, 능어대, 원인재 등 인천지역 해양탐구 자연학습 체험기행을 실시한다. (02)725-1284

▲**동화사 사진촬영 공모전**=동화사는 개산 1570주년을 맞아 동화사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사진을 공모한다. 작품은 팔공산 동화사를 주제로 한 사진이면 어느 사진이나 접수 가능하다. 접수는 9일까지. (053)982-0101

모집

▲**능인불교대학 수강생**=능인선원 능인불교대학은 제30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주간반 매주 화·금요일 오전10시, 야간반 수·금요일 오후7시에 시작한다. (02)577-5800

▲**연꽃마을 경로식당 후원자**=연꽃마을은 서울 마포 송파, 수원, 군포 등 전국 9개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의 후원자를 기다린다. (02)2203-3677

▲**북카페 봉사자**=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관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10~12시 동 복지관 2층 보리수향 북카페에서 책 정리, 마을 문고 관리 등의 일을 도와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282-1100

▲**정토불교대학 수강생**=정토불교대학은 7일 개강(주간반)하는 제8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야간반은 8일 개강. 부처님의 생애, 21세기 불자상의 재정립,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불교와 문화, 불교의 진리관 등을 주제로 한 강의로 진행된다. (055)258-9944

▲**글방 동아리 회원**=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글짓기에 관심이 있는 노인들이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글로 엮어내는 모임인 글방 동아리 회원을 모집한다. 55세 이상의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2)985-0161

강좌

▲**'신심명' 강독**=광명선원은 19일 오전11시 6개월 과정의 〈신심명〉 강좌를 개강한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11시. (02)584-1108

▲**수화교실**=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10시~11시30분 '사랑의 수화교실 핸즈(Hands)'를 연다. (02)421-6077

▲**불교교리**=동산반야회는 6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7시 동산법당에서 불교교리 강좌를 마련한다. 3개월 과정. (02)732-1206

▲**경전 외국어 강독**=성철선사상연구원 백련학당은 '〈금강반야경〉을 교재로 한 일본어 불교한자 읽기', '〈대승불교입문〉을 교재로 한 일어청취', '중국어를 통한 선어록 이해' 강좌를 18일부터 12월6일까지 개설한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7~9시. (02)744-1541

▲**'화엄경금사자장'**=깨침터는 5일부터 6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7시30분 황금사자를 비유로 화엄의 오묘한 세계를 설명한 현수 법장(당나라) 스님의 〈화엄경금사자장〉 강좌를 마련한다. (02)742-0085

구인

▲**화엄사 종무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는 여자 종사원을 모집한다. 사찰법당보살(50~60세)과 전통찻집(25~50세) 종사원 0명. (061)782-7600

▲**보리수선원 종무원**=서울 보리수선원은 PC사용 가능한 40세 이하의 남녀를 대상으로 종무원을 구한다. 무경험자도 가능. (02)928-2844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일타큰스님의 유고법문집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신국판 / 값 5,000원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
어떻게 닦고 익힐 것인가?

이 책은 일타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고집으로, 모든 불자들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 등을 갖가지 비유와 함께 자상하게 설하여 불자들의 삶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 가 천 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옵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기를!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Ⅰ.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과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Ⅱ.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영가천도기도법,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동사무소 전직원 장기기증·화장서약

대전 태평2동 "죽은후에도 주민 봉사"
"종교 떠나 좋은일"…기독교인도 동참

한 동사무소의 16명 직원 모두가 사후 장기기증과 화장유언에 서약해 화제다. 더욱이 불교·개신교·천주교 등 서로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에는 종교가 따로 없다"고 외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대전 중구 태평2동 동사무소(동장 장완순)의 동장을 비롯한 직원 16명은 8월 28일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에 장기기증과 화장유언에 대한 서약서와 함께 짧은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죽어서라도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드린다는 각오로 장기기증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두 달여 전. 장완순 동장이 게시판에서 우연히 생명나눔실천회 포스터 본 것이 계기가 됐다. 장 동장은 '우리 식구들이 다함께 장기기증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즉시 생명나눔실천회에 기증 신청서 20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막상 직원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니 일방적인 강요같기도 하고, 또 불교 6명, 개신교 2명, 천주교 2명, 무교 6명 등 직원마다 종교가 달라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신이 없었다. 몇 차례 고민끝에 장동장은 이것이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고 직원 전체회의에서 얘기를 꺼냈다. 그러나 직원 4명이 망설이며 찬성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장동장과 이에 뜻을 같이하는 몇몇 직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망설이고 있는 동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달여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망설였던 직원들도 모두 뜻깊은 일에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불교신자인 박은영(30·주민등록 담당)씨는 "평소 등사무소 직원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불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동장님과 여러 동료들이 장기기증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평소 신장결석과 장출혈로 병원신세를 많이 지면서 수혈해 준 고마운 분들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고민했는데, 이 기회에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동참했습니다." 개신교인이라는 오갑주(44·총무담당)씨는 생명나눔실천회가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단체란 걸 이번에 알았다며 뜻깊은 일을 하는 데 종교가 다른게 무슨 상관이냐며 이렇게 말했다.



◇장기기증·화장서약을 함께한 대전 태평2동 사무소 직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직원들이 마음을 합쳐 장기기증에 나서게 한 일등공신은 장완순 동장이다. '한 번 공무원은 죽어서도 공무원'이라는 소신을 꺾어본 적이 없었다. 장기기증과 화장에 대한 소신 역시 마찬가지다.

"화장은 불교에서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없어질 육체에 집착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천주교인이지만 장기기증과 화장은 종교를 떠나 생명을 나누고 국토를 아름답게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자 호스피스·간병교육 열기

불교복지보건대 · 범어사 · 정토사 강좌 잇따라



◇불교복지보건대학 수료 사진.

부산·경남 불교계에 호스피스·간병 교육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 같은 호스피스 간병 교육열풍은 타 종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불자 호스피스 인력의 충당과 질 높은 봉사활동을 위한 청신호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99년 4월 불교계 최초로 보건과 복지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던 불교복지보건대학(051-462-5670)이 간병과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낸데 이어 8월 28~31일 범어사 부산포교원(051-853-5486)도 부산재가노인복지센터 주관으로 4일간의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울산 정토사(052-258-9944)는 5일부터 2개월 과정으로 제1기 전문간병인 교육을 개강하고, 미룡사(051-404-4300)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간병과정 교육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같은 호스피스·간병 교육의 공통점은 각 병원과 학교에서 활동하는 전문 강사진들의 교육과 실습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교육기간을 수료한 이들의 활동폭도 다양하다. 8월 31일 4기 불심호스피스 간병과정 수료식을 가진 불교복지보건대학은 현재까지 배출된 2백 여명의 졸업생들이 동인병원, 부산의료원, 효도병원 등에서 불자 간병인들의 활동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수료식을 가진 범어사부산포교원의 호스피스 과정에서는 115명의 불자 호스피스 인력이 탄생해 호스피스 인력을 필요로 하는 병원, 가정 등에서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불교복지보건대학이 9월 26일 5기 불심호스피스 간병 과정 개강을 앞두고 있으며 정토사 9월 5일, 범어사부산포교원과 미룡사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간병과정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미륵사지옆 아파트 '말썽'

주민들 "경관 훼손 · 용수 고갈" 건설 반대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에 소재한 국가사적 150호인 미륵사지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난(亂)개발로 인한 주변 경관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8월31일 익산시에 따르면 서울에 본사를 둔 모 건설업체가 미륵사지 인근 지역의 미륵산 자락에 5층짜리 아파트 9채, 336가구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요청,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취락지구개발계획 등을 승인 받고 최종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부지는 백제불교 최대의 유적지인 미륵사지에서 불과 1.5㎞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인근지역에 군부대의 사격장이 위치해 공동주택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국내는 물론 일본 등지의 관광객들이 자주 오는 미륵사지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미륵산의 경관과 풍치를 해칠 우려가 있다.

이 지역 주민들도 이곳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어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 관정개발이 불가피해 인근의 생활, 농업용수의 고갈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건설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독실한 불자 산사태 복구중 순직

군산시청 유화종씨



8월 26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복구작업에 나섰다가 갑자기 무너진 흙더미에 깔려 숨진 전북 군산시청 도로관리계장 유화종(48)씨가 불심돈독한 불자임이 알려지면서 지역불자들의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고인은 군산 내원암 신도로 올해 전주에 있는 전북불교대학 불교학과에 입학해 바쁜 업무중에서도 군산에서 전주까지 1시간이 넘는 거리를 통학하며 불교교리 공부에 매달려왔다. 게다가 업무상 사정으로 수업을 빠지게 되면 강의를 녹음한 테잎을 구입해 공부하는 등 열의가 대단했다. 고인은 3대 독자로 두 딸 유경(6)과 유진(3)양을 남겨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한명우 기자

단양 온달축제때 연등제

오는 29일부터 10월1일까지 3일간 단양읍과 온달산성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5회 단양 온달문화축제 첫날 부대행사로 선착장앞 남한강에서 소원기원 연등제가 열린다.

이날 전국의 불자들이 참석해 무병장수 등 다양한 소망이 실린 연등을 띄워 장관을 연출한다. 천태종 본산 구인사와 단양사암연합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바라춤과 승무, 소원기원 염불제도 열려 불교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

단양 온달문화축제는 연등제를 비롯해 민속공연, 마당극, 무예시연 등 볼거리가 다양하다.

(043)420-3545 김재경 기자

달라이라마 사진 게재
中 클린턴 화보집 압수

중국 세관당국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화보집 가운데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클린턴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 한 장을 문제삼아 화보집 1만6천부를 압수했다고 화보집 출판에 관여했던 한 업체가 8월28일 주장했다.

〈클린턴 집권기(The Clinton Years)〉라는 제목의 이 화보집은 지난 92-98년 클린턴 대통령의 공식 사진사였던 로버트 맥닐리가 찍은 흑백사진 2백여장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4년 4월28일 백악관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가 악수하는 사진이 한 장 포함돼 있다. 김재경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관음사불교대 야간반 개설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주지 중원)는 오는 10월부터 1년과정의 제주불교문화대학 야간반을 개설, 교육생을 모집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부터 2시간동안 열리는 교육학기는 신앙입문기(10월~12월) 신행수학기(1월~3월) 신행연수기(4월~6월) 정법회향기(7월~9월)로 나눠 강좌가 이루어진다. (064)702-2828

태권도공원 유치 기원법회

제5교구 본사 법주사(주지 지명)는 8월29일 스님과 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태권도공원 보은 유치를 위한 21일간의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운천사 대웅전 상량법회

전남 종무원사가 있는 운천사 대웅전 상량법회가 금명 전남종무원장 등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8월 28일 봉행됐다. 건평 25평인 대웅전은 광주시 유형문화재 제4호 마애여래좌상을 보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정면 3칸 후면 2칸 맞배지붕 형태로 지어지게 된다.

강원교구 중국 성지순례

강원종무원(원장 백운)산하 스님과 교임 25명은 8월 31일부터 9월3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불교성지순례를 가졌다. 정기 연수교육을 대신해 마련된 이번 성지순례에서 스님들은 북경의 광제사를 비롯 공자묘, 만리장성, 천안문 등 중국 문화유적을 돌아보았다.

천태종

진부 진강사 법당 낙성식

진부 진강사(주지 갈용)는 18일 오전 10시 법당 낙성식을 봉행한다. 이번 낙성법회에는 종정 도용스님을 비롯 종단 간부스님들과 신도 등 2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033)335-7376

진각종

경주 밀교교리대법회

제3회 밀교교리대법회가 30일 오후 2시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법사는 혜정 종학연구실장이며 법회의 주제는 '생활의 참지혜를 깨닫는 법'.

관음종

성직자수련 12월 개최

8월 25일 인천 흥륜사에서 종단 현안에 대한 확대 종무회의가 열렸다. 종정 혜웅스님, 총무원장 홍파스님 등 종단 간부스님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동계성직자수련회를 오는 12월 5~7일 천안 보명사에서 열기로 했다.

일승종

묘종스님 종정추대



8월 24월 재적 종회의원 23명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1차 중앙종회를 개최하고 임기가 만료된 범호 종정 후임으로 법공 묘종스님을 9대 종정에 추대했다. 또한 혜정 총무원장 후임으로 전 종회의장 혜덕스님(사진)을 제12대 총무원장에 선출했다.

조동종

은적사 미륵불 점안법회

경남 사천 은적사(주지 법광)는 8월 20일 미륵부처님 점안 및 천등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지명스님을 비롯 학봉 총무원장 등과 신도 5백여명이 동참했다.

아봐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봐타 코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아봐타 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8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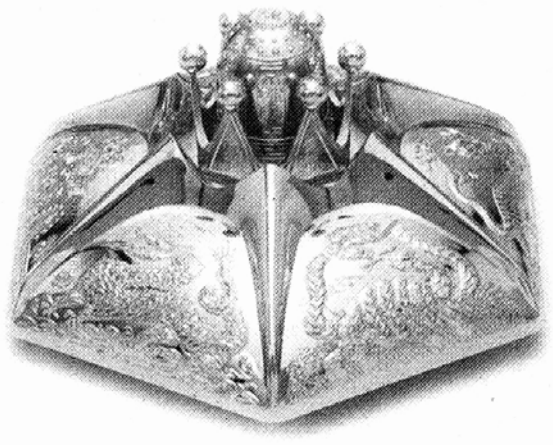
밝은길 아봐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ukba@kornet.net
☎ 02) 396-2736 H·P 016)228-2358
FAX 02) 396-2735

소원 성취 명당 육기(氣) 방

옛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청용(靑龍) (우)백호(白虎) (남)주작(朱雀) (북)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하여 소원성취 · 안전운행 · 사업흥왕 · 불화방지 · 가내화합 · 시험합격 · 악귀퇴치 · 극락왕생 · 선신수호 · 삼재예방 · 관재소멸 · 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명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법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방이라 한다.

◆꿈의 계시◆

6년전 6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키가 아주작은 할머니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데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이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더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기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며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이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 거리고 있었다.

◆육기(氣)방 사용 체험사례◆

· 집안에 우환이 잦았는데 우환이 없어지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
· 말썽만 피우던 자녀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우 착해졌다.
·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졌다한다.
· 자동차 사고로 차는 폐차 되었는데도 몸은 다친곳이 없었다.
· 사업고 잘되고 장사가 잘되었다.
· 안되던 배(선박) 사업도 사고없이 잘 되었다.
· 술먹고 도박하고 방탕생활 하던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화목해졌다.
· 스님의 글을 넣어도 좋습니다.

◆사용처◆ ※모든 불자님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가정집, 공장, 공부방, 새집터, 가게, 사업장, 자동차, 선박, 묘지, 장의사(관), 종합(재), 사십구제, 천도재 등 여러곳에 사용함.
실용신안 · 의장등록 · 상표등록 (특허출원)

◆구입처◆ 전국불교용품점, 사찰 · 암자, 철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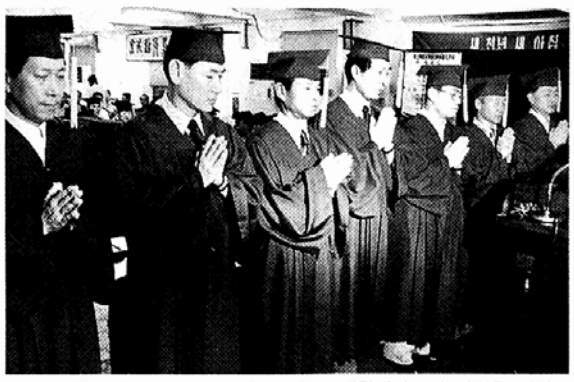
(주)명당육기(氣)방: 051)865-9933
공 장: 051)864-7878
홈페이지 :www.6kibang.co.kr

◆생각치도 않은 좋은 신기(新奇)의 기적(奇蹟)들이 많이 일어 난다고 하여 신(神)이냐 기적(奇蹟)이냐 하는 소리가 많다.◆

교정기관 교도관불자들 불교공부 열심

"부처님 가르침으로 재소자 교화"

서울구치소 교도관 이남수씨(49)는 지난 2년간 동산불교대학에서 근본불교, 대승불교, 불교상담론, 포교방법론 등을 공부하고 8월 27일 동료 불자교도관 7명과 함께 졸업을 했다. 지난 2년간 3교대의 빠듯한 근무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면 어김없이 학교에 나와 불교를 열심히 배웠던 이유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재소자 교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구치소 교도관 8명은 동산불교대학에서 2년 과정을 마치고 8월27일 졸업했다.

서울구치소 불심회원 8명 동산불교대 졸업

경주교도소 오재곤씨(45)도 경전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주지역에 불교교양대학이 없어 불국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과 정토법당에서 경전강의를 듣고 있는 그는 초발심자경문, 반야심경 등 그동안 많은 경전을 공부했다. 그래서 지금은 재소자를 대하는 마음이 예전과 달라졌고 새로운 삶을 찾은 것만 같다.

이들처럼 전국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기관의 교도관 불자들이 불교교양대학에 다니는 등 열심히 불교를 공부해 재소자들에게 불심을 심어주고 있다.

서울구치소 불자교도관 모임인 불심회 회원 45명은 98년 사당 정광사 포교당에서 3개월 과정의 불교기초교리 강좌를 수강하고 그중 17명이 동산불교대학에 입학해 주위의 관심을 끌었다.

이중 1명인 서울구치소 유영군(53) 교도관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있는 재소자들에게 '악행은 악과를 낳는다'는 불교의 인과법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서는 것 같다"며 "그런 재소자들이 불법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경주교도소 불심회 회원 30명도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경주시내 불교사회교육원에서 〈반야심경〉을 공부했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사불자연합회 경주지회와 한전 서광회 회원들과 함께 지금은 〈금강경〉을 배우고 있다. 상담시 재소자들에게 독경을 권한다는 불심회장 서경석(47)씨는 "상담실에서 재소자와 함께 반야심경을 봉독하다보면 어느새 교도관과 재소자라는 벽은 금방 허물어진다"며 "지금 하고 있는 경전공부는 재소자들과 함께 부처님말씀을 더욱 심도있게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 불심회 회원들의 불법 공부 열기도 대단하다. 현재 8명의 회원이 통도사 포교원 불교대학, 광명 불교대학, 부산불교대학에 다니며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불교대학을 졸업한 회원이 15명 정도이고 그중 조계종 포교사로 활동하는 사람만도 10여명이나 된다. 영등포교도소 불심회원 8명도 동산불교대학에 입학, 부처님의 말씀을 재소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경주교도소 불심회원 3개월 반야심경 공부

이외에도 부산구치소, 수원구치소, 광주교도소, 대전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등 전국 교정기관 불자들도 불교교양대학이나 법회를 통해 열심히 불법을 익혀 재소자 교화에 헌신하고 있다.

영등포교도소 불교단당 교도관 이영복(46)씨는"재소자를 상대로 한 법회나 교리강좌는 종교위원 스님들이 하지만 상담은 교도관들이 주로 한다"며 "재소자들이 상담을 통해 사람이 달라지고 심성이 순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한가위 이웃과 함께

교계복지관등 행사 다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12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 한가위를 따뜻하게 맞기 위한 자비나누기 행사가 교계 단체와 복지관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02-817-8052)은 6~7일 복지관 일대에서 추석맞이 지역주민 대축제를 벌인다. 축제에서는 무의탁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자선바자회와 먹거리나눔 행사, 민속놀이경연대회, 무료 어린이인형극 등이 개최된다.

길음종합사회복지관(02-985-0161)과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02-385-1351)은 6일과 7일 각각 '어르신 송편빚기 대회'를 열고 관내 생활이 어려운 이웃가정에 직접 송편을 배달한다. 은평노인복지관은 8월31일~9월5일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를 벌여 모은 쌀을 지역내 저소득 독거노인 2백세대와 11개 저소득 경로당에 지원하기도 했다.

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02-365-3677)는 7일 무의탁노인 및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파주 금강산랜드 온천나들이 행사를 개최한다. 같은 날 자양사회복지관(02-458-1664)은 건대 동문회관에서 무료경로식당 및 노인교실, 지역 경로당을 이용하는 4백여명의 노인이 참석하는 가운데 한가위 맞이 경로잔치를 마련한다.

불국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054-743-1106)은 8일 천마총 옆 무료급식소에서 무의탁 노인 및 관내 노인 250여 명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개최한다. 자비의 집(02-945-4201)과 한솔종합사회복지관(031-716-4215)도 8일 송편을 빚어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하는 자비나누기 행사를 갖는다.

한편 삼광사는 2일 추석을 맞아 관내 90여명의 불우이웃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능인종합사회복지관도 5일 4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송편을 지역내 저소득 가정 65세대에 배달했다.

한가위를 앞두고 이웃과 함께 하는 교계 복지관과 단체의 자비실천 행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국민생명 담보 의료파업 철회"

24개 불교단체 '조속한 진료복귀' 촉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선우도량 재가연대 경불련 생명나눔실천회 대불청 등 24개 불교단체들은 8월28일 조계종 포교원 교육관에서 의약분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장기화되고 있는 전공의 파업사태와 관련,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파업을 철회하고 대승적인 자세로 의약분업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진료복귀 및 정부협상에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수가 인상문제와 관련, "정부와 의료계는 충분한 국민 설득 작업을 거쳐야 하며 이에 상응한 병원 경영의 투명화, 환자 본인 부담금 동결, 과잉 편법 진료 및 의료보험 부당청구 등의 잘못된 관행 청산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준비안된 파행적인 의약분업 정책에도 항의한 불교단체들은 조만간 전공의 파업 현장에 나가 설득작업을 벌이는 한편 정부에도 원만한 협상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24개 불교단체들은 8월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파업을 철회하고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고아들 장학금에 써주세요"

'나눔의집' 김군자할머니 5천만원 기탁

세상은 한 사람을 무참히 짓밟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세상에 내놓았다. 한(恨)만 남겨놓은 삶, 그 삶을 털어내듯 가진 모든 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바치겠다는 자비심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遺産)으로 남게 됐다.

일본군 위안부 출신으로 현재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김군자(75) 할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 5천만원을 고아들을 위한 장학금에 써달라며 내놓았다. 김 할머니와 나눔의 집 원장 혜진스님은 8월30일 오후 '아름다운 재단'(이시장 박상증)을 방문, 5천만원을 전달했다. 김 할머니가 이날 전달한 돈은 93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와 민간단체기금에서 받은 보상금과 평소 단추끼우기 등 소일거리를 통해 벌었던 돈을 모은 것이다.

김 할머니는 "작은 돈이지만 불우한 아이들이 훌륭히 자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가 고아들을 위한 장학금을 내놓게 된 데에는 자신이 고아로서 불행한 어린시절을 보내고 배우지 못한 것이 한(恨)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평창이 고향인 김 할머니는 17세에 일본군에게 끌려가 중국 훈춘에서 해방되던 20세까지 위안부 생활을 했으며, 해방 후에는 강원도 김하에서 살다가 2년 후 월남, 서울 뚝섬 인근에서 술집을 전전하다가 남은 생을 보람있게 마치자는 발원으로 불교에 귀의했다.

"불행했던 내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 불교에 매달렸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김 할머니는 "이렇게 베풂으로써 내 상처를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매달 50만원이나 드는 약값을 걱정하는 물음에 "매달 정부에서 50만원씩 나오니까 걱정없어"라고 웃으며 답했다.



위안부 할머니가 나눔의 삶을 실천한 것은 베트남 라이 따이한 자녀 장학금 2천만원을 내놓고 지난 1월 타계한 김옥주 할머니를 비롯해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을 위해 4천3백만원을 내놓은 문명금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에 1천만원의 기금을 쾌척한 김복동 할머니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한명우 기자

마이산탑 관리자 교체처분 효력정지

마이산탑사 사태와 관련〈본지 277·278호 23면 참조〉, 재판부에서도 마이산탑 관리자 교체처분이 타당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관사 방극성 박준범 김진동)는 탑사 주지 왕선스님이 전라북도지사를 피신청인으로 낸, 마이산 탑 관리자 교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처분효력 정지신청을 받아들여 '관리자교체처분 무효확인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8월3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효력정지 이유에 대해 "관리자교체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연꽃마을 '노인복지사업소' 운영

안성시로부터 수탁

연꽃마을이 안성시로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소'를 수탁했다.

연꽃마을(대표이사 각현)은 8월26일 안성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10월 중순경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성시 동본동에 위치한 50평 규모의 재가노인복지사업소는 주간보호와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며, 물리치료·운동치료 등의 의료서비스와 기능회복훈련 및 이·미용·목욕 등의 위생서비스, 각종 여가활용 프로그램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 지역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상담실도 함께 운영한다. (031)673-3677 한명우 기자

지하철 '자비의 말씀' 불우이웃돕기 캠페인

서울경기지역 지하철역에 '자비의 말씀'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풍경소리(대표이사 성운스님)가 지난 1일부터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풍경소리는 '자비의 말씀' 게시판을 통해 불우이웃을 돕는 후원회와 후원자를 이어주는 '나누는 것이 참된 행복'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양산 천불사, 제주에 15만기 납골당 조성

장묘문화 개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양산시 소재 조계종 선학원 천불사 분원(주지 도봉)이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지역에 유골 15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제주도내 최대 규모의 사설납골당이 조성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천불사는 최근 북제주군에 사설납골당 조성사업을 신청, 애월읍 상가리 산 110번지 25만 평방미터에 사업비 4백10억원을 들여 유골 15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을 조성할 예정이다. 사설납골당에는 납골당 7동을 비롯한 화장장 1동, 노천부도탑 5천2백기, 대설법전 1동, 불교유물관 1동, 명부전 1동, 주차장과 관리사무소가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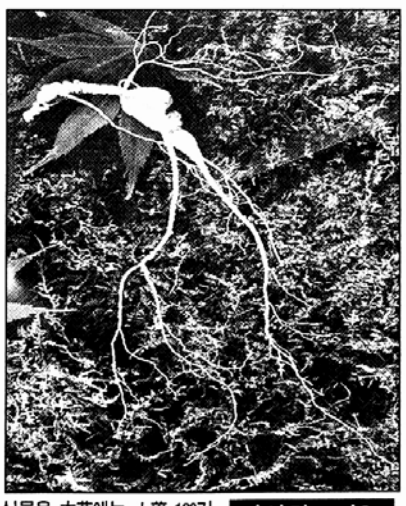
천불사는 납골당 조성을 위해 이미 부지를 확보했으며 납골당 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북제주군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했다. 북제주군은 관계법령에 의거한 입지여건을 검토한 후 납골당 설치허가를 내 줄 방침이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5천기 안치규모의 제주시 공설납골당과 1천7백92기 규모의 남제주군 공설납골당이 조성돼 있다. 김재경 기자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주부신행담 모두가 내 탓인 걸

지난날을 회상해 보면 당시엔 견뎌내기 힘들 것 같던 고통이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과정임을 뒤늦게야 알게 된다. 이를 깨우치면 부처님께 너무나 감사해 울음이 저절로 나온다. 모두가 내 어리석음, 욕심에서 나왔다는 걸 이제는 안다. 당시에는 이것 저것 사정없이 쏟아져 나오는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기에 허공에다 왜 이런 일들이 닥쳐 오느냐고 물어도 보고 처음에는 갈팡질팡 하면서 더욱더 과고 들기도 했다. 내가 모두 저질러 놓은 일이라면 해결하는 것도 나를 이끌고 다니는 자불, 즉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임을 굳게 믿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저질러 놓은 자리에서 해결도 할 수 있어"라는 믿음으로 "죽이는 것도 너, 살리는 것도 수억겁을 형성시켜 끌고 온 너는 알잖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알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해결도 할 수 있다"라고 관하곤 했다.

내가 한마음선원과 인연이 되어 이 마음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엄마는 사십년 넘게 부처님을 집에다 모셔놓고 위하고 받들며 살아오셨다.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을 봐왔기에 아무 부담없이 받아들일만도 했는데 칠남매 중에 유독 나만은 그런 것이 너무도 싫었고 창피했다. 그래서 엄마와 마주치면 싸우기만 했다. 절이 좋으면 절에 다니면 되지 왜 저렇게 집에 모셔두고 위하느냐고. 항상 다투다가 결혼을 해 멀리 떨어져 살다보면 잊었거니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내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치우게 할 수 있는지만 골똘히 생각하게 됐다. 절에 가서 스님을 뵙게 되면 그 일부터 물었지만 속시원하게 가르쳐 주는 분은 없었다.

불교에 대해 기본적인 것도 모르던 나는 불교에 의문이 많았다. 왜 절을 세 번 해야 하며, 무슨 마음을 갖고 절을 해야 하는지, 모양이 다른 부처님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등등… 궁금한 것 투성이였다.

무조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건 싫었다. 의문이 많다보니 이왕이면 올게 믿음을 갖고 싶어 이곳 저곳 수소문 하다가 언니의 소개로 안양 한마음선원을 알게 됐다. 집에서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토요일마다 올라와서 일요법회에 참석했다. 대행큰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불교에 관한 많은 책들을 한가지씩 골라 밤낮없이 열심히 읽고 테이프도 들어가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알기 위하여 노력을 했다.

그러다 어떤 보살을 알게 되었다. 불교공부를 하던 와중이었음에도 여전히 엄마가 집에 모셨던 부처님을 치우고 싶다는 생각은 여전했었다. 그분에게 나의 걱정을 이야기 하니까 자신이 치워주겠다고 했다. 그 말을 믿고 부모님을 설득하면서 친정집에 가서 몽땅 태워버리고 왔다. 내 어리석음이 화를 부른 것 같다.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40여 년을 모셨던 부처님을 그렇게 함부로 하다니….

그 이후 잘하던 식당도 주인이 쓰겠다고 비워달라고 해서 시설비 권리금 등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빈 몸으로 나오게 되었다. 빚을 지게 되니 마음의 고통은 시작이 되었고 남편이 가서 일하는 현장마다 부도의 연속이었다. 그러다 IMF가 왔고 어찌나 고생을 했는지 지난 5년 간의 세월은 악몽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난 불교공부를, 마음공부를 한 불자라는 생각에 앞서 배운 마음공부를 의지처로 생각하면서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참고 견뎠다. 나를 이끄는 주인공은 이 모두가 내 탓인 것을 가르치면서 이끌어 주었다.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너만이 할 수 있어 라고 관하면 어딘가에서부터 자연스레 풀려나갔다.

모든 일이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이니
밖으로 헤매며 남 원망하지 말고
자불을 믿고 관할때 잘 풀려나간다

나는 절대로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항상 풀 아니니 생활 속의 불법임을 알고, 쉽게 공부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이 마음공부야말로 보배 중의 보배임을 알리고 싶다. 나를 이끄는 내 자불을 믿고 밖에서 헤매지 말고 내 자아부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기 쉽게 가르쳐 주는데도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면 인연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움이 닥치면 우선은 점장이나 철학관 등을 찾아 헤매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런데 문제를 꼬이게 하는 것도 나요, 해결책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점장이가 무슨 해결책을 주는가. 밖에서 찾지 말고 수억겁 전부터 나를 형성시켜서 이 날까지 만들어 이끌고 다니는 자불, 앞으로도 이끌고 갈 자아부처님만 믿고 거기서 나온 모든 일은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불국토가 될 것이다.

나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갖는다. 마음은 하늘에서 알고 땅에서 알고 법계에서 알기에 진실한 마음을 내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넓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공생 공용 공심 공체임을 모두가 알게 되리라 믿는다.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알아야 남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말보다는 실행을 앞세우는 불교인이 많았으면 좋겠다. 자기 자불을 믿고 관할 때 자기만이 느끼고 알 수 있는 마음공부. 이것이 부처님 법이며 진리라는 걸 알아야 한다. 정말이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의든 타의든 갑자기 불어닥친 일들에 방황하면서 남 탓으로 돌리고 미워하며 원망한다. 이럴수록 문제는 더욱 얽히고 설킬 뿐이지 해결될 길이 없다.

올라가는 길이 힘들다 하면 내려가는 쉬운 길이 있는 것이 인생살이기에 지난 일도 다가올 일도 미리 생각하지 말며 오로지 오늘을, 현재를 잘 보낼 것을 관하면서 살려고 노력한다.

한마음선원을 다니면서 배운 이 마음공부가 내 인생을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여유있게 만들어주었기에 다른 어려운 이들에게도 알리고 싶었다.

갑작스런 사고로 실명한 청년한테 공부를 해보라고 가르쳐 주면서 대행큰스님 법문테이프를 여러개 주었다. 스님의 법문을 접한 그 청년은 갑자기 닥친 현실 앞에서 벽에 머리를 치고 방바닥을 손으로 때리면서 살아오던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지금은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다. 만약에 눈이 보이면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신 대행큰스님이 제일 먼저 보고 싶고 보살님 얼굴이 보고 싶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불교를 수행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임을 알아 무척 고마웠다.



그림 · 이준석

부모 형제 남편 자식들도 얼굴 모습이 다르듯이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에 이 마음공부를 하면 좋으련만 살아온 과정이 달라서인지 쉽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주위에서 많이 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불교를 배울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면서 마음만 내 주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절에 데리고 다니면서 믿음을 갖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 데리고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아무런 고통이 없을 때 오히려 부지런히 수행을 닦아야 된다. 어려움이 닥치고 나서야 믿음을 갖게 되고 성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안되느냐고 말하는 분들을 가끔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쉽게 된다면 믿음이 없는 분들이 없을 것이다. 인연따라 진실하게 주인공을 믿고 관한다면 그만큼 성숙되어 가면서 문제도 해결됨을 자신이 경험하면서 배우는 공부가 부처님의 진리라 믿고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 소풍 오면서 배낭 속에 짐어지고 나온 짐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으니 나온 자리에다가 맡기면서 너만이 해결할 수 있고 너만이 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고 이 가정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길 바란다.

박영미 (경북 영주시 휴천1동)



서울대학교 천연물 과학연구소 는?

작은키 포기 하지마세요

키가 유전이라고요?
영양31% 유전23%
운동20% 환경16% 기타10%

요즘세상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잘해도 키가 작으면-
학교에서 물론,
취직,결혼 등 매사에 걱정돼.
현재 강남에선 키를 높이는 수술,
성장 호르몬 요법이 성행중이나
수천만원씩 하는 고비용문에 중산층에선 그림의 떡
이에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에서는
누구나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클 수 있는
키돌이를 이렇게 축적된 노하우에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176
175
174
173
"어루구리 벌써 17m"

키돌이
Ca

《성·장·발·육!》
성장기에 필요한 필수영양소와 적당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1m80 넘어 다리 시대!
업데이 날은 작은키 키돌이가 키웁니다.

제조원 : (株) 開豊洋行 판매원 : 키돌이성장원

소비자상담 080-011-8677 대리점문의 (02)563-1534

「우리 곁에 다녀간 부처」
성철 대선사 기념메달 보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참 뜻만 깨쳐도 우리는 이미
큰스님과 함께 삼법인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소재 : 황동(순금도금) 직경 : 80mm 가격 : 5만원





판매 : 인터넷 불교 백화점 마하몰 제조 한국조폐공사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반야심경 달마도 경판 보급

「달마대사와 경전의 핵심인 반야심경을 함께 모셨습니다.」
가정에는 품위있는 소장을" 고마운 분께는 마음의 선물을"
반야심경 달마도 경판"을 선택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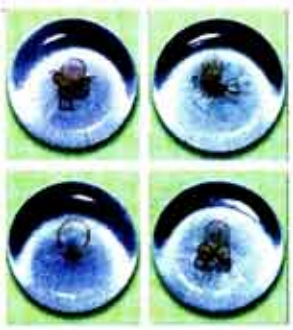


▶ 스탠드형 경판 (고급 오동나무 케이스 포함)
▶ 규 격 : 가로 49cm 세로 23cm,
▶ 가 격 : 97,000원



▶ 액자형 경판
▶ 규 격 : 가로 69cm 세로 43cm,
▶ 가 격 : 107,000원

불교 캐릭터 무공해 투명 한방 미용 비누



천연, 한방원료를 사용하여 피부의 노폐물 및 메이커 업 잔여물 까지도 깨끗이 한불의 투명 미용비누는 키토산, 죽염, 홍삼 황토, 프로 폴리스 등 천연원료를 과학적으로 배합하여 세정 마사지 효과, 피부노화방지 효과, 잔주름예방 효과, 미백효과 등 평상시 피부관리에 탑은 도움을 주는 무공해 미용비누 입니다. 투명한 비누 속에 귀여운 동자승의 모습은 마음이 맑으면 몸도 맑아진다는 선조들의 임상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격 ?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입니다!

1개 당 : 3,000 원(구입가격 50,000원 이하 시 발송료 별도)
6개 1세트 : 16,000원 (구입가격 50,000원 이하 시 발송료 별도)
500개 이상 : 개당 20%할인
1000개 이상 : 주문자 디자인 투명비누 속에 첨가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